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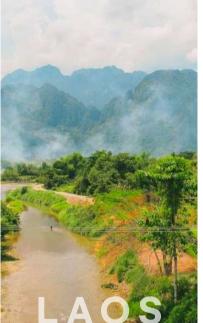
메콩연구소 - Mekong Institute www.mekonginstitute.org

메콩이야기 - Mekong Story www.MekongSusTainabletouris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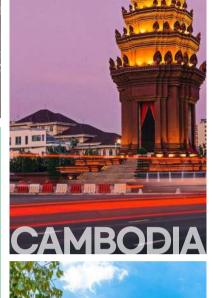








MAKE YOUR MEKONG 함께 만들어가는 메콩 여행







메콩연구소 - Mekong Institute www.mekonginstitute.org

메콩이야기 - Mekong Story www.MekongSusTainabletourism.com















CONTENTS

04 인사말(한/영)

Intro

06 지도로 보는 메콩 08 메콩 캐릭터 소개

Main

013 캄보디아

039 라오스

061 미얀마

085 베트남

109 태국

Outro

135 메콩강 5개국 여행과 함께 볼 영화

본 가이드북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청년단체인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청년단체 SDG YOUTH와 정보소외층을 위한 미디어실천모임인 '휴먼에이드'가 만든 언론매체인 휴먼에이드포스트'와 함께 제작되었습니다.

정형화된 여행이 아닌 상상력과 호기심, 주제를 따라 메콩강 5개국을 여행해 봤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 우리 모두 난생 처음 겪어본 공포와 외로움 속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정보소외계층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었던 고통을 잠시나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여행이 시작된다면, '우리 함께' 여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메콩여행을 꿈꿉니다.

CONTENTS

04 Greeting (KOR/ENG)

Intro

06 Map of Mekong Sub-region (CLMVT)08 About "Mekong brothers"

Main

013 Cambodia

039 Laos

061 Myanmar

085 Vietnam

109 Thailand

Outro

135 Movies of Mekong River & CLMVT

This guidebook was published in collaboration with SDG YOUTH, a non-profit organization with members of college students and social workers in 20's to make a better world, and 'Human Aid Post' operated by 'Human Aid' which is a media practice group for the information underprivileged.

We have traveled to 5 countries along the Mekong River following imagination, curiosity, and themes out of standardized tours operated by traditional travel agents.

In the fear and loneliness we all experienced for the first time in our lives due to COVID-19, we were able to sympathize with the series of painful moments which were daily lives of the information-privileged, including the disabled.

If we can travel again, hope it will be together without the marginalized and left behind.

Let's make our Mekong, TOGETHER.



Mr. Suriyan Vichitlekarn

Executive Director Mekong Institute Boao Forum Asia Conference April 20, 2021

박재 아

메콩 연구소 수석자문

ROK Project LeaderSustainable and Smart Tourism
Development in the Mekong region



Sustainable and Resilient: The New Face of Mekong Tourism

Tourism is a driving force in the Mekong region.

In 2019, over 73.5 million people visited Cambodia, P.R. China, Lao PDR, Myanmar, Thailand, and Vietnam, bringing in a collective revenue of USD 85 billion. This surge has also engendered social gains, as reflected by each country's intensified efforts in preserving local culture and heritage; strengthening communities; providing better social services; commercializing culture and art; and revitalizing customs and art forms.

Impacts of COVID-19 on the industry beginning in 2020 have been grave and will inevitably change the face of the region's tourism in the years to come. As governments, business groups, and the private sector chart the course towards resilient recovery, it is incumbent upon us to collectively revive travelers' confidence; better understand new market trends; respond to drivers of demand; and commit to build more resilient and inclusive tourism sectors that harness innovation and digitalization, embrace local values and communities, and create opportunities for all.

With support from the Mekong-Republic of Korea Cooperation Fund, Mekong Institute (MI) is contributing to the cause. Under the "Sustainable and Smart Tourism Development in the Mekong Region" project, MI has been working with tourism partners from Mekong countries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help stakeholders thrive in this new landscape. In the shift from domestic to proximate travel, as well as the growing interest towards nature and adventure tourism, MI's capacity building initiatives and evidence-based responses are enhancing entrepreneurs' business models and online marketing strategies to shor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for when inbound travels resume.

In advocating how sustainable tourism creates economic value through smart technologies and tools, MI and its partners are also helping proponents of Mekong tourism heritage sites mainstream risk management practices and encourage investments all along the tourism value chain to provide income for local communities, enable unforgettable tourist experiences, and promote cultural exchange, while preserving natural assets.

To reinforce this approach, continued engagement and clear communications across government, private sector, civil society and other partners are vital. As such, this guidebook is one of a series of materials that underscore our committed contributions to build forward a stronger, more adaptive, and resilient tourism industry.

Written by Mekong nationals, the features showcase the rich history, culture, and people in Cambodia, Lao PDR, Myanmar, Thailand, and Vietnam. In spotlighting what awaits curious travelers, this guidebook broadens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the uniqueness and potentials of the Mekong region. More importantly, the pages herein seek to deepen our regional interconnectedness so we can jointly revitalize markets to support economies, create jobs, and drive development outcomes that place people and their communities first.

Much more work remains to secure the path towards sustainable recovery but in working together, the progress in realizing a resilient tourism marketplace that is better, stronger, and balanced for the benefit of our people and planet is within reach.

흔히 '동남아시아'라 뭉뚱그려 부르는 나라들 중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 이 다섯 나라를 따로 떼어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메콩 5개국'입니다.

영어로는 확대메콩유역(The Greater Mekong Subregion, GMS) 혹은 줄여서 'Greater Mekong'이라 부릅니다. 개인적으로 Great를 '확장'이라는 의미보다는 '위대한'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 다섯 나라는 고대 찬란했던 앙코르 문명을 잉태한 메콩강줄기를 따라 발원하여 그아말로 위대한, 다채롭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기 때문이지요.

메콩강은 아마존에 이어 생물 다양성 세계 2위, 담수 어업량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소중한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자, 광물, 임산물 등 막대한 천연자원과 개발 가능성을 품은 강입니다. 이 찬란한 자원으로 다섯 나라를 낳고 길렀다하여 '어머니의 강'으로 부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지역은 단연 동남아시아입니다. 2019년 통계를 보니 이 중 메콩 5개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아세안 10개국의 40%를 차지하는 672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하기도 지겨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여행이 멈추었고, 이 지역의 관광업 종사자들은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이 힘든 나날을 보내는 중입니다. 야속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행사, 항공사의 주가는 아멸차게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졌지만, 여행을 향한 그리움과 가치는 천정부지로 솟아올랐습니다.

여행전문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 사이트가 지난 1월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백신이 보급되면 가까운 여행지부터 여행이 다시 시작될 터이고, 중국, 홍콩, 일본처럼 아직도 정치적인 갈등이 있는 곳들보다는 다시 많은 사람들이 물가 착하고 거리가 가까운 동남아시아 지역을 찾게 될 전 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해외여행이 평범한 일상의 일부였던 호사스러운 시절은 당분간, 어쩌면 다시는 돌아오기 어려울 테니 앞으로는 많은 준비와 점검을 하고, 더 비싼 값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보다 많은 기회비용을 치러야 하는 여행을 어떻게 더 간절히, 제대로 만끽할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쓰레기 처리, 대체에너지 등 환경 관련 화두들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코로나 덕분에(?) 사람들이 환경보호, 문화 다양성 보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행에도 '지속 가능'이 유행어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속 가능한 여행'이란 책임 여행, 공정 여행을 포괄하는 여행으로 특정한 '방법'이라기 보다 여행자의 '가치관', '태도'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내가 가진 여행의 가치와 태도가 일치하는지, 여행을 준비하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선택지들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의향이 있는지 물음을 던지면 명료해집니다.

2015년 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인 '지속 가능 발전 목표(SDGs)'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소외되지 않는 공생 발전을 지향합니다. 지속 가능 여행은 이 철학이 바탕이 된 여행이죠.

이 책을 통해 저렴한 패키지여행으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무한의 매력을 지닌 메콩을 좀더 맛깔나고 배부르게 여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려고 합니다. 심콩심콩한 메콩 5개국의 사람 냄새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께요. 홈페이지, 소셜미디어에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으니 꼭 찾아주세요!



지도로 만나는 메콩

Map of Mekong Subregion (CLMVT)

[익현]

- 메콩 초보
- 메콩강에 관심이 많음
- 대형 관광여행에 익숙함
- 단체 패키지 여행을 많이 다녀봄
- 호기심 가득함
- 습득력이 뛰어남
- 궁금한 것은 못참는 성격
- 도전적

[lkHyun]

- Mekong beginner
- interested in the Mekong River
- familiar with large-scale tourism
- had a lot of group package tours
- full of curiosity
- fast learner
- can't stand being curious
- challenging









익현+강민이와 떠나는 메콩여행

Travel Mekong with us!



[강민]

- 메콩 전문가

- 친절함

- 분석적

- 익현의 조력자

- 메콩 현지인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함

- 설명해주기를 좋아함

-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있음



- Mekong expert

- love the Mekong River

- kind

- analytical

- Ikhyun's helper

- wants to be of help to the Mekong locals

- enjoy explaining

- interested in sustainability



- 메콩강을 사랑함

CAMBO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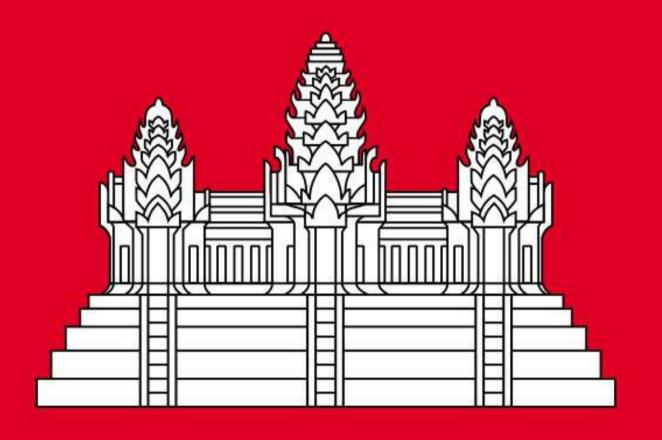
캄보디아

수도 : 프놈펜 **언어** : 크메르어

면적: 181,035km² (2017 FAO) 인구: 1,694만 6,446명 (2021 UN)

종교: 불교 95%

환율: 1\$ = 약 4.000리엘



CAMBODIA

Capital: Phnom Penh Language : Khmer language Area : 181,035km² (2017 FAO) Population : 16 million (2021 UN) Religion : Buddhism 95%

Exchange rate: 1\$ = 4,000 KHR

97%의 크메르족으로 구성된 캄보디아 왕국은 입헌군주제로 고온 다습한 기후를 가졌다. 크메르 공화국, 민주 캄푸치아, 캄푸치아 인민 공화국 등의 국명을 거쳐 현재 캄보디아 왕국으로 불리고 있다. 앙코르와트 유적으로 유명하며, 메콩강에서 많이 잡히는 리엘을 활용한 요리, 양념 등이 널리 쓰이고 있다. 캄보디아의 공식 종교는 상좌부 불교로, 국민의 95%가 믿고 있다. UN 회원국이며, 세계은행과 IMF의 특별 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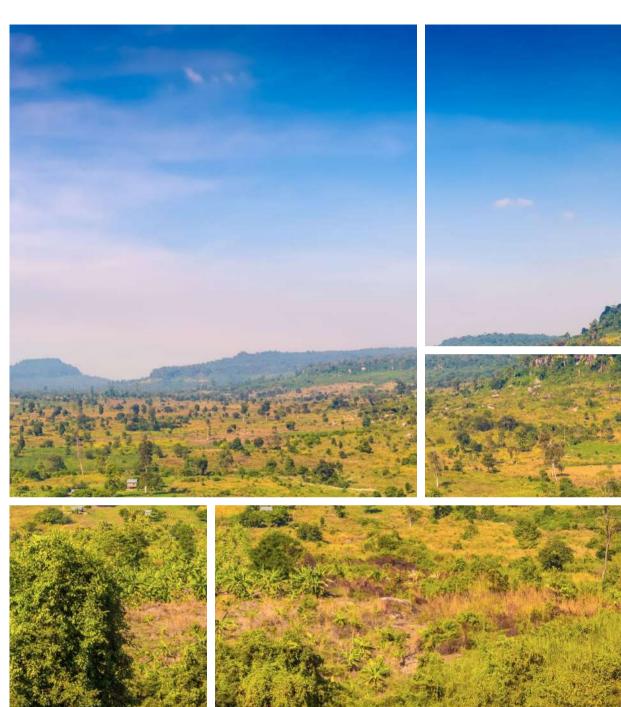
아시아개발은행(ADB)과 ASEAN 회원국이고, 2004년 WTO에 가입, 2005년에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가하였다. 현재 많은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이웃 나라들과 1973년 파리 협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 유럽 연합, 일본, 러시아 등과 수교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는 북한과 남한 모두와 수교 관계를 맺고 있다. The Kingdom of Cambodia, which consists of 97% Khmer people, has a hot, humid climate and is under a constitutional monarchy. It was called the Khmer Republic, Democratic Kampuch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Kampuchea, but is now called the Kingdom of Cambodia. It is famous for its Angkor Wat heritage, and cooking and seasoning using Riel caught in the Mekong River, are widely used. Cambodia's official religion is Theravada Buddhism, which is believed by 95% of the people. It is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and a special member of the World Bank and the IMF. It is a member of the Asian Development Bank (ADB) and ASEAN and joined the WTO in 2004 and participated in the East Asian Summit in 2005. It currently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many of its Southeast Asian neighbors and countries tha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1973 Paris Agreement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ustralia, Canada, China, the European Union, Japan, and Russia. Cambodia also has diplomatic ties with both North and South Korea.









캄폿 후추가 남다른 이유



: 강민! 캄보디아 후추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던데, 왜 그런거야?



유식한데? 캄보디아의 캄폿이라는 도시에서 '캄폿후추협회'가 직접 관리 감독을 하는 100% 유기농 후추가 생산되거든.



: 와.. 그럼 더 맛있을까?



어떤 요리사들은 캄폿 후추가 마치 와인과 같다고 이야기할 정도야. 그만큼 맛과 향의 질이 좋지.

유럽, 특히 프랑스 사람들이 애정해 마지않는 후추가 있다. 캄보디아 캄폿 지방에서 나는 후추다. 흔히 후추의 원산지를 인도의 남부 지역으로 보고 있지만, 명성으로만 따지자면 캄폿 후추가 더 우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명한 요리사 중에는 캄폿 후추를 고집하는 이들이 더 많을 정도 라니. 도대체 어떤 후추이길래 이토록 사랑을 받는 것일까.

캄폿 지역에서 후추를 생산한지는 꽤 오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명성을 얻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 지배할 무렵부터였다. 프랑 스의 요리사들이 그 맛과 향을 알아봤던 것이다. 이곳의 후추에 매료된 프 랑스인이 본국으로 후추를 보냈는데, 그 규모가 매년 8천 톤에 달했을 정 도였다고 한다. 그 명성은 현재로 이어졌고,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후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캄폿 후추는 특별하다. 100% 유기농으로 재배되기 때문이다. 아무나 '캄 폿 후추'라는 이름을 달고 판매, 수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지역생산자들 의 조합인 KPPA(Kampot Pepper Promotion Association, 캄폿후추협 회)에 가입해 그들의 관리 감독, 까다로운 품질 심사, 검증 등을 통과해야 비로소 '캄폿 후추'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화학 비료나 약품을 사용 했는지도 따지고 들 정도로 엄격한 것이 특징이다. 지리적 표시제에 의한 인증 마크, 유기농 제품이라는 표시, 무엇보다도 캄폿 산이라는 보증이 확 실한 제품을 따져 구매해야 하는 이유다.

어떤 요리사들은 캄폿 후추가 마치 와인과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적 당히 매운맛을 머금고 있으며, 그 맛을 오랫동안 입에서 즐길 수 있다는 이 유에서다. 캄폿 지역에서는 후추 농장을 둘러볼 수 있다. 몇몇 농장이 자신 들의 공간을 개방하고, 이 특별한 후추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 준비를 마 친 채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농장에서는 캄폿이 자랑하는 후추 재배 조건 을 살펴볼 수 있고, 캄폿 후추의 특징을 세세히 알아볼 수 있다. 다른 후추 와의 비교를 통해 캄폿 후추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 거대한 농장이 끝없이 펼쳐지는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장관이다.

캄폿 지역을 대표하는 몇몇 농장에서는 캄폿 후추를 넣어 만든 요리를 메 인으로 하는 레스토랑, 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요리 클래스가 열 리기도 한다. 캄폿 후추를 이용해 크메르의 전통 요리를 배워볼 수도 있다.



THE REASON WHY KAMPOT PEPPER **IS UNIQUE**



: KangMin! Cambodian pepper is famous all over the world. What's the reason?



: Well, in Kampot of Cambodia, 100% organic pepper is produced, which is directly supervised by the 'Kampot Pepper Association'.



: Wow.. Then is it more delicious than other pepper?



: Some chefs even say that Kampot Pepper is like wine. It means the quality of taste and flavor is really good.

There is a favorite pepper loved by Europeans, especially the French. It is pepper which produced in Cambodia's Kampot region. Although the southern part of India is commonly considered as the origin of pepper. Kampot pepper is more superior in terms of its reputation. There are numerous celebrity chefs stick to Kampot pepper. What might be the reason?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Kampot produced pepper. But it began to gain fame when France colonized Cambodia. French chefs recognized the value of the taste and flavor of Kampot pepper. They were fascinated by the pepper and sent 8,000 tons of pepper to their own country every year. Kampot pepper is still keeping its reputation and it became the world's best pepper by today.

Kampot pepper is unique because it is grown 100% organic. It is possible to sell or export under the name of 'Kampot Pepper' only after joining the KPPA (Kampot Pepper Promotion Association), a combination of local producers. Supervision, strict quality screening, and verification are needed to use the name 'Kampot Pepper'. It is rigorous enough to check whether chemical fertilizers were used. This is why you should care about certification marks by Geographical Identification, the certification mark of organic products, and most of all, the guarantee of the origin, Kampot.

Some chefs even comment that Kampot pepper is similar to wine because of its moderately spicy taste and long-lasting flavor.

You can visit pepper farms in Kampot. Several farmers open their farms and receive guests while getting ready to tell stories about this unique pepper. You can look around the cultivation conditions of the pepper and the characteristics of Kampot pepper in detail on the farm. It is also possible to experience the superiority of Kampot pepper by comparing it with other peppers. It is truly a spectacular sight only to see the huge endless farms.

Some farms representing Kampot operate own restaurants and cafes which serve special dishes using Kampot pepper as signature menus. There are also cooking classes. You can learn about the traditional cuisine of Khmer using Kampot pepper.





메콩강의 선물, 리엘

🎧 : 익현. 오늘 저녁은 리엘을 먹을까?

: 에이~ 날 너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리엘은 캄보디아의 화폐잖아

: 하하. 그 화폐 유래가 바로 '리엘'이라는 생선으로 물물교환을 하면서 생겨난 것이지.

: 대박! 먹어볼래.

캄보디아의 음식 문화를 이야기할 때, 강과 호수를 빼놓을 수 없다. 캄보디아 사람들의 주식은 쌀, 그리고 생선이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전 국민이 섭취하는 단백질, 그러니까 생선의 70%가 메콩강의 일부, 톤레사프(Tonle Sap) 호수에서 나온다. 리엘(Riel)은 생선의 이름이면서 캄보디아의 화폐 단위이기도 하다.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전통음식을 한 가지만 꼽자면 '프라혹(Prahok)'이 겠다. 프라혹은 민물고기를 염장해 건기 동안 두고 먹는 캄보디아식 젓 갈이다. 밥 위에 올려 먹기도, 국에 간을 맞추기도, 볶음 양념으로 사용하기도, 구이에 찍어 먹기도 한다. 프라혹의 냄새는 비린내와 고약한 썩은 냄새가 난다. 때문에 유럽인들 중에서는 프라혹을 캄보디아의 치즈라고 부르기도 한다.

크릉(Khreung)은 캄보디아 요리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양념이다. 돌절구에 라임, 생강, 레몬 잎, 마늘, 붉은 고추, 라이좀의 뿌리, 프라혹, 그 밖의 향신료와 조미료를 넣어 함께 빻는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마주 크릉수프(Maju Khreung Soup)'가 있다.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인 캄보디아식수프로 레몬그라스와 샤프란으로 풍미를 더욱 극대화한다. 튀긴 땅콩과현지에서 생산한 칠리 가루도 들어간다. 카레와 비슷한향이 특징이다.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나' 묻는다면 아마도 주 인공은 아목(Amok)일 것이다. 민물고기인 리읍(Rieb) 혹은 찌다으 (Chidaue)에 일종의 커리용 향신료와 신선한 코코넛 밀크를 넣어 만든 다. 부드러운 식감이 매력적이며 생선 가시를 전부 발라내고 생선살과 커리 양념을 섞어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기 때문에 언뜻 찌개의 느낌도 난다. 주로 쌀밥에 올려 곁들여 먹으며,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생선으로 만드는 피시 아목이지만,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놈반쪽(Nom Bahn Chok)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즐겨먹는 국수다. 프라혹과 크릉으로 국물을 낸 후 쌀국수를 말아 먹는다. 놈반쪽은 보통 국수용 그릇에 쌀국수를 얹은 후 그 위 신선한 각종 채소, 채썬 오이, 미나리, 수련 줄기, 줄기콩, 숙주, 바질, 민트 등을 잔뜩 깐다. 그 위 끄릉과 프라혹등 양념을 첨가해 만든 육수를 끼얹어 먹는다. 강렬한 양념의 맛, 부드러운 쌀국수의 촉감, 마지막은 민트 향이 개운하게 입을 비워내 준다. 기호에 따라서는 함께 나오는 작은 고추를 살짝 깨물어 마무리하면 더 깔끔하게 즐길 수 있다.

RIEL, A GIFT FROM THE MEKONG RIVER

ikhyun. Shall we have Riel for dinner tonight?

Eh, I'm not that fool! Riel is the currency of Cambodia.

🚳 : Haha. The name of currency originated from bartering with a fish called Riel.

: Awesome! I want to have Riel for our meal.

When it comes to Cambodian food culture, you can't say anything without rivers and lakes because Cambodian's staple food are rice and fish. Seventy percent of the protein (or fish) consumed by all Cambodians comes from Tonle Sap Lake, part of the Mekong River. Riel is the name of the fish and the currency unit of Cambodia.

To pick only one among Cambodia's representative traditional foods, it's 'Prahok'. Prahok is a Cambodian-styled salted seafood which is salted and eaten during the dry season. It can be served on rice, seasoned with soup, used as a stir-fried seasoning, or dipped by roasted food. Prahok smells fishy and rotten. This is why some Europeans call Prahok a Cambodian cheese.

Khreung is the basic marinade used in Cambodian cuisine. Grind limes, gingers, lemon leaves, garlics, red peppers, rhizome roots, Prahok with other spices, and seasonings in stone mortar.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foods is 'Maju Khreung Soup.' It is a Cambodian-styled soup which features sweet and sour taste, maximizing the flavor with lemongrass and saffron. It also includes fried peanuts and locally produced chili powder. It is characterized by a similar flavor to curry.

If you ask Cambodians about their favorite food, they will pick Amok. It is made of freshwater fish Rieb or Chidaue mixed with the spices for curry and fresh coconut milk. The soft texture is attractive and it tastes like a stew since it is steamed with curry seasonings after removing all fish bones. It is usually served with rice. Fish-based Amok is popular, but you can select various options such as pork, chicken, and beef.

Nom Bahn Chok is a favorite noodle for Cambodians. After making soup with Prahok and Kreung, put rice noodles into the soup. Nom Bahn Chok is usually topped with fresh vegetables, shredded cucumbers, parsley, stalks of water lilies, beanstalks, bean sprouts, basil, and mint. On top of it, people pour the meat broth made by adding Kreung and Prahok. Starting with the taste of strong seasoning, the texture of soft rice noodles and it is ended with mint scent refreshing the mouth. Depending on your preference, you can enjoy Nom Bahn Chok more cleanly by biting a small pepper that comes with it.





가성비 훌륭한 파라다이스, 코 똔사이

🎧 : 익현. 오늘은 섬으로 가보자. 토끼섬 어때?

🏈 : 오! 토끼섬? 토끼들이 사는 곳인가?

쥿 : 하하. 토끼의 형태를 닮았다고 하여 토끼섬인 '코 똔사이'섬이야.

🥟 : 좋아. 도시여행에 지쳐있을 때 힐링하러 가기 아주 좋다.

캄보디아에서 여유로운 휴가를 즐기고 싶다면 켑(Kep)이 좋겠다. 수도 프 놈펜에서 약 150km 떨어진 이곳은 타이만과 접하고 있는 해안 도시로, 캄 보디아 사람들에게는 대표적인 휴양지 중 하나다. 대체로 조용한 곳이기 도해서 특유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종종 찾는다.

시내에서만 시간을 보내도 좋을 정도로, 곳곳에서 괜찮은 리조트와 해변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언플러그드 휴양을 원한다면 근처에 있는 섬으로 가보는 것은 어떨까. 그리 멀지 않다. 배를 타고 30~40분만나가면 된다. 목적지는 흔히 토끼섬(Rabbit island)이라고 불리는 곳, 코 똔사이(Koh Tonsay)다.

토끼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간단하다. 크메르어로 '똔사이(Tonsay)'가 토끼를 뜻한다고. 섬의 형태가 토끼를 닮았기 때문이란다. 코 똔사이는 토끼섬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자그마한 섬이다. 켑에서 약 4km 정도 떨 어져 있는 섬으로, 휴식을 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공간이다. 아, 토끼가 있는 건 아니다. 코 똔사이는 여행 중, 한나절 정도를 잡고 다녀오기에 적당하다. 사실 시 간적으로 여유만 있다면 며칠을 묵어도 괜찮다. 250m 길이의 해변 말 고는 딱히 즐길 것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기에는 좋으니까. 낮잠을 자고, 독서를 하며, 칵테일 한 잔을 들고 천천히 마셔보 자. 보트 한 척을 빌려서 바다와 섬을 빙 둘러볼 수도 있다. 바로 앞바다 에서 잡아 올린 신선한 해산물을 즐기거나, 한밤중에 찾아오는 별천지 를 감상해보는 것은 어떨까.

해변을 따라 즐비하게 이어지는 펍이나 바에서 음료를 주문하면 바닷가에 있는 해먹 등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곳에 누워서 유유자적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겠다. 방갈로를 갖춘 게스트하우스나 작은 리조트도 있다. 며칠 묵고 싶은 이들을 위한 최고의 장소들이다. 화려하진 않지만,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파라다이스가 바로 여기에 있다.

A COST-EFFECTIVE PARADISE, KOK TONSAY

ikhyun. Let's go to the island today. How about 'Rabbit Island'?

Oh! Rabbit island? Is it where the rabbits live?

🕟 : Haha. Koh Tonsay is called Rabbit Island because it looks like a rabbit.

🌎 : Good. It's great to go to relax when we're tired of traveling around the city.

If you want to enjoy a relaxing vacation in Cambodia, Kep would be a good choice. Kep, about 150 kilometers far from the capital Phnom Penh and a coastal city bordering the Gulf of Thailand, is one of the most popular resorts for Cambodians. Since Kep is, by and large, a quiet place, people who want to enjoy its unique quiet atmosphere often visit this place.

You can find nice resorts and beaches everywhere, just enough to spend time within downtown. But if you want an unplugged vacation, it is recommended to visit a nearby island. It's not that far, it takes only 30 to 40 minutes by boat. Koh Tonsay is the destination, so-called 'Rabbit island'.

The reason why it is called 'Rabbit island' is simple. 'Tonsay' means rabbit in Khmer and the shape of the island resembles a rabbit. Koh Tonsay is a small island which fits the name 'Rabbit Island'. It's located 4 kilometers away from Kep and it's a place for everyone

who want relaxation. Unfortunately, you cannot see rabbits on the island

Koh Tonsay is suitable for a half-day trip. If you have some time to spare, it would be good to stay for a few days. Although there's not much to enjoy except for the 250m long beach, it's good to relax. You can take a nap, read a book, and drink a glass of cocktail leisurely. You can rent a boat and look around the sea and the island. You can enjoy the fresh seafood caught right off the coast and appreciate the beautiful scenery of stars at midnight.

If you order drinks from pubs or bars lined up all along the beach, you can use facilities such as hammocks on the beach for free. Lying down and spending some free time would be great. There are also guesthouses and small resorts with bungalows which are the best places for those who want to stay for a few days. Not fancy but inexpensive paradise is right here.





캄보디아를 품은 호수 톤레사프

📀 : 우와. 정말 큰 호수가 있네?

: 이 호수는 캄보디아 사람들의 식탁을 책임지지. 어마어마한 어획량을 자랑한다고.

: 설마 여기서 캄보디아의 국민 생선 리엘이 잡히는 건가?

) : 그렇지. 톤레사프 호수는 캄보디아 사람들의 집과 식탁을 책임지니 아주 중요한 곳이지.

톤레사프(Tonle Sap) 호수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담수호다. 인도 대륙과 아시아 대륙의 충돌로 발생한 지질학적 충격으로 일대가 침하하면서 형성 됐다. 실제로는 호수보다 바다처럼 느껴질 정도의 거대한 크기다. 캄보디 아국토 면적의 15%를 차지할 정도다. 우기에는 평소보다 더욱 커진다. 평 소 2,700㎢ 정도 약 제주도 크기의 면적을 유지하다가, 비가 많이 오는 우 기에는 최대 1만6,000㎢까지 확장된다.

호수는 역동적이지만 너그럽다. 톤레사프 호수의 사람들은 어업과 농업으로 생계를 잇는다. 캄보디아의 연간 어획량이 80~90만 톤으로 측정되는데, 이중 담수 어획량이 50만 톤 이상으로 추정될 정도, 어획량으로 보면세계 호수 중 3위 규모다. 무려 600종 이상의 담수어가 서식하고, 이들생 선들은 캄보디아인의 식탁에 오른다.

속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혼탁한 황톳빛 호수라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이는 토양에 섞인 석회질 때문이다. 톤레사프는 건기와 우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흙을 옮긴다. 그리고 일대에 쌓인 흙은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 연간 삼모작을 가능하게 한다. 곧, 황톳빛은 황금빛과 같은 의미다.

사람들은 톤레사프 호수 위에 집을 짓고 호수를 딛고 산다. 보통은 땅을 갖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 호수 위에 산다. 끄트머리까지 몰려 디딜 곳 없는 사람들이 물 위에 모였다. 수상가옥은 수량에 따라 옮겨진다. 땅에 지지대를 박고 사는 물가 주변의 집도 있지만, 배처럼 둥실 떠있는 집도 있다. 대나무를 엮어 뗏목을 만들고 그 위에 벽을 세우고 천장을 올려 만드는 집이다. 이런 경우, 오히려 땅에 닿아 부서지지 않게 하기 위해 건기가 되면 호수 안쪽으로 집을 옮겨간다. 살기 위해 땅에서 더 멀어져야하는 셈이다.

물 위에서도 사람들은 모여 산다. 크고 작게 약 170여 개가 넘는 수상 마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중 캄퐁 플럭(Kampong Phluk), 총크니어 (Chong Khneas) 등의 마을이 인지도가 높다. 있다. 캄퐁 플럭은 캄보디아의 색다른 모습을 발견하기에 좋은 마을이다. 호수와 육지의 중간을 닮은, 맹그로보 숲이 있기 때문이다. 육지가 아닌 호수 위에서는 맹그로보만이 뙤약볕을 내리쬐는 태양을 가려주는 유일한 식물이다. 톤레사프 호수 위에서 보트를타고 맹그로보 숲속을 흘러 다니는 일은 그래서 낯설고 이질적이다.

TONLE SAP LAKE THAT EMBRACES CAMBODIA

: Wow, what a huge lake!

This lake is the lifeline of Cambodians. It shows a huge catch of fish.

: Is this where the national fish of Cambodia, Riel is caught?

🔊 : Yes, Tonle Sap Lake is a very important place that takes care of food and health for Cambodians.

Tonle Sap Lake is the largest freshwater lake in East Asia. It was formed by the subsidence of the area when Indian and Asian continents collided. In fact, it is so large that it looks more like an ocean than a lake. It occupies 15 percent of Cambodian land area. It gets larger than usual during the rainy season. It usually maintains about 2,700km² area which is similar to the size of Jeju Island but expands to up to 16,000km² during the rainy season.

The lake is dynamic but generous. The people of Tonle Sap Lake make a living by fishing and farming. An annual catch of Cambodia is estimated at between 800,000 and 900,000 tons. Among these, the freshwater catch is estimated at more than 500,000 tons. It is the third-largest lake in the world in terms of catch. As many as 600 species of freshwater fish live in the lake and are served on the Cambodian tables.

It is misunderstood that it is a muddy lake, but it is due to the compounds of calcium in the soil. The lake moves the soil repeatedly during the dry and rainy seasons and the soil accumulated around the area makes soil fertile enabling farmers to crop 3 times a year. Thus, muddy means golden.

People build houses on the lake whether by their own will or not. Those who have no more place to stand gathered on the lake. The water houses are moved depending on the volume of water. Some houses drive supports into the ground near the waterside, or some houses float like boats. Bamboos are woven into a raft, walls are built on top of it and ceilings are placed. The houses are moved near to the lake during the dry season to avoid being damaged. In other words, they have to move farther from the ground to survive.

People live in a group even on the lake. It is estimated that there are more than 170 floating villages. Among them, villages such as Kampong Phluk and Chong Khneas are famous. It is recommended to visit Kampong Phluk for the unique images of Cambodia since there is a mangrove forest that resembles both lake and land. On the lake, mangroves are the only plants that cover the sun. Therefore, it feels very exotic and strange when riding a boat through the mangrove forest on Tonle Sap Lake.



 \sim 23

캄폿의 콜로니얼 럭셔리, 그 화려한 부활

THE FANTASTIC REVIVAL **OF KAMPOT'S COLONIAL LUXURY**



근데 저 산은 무슨 산이야? 어딜 가든 우리를 따라오는 것만 같아!



: 저 산은 보코산이야. 캄보디아는 대부분 평지이기 때문에





정상까지 도전해보자, 왕복 시간이 꽤 있어서 아침 일찍 가야겠는데?

좋아. 보코산 정상에는 호텔이 하나 있는데. 과거 프랑스 식민지 시절 프랑스 사람들이 휴가를 보내기 위한 장소로 만들었다고 해. 오랫동안 쓰이지 않아 낙후된 상태였지만, 최근에 리모델링하며 고급 호텔로 거듭났다고 하니 구경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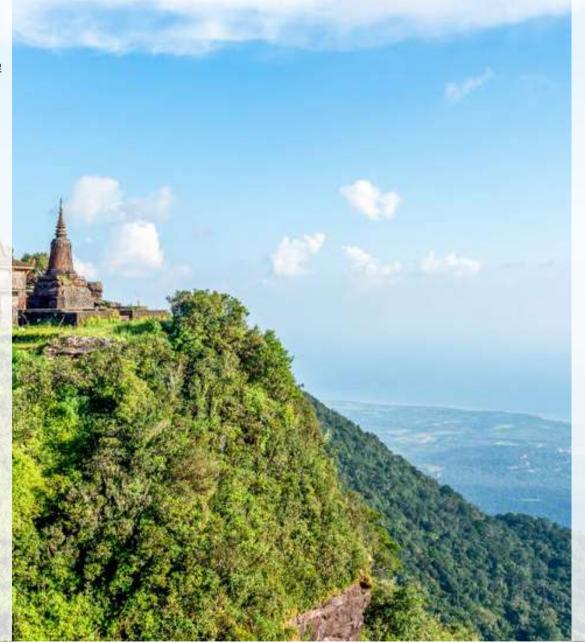
캄폿 주변에 우뚝 솟은 산, 인근 어디에서는 눈에 띄는 이곳은 보코산(Bokor Mountain)이다. 해발고도 1,097m의 보코산은 캄폿의 대표적인 관광지다. 국토의 대부분이 평지인 캄보디아에서 이 정도면 꽤 높은 편에 속하니, 사람들 의 발길이 이어질 만도 하다. 한때 야생 호랑이와 사자, 곰 등이 살았다는 이야 기가 있을 정도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곳이었지만, 약 100여 년 전에 정상부가 개발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보코산은 프랑스 식민지 시절, 인도차이나반도 남부를 통치하고 있었던 총독 등 관료들이 휴가 장소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1920년대 중반부터 숲의 나무 들을 벌목하고, 그 자리에 건물을 지었던 것. 아예 작은 도시 하나를 건설하려. 는 계획까지도 있었다.

당초 목표는 식민지 주민들을 위한(대개 프랑스인이었을 터) 산악 럭셔리 리 조트를 짓는 것이었다. 프랑스 스타일을 간직한 건축물을 지금도 확인할 수 있 다. 기록에 따르면, 이곳에 리조트를 건설하는 9개월간 900여 명의 인부가 목 숨을 잃었다고 한다. 그만큼 고된 건설 과정이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리조트는 끝내 완성할 수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야 말았 다. 인도차이나반도 또한 전쟁에 휩싸였고, 이곳에 주둔하던 프랑스군이 수세 에 밀리면서 버려졌다. 이후에도 이 지역을 점령했던 이들이 차례로 이곳을 차 지했으나, 결국 방치되었다. '유령 도시'라는 이름까지 붙기에 이르렀다. 프랑 스 식민지 시절에 프랑스인들이 사용했던 성당 건물이나 왕실의 별장이라는 건물 등이 훼손된 채 남아 있었으니, 그렇게 불릴 만도 했다.

최근 들어서 보코산 일대를 다시 휴양 시설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재개되었 다. 입구에서 정상까지 이어지는 26km의 도로를 아스팔트로 포장, 정비해 접 근성을 높였다. 방치되어 있었던 '보코 힐 스테이션(Bokor Hill Station)'도 옛 분위기를 고스란히 살려 호텔로 새롭게 단장했다. 르 보코 팰리스(Le Bokor Palace)라는 이름의 6성급 고급 호텔이다. 리모델링 전에는 특유의 음침한 분 위기로 인해 <알포인트> 등 여러 영화 촬영지이기도 했다니, 격세지감이다.





: By the way, what is that mountain? It feels like it's following us wherever we go!



: That mountain is Bokor Mountain. It looks towering because Cambodia is mostly flat land!



: Let's try to reach the top. Maybe we should go early in the morning considering the round trip time.



Good. There is a hotel on the top of Bocor Mountain, which was made by the French during the French colonial period. It has been underdeveloped since it has not been used for a long time, but it has recently been remodeled and reborn as a luxury hotel. So let's go!

Bokor Mountain rises near Kampot and it is seen from anywhere in the neighborhood. Bokor Mountain, 1,097 meters altitude above sea level is one of the most popular tourist spots in Kampot. Since most of the land in Cambodia is flat, it is not a surprise that people visit this high mountain unceasingly. The mountain was called a gift of nature since wild animals such as tigers, lions, and bears lived in the mountain. But sadly it lost its title when the top of the mountain was developed about 100 years ago.

During the French colonial period, officials such as Governor-General who ruled the southern part of Indochina started to exploit Bokor Mountain as a vacation spot. Since the mid-1920s, they had cut down trees in the forest and constructed buildings on the mountain. They even planned to build a

The original goal was to build a luxury mountain resort for colonists (generally French), so you can still see the French style buildings.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construction was so tough that more than 900 workers died in nine months while building the resort.

However, the construction could not be completed because of the outbreak of World War II. The Indochina Peninsula was also engulfed in war and abandoned when French troops were put on the defensive. Later, those who occupied this area took over the mountain by turns, but it was left unattended eventually. It even got the name of 'ghost city', since the cathedrals and royal villas used by the French during the French colonial period remained empty and damaged.

Recently, efforts have been made to recreate Bokor Mountain as a vacation area. The 26-kilometer road from the entrance to the top of the mountain was paved with asphalt to enhance accessibility. 'Bokor Hill Station', which had been left unattended for a long time was also renovated into a six-star luxury hotel named 'Le Bokor Palace' by taking advantage of its old mood. Before the remodeling, several movies including 'R-Point' were filmed at this place due to its unique dark mood.





앙코르 왕국의 유산, 앙코르 와트

(강민. 드디어 대망의 날이야. 앙코르와트를 오늘 제대로 탐방하겠어!

: 앙코르와트는 엄청 넓어서 전체를 다 보려면 최소 2일~3일은 필요할걸?

: 대박. 그렇게 큰 사원이라고? 벌써부터 설렌다!

: 여행객들을 위한 투어시스템이 있으니 함께 알아보고 관광해보자.

여행자들이 캄보디아를 여행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아마 앙코르 와트(Angkor Wat)를 둘러보기 위함이지 않을까. 12세기 초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앙 코르 와트는 국기에도 그려져 있을 정도로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유산이다. 앙 코르 왕국이 무너진 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잊혔던 이 엄청난 규모의 사원은 19세기가 되어서야 다시 세계에 알려졌다. 대체 어떤 곳이기에 당시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도 여행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일까.

앙코르 와트는 사라졌다. 정확히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혔다. 낡고, 부서 졌으며, 무너져 내리기도 했다. 종종 누군가가 와서 둘러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알린 것은 아니었다. 소소한 기록으로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16세기, 포르투갈의 수사 안토니아 다 막달레나(Antonio da Madalena)의 기록도 그 중 하나다. 그는 앙코르와트를 보고 "펜으로는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것들과는 전혀 다른 건축물"이라며, "탑이나 장식들, 그리고 모든 세련된 면모들은 천재적인 인간이 상상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다"고 칭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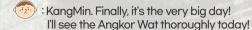
앙코르와트의 존재가 서방 세계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861년, 프랑스의 탐험가 앙리 무오(Henri Mouhot)에 의해서였다. 그는 표본 채집을 위해 밀림을 누비던 도중 이 엄청난 유적을 발견했다. 그 과정과 함께 앙코르 유적군에 관한 이야기를 여행기에 상세히 기록했다. 무오는 라오스 밀림을 탐사하던중 말라리아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 조수중 하나가 마오의 여행기를 정리해세상에 알린 것이다. 앙코르 와트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말이다.

앙코르 와트는 현재 석조 건축물의 형태만 남아 있는데, 사실 목조를 함께 사용한 형태의 사원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목조를 사용한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있었던 흔적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규모 또한 웅장하다.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1.5km에 이르고, 남북으로도 1.3km에 달한다. 토지 면적으로 봤을 때 세계에서 가장 큰 사원이다.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형태의 부지다.

앙코르 와트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은 앙코르 유적군을 한꺼번에 묶어서 둘러보는 것을 선호한다. 현지의 투어 시스템 역시 여행자들이 선호하는 방향에 따라나뉘어 있다. 우선, 당일 투어 프로그램은 크게 스몰 투어와 그랜드 투어로 나뉜다. 스몰 투어는 오전에 앙코르 톰과 타 프롬을 본 뒤, 오후에 앙코르 와트를 관람하는 데이 투어 형태로 진행한다. 그랜드 투어는 프레아 칸 사원, 닉뽀안, 따솜사원 등을 거쳐 동 메본 사원과 프레룹 사원을 둘러본다. 여기에 반티아이 스레이를 추가하면 해질 무렵 프레룹 사원에서 노을을 감상하는 것도 가능하다.







 Angkor Wat is so large that you'll need at least two to three days to see the whole temple.

: Wow. Is it that large? I'm already excited!

: There are some tour systems for tourists, so let's find out together.

Perhaps the first reason to travel to Cambodia is to look around Angkor Wat. Angkor Wat, estimated to have been built in the early 12th century, is Cambodia's representative heritage as it is painted on the national flag. After the downfall of the Angkor Kingdom, this huge temple had been completely forgotten before the 19th century. How could this temple get so much attention until now?

Angkor Wat disappeared. Precisely, it was forgotten in people's memories. It was worn down, broken, and collapsed. Sometimes people came to look around but it was not introduced to the world. It only remained as a record. Portuguese monk Antonio da Madalena's record in the 16th century was one of them. He saw Angkor Wat and praised it as follow; "a structure complete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rest of the world and it cannot be described with a pen.", "the towers, the decorations and all the sophisticated features are something only a genius can imagine".

The existence of Angkor Wat became known to the West in 1861 by French explorer Henri Mouhot. He discovered this huge remains while traveling through the jungle to collect specimens. Along with the process, he recorded the story of the Angkor remains in detail in his travel notes. Mouhot died of malaria while exploring the Laotian jungle. One of his assistants organized Mouhot's travel notes and introduced them to the world including the story of Angkor Wat.

Angkor Wat only remains as stone structures now but as a matter of fact, it is well known as a mixture of stone and wood structures. There are some evidence of wooden structures in places. The scale is also magnificent. It stretches 1.5 km from the east to the west and 1.3 km from the north to the south. It is the largest temple in the world by land area. The site is in the form of a rectangle.

Travelers who visit Angkor Wat prefer to look around Angkor Wat all at once. The local tour programs are varied according to the travelers' preferences. Firstly, the one-day tour program is divided into the small tour and the grand tour. If you choose the small tour, you'll visit Angkor Thom and Ta Prohm in the morning and Angkor Wat in the afternoon. Secondly, if you choose the grand tour, you'll visit Preah Khan Temple, Neak Pean Temple, Ta Som Temple, The East Mebon Temple, and Pre Rup Temple. And it's also possible to enjoy the sunset at Pre Rup Temple if you add Banteay Srei in your tour.



찬란했던 **소** 그메르 왕조의 조각

(: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앙코르와트는 어떻게 지어지게 됐을까?

: 과거 크메르 왕국이 어마어마한 전성기를 누리면서 위대한 사원들이 많이 지어졌어!

: 오! 그렇담 그 많은 사원들이 지어진 당시의 크메르 왕국은 어떻게 멸망하게 됐어?

: 좋은 자세야. 앙코르와트를 더 재밌게 보려면 유래를 알아야하지! 푸난 시대와 첸라 시대를 거쳐 크메르 왕국까지, 그 역사가 상당히 길거든. 종교적 문화까지 알게 된다면 훨씬 재밌을거야.

한눈에 보는 캄보디아의 역사

캄보디아의 역사는 그야말로 스펙터클하다. 어느 역사보다 찬란하게 빛났던 크메르 왕국부터 프랑스의 식민지를 거쳐 절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킬링필드까지. 하늘에서 땅으로, 다이내믹한 캄보디아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캄보디아 최초의 국가, 푸난시대

1세기경 지금의 캄보디아의 땅에, 최초의 국가인 푸난(Funan)이 세워진다. 6세기까지 존재했으며 메콩강 삼각주의 풍부한 수량과 비옥한 토양을 이용해 농경사회로 성장했다. 푸난은 지금의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의 프놈(Phnom)과 같은 뿌리를 가진 단어다. 단어는 '산'이라는 뜻으로 힌두 문화권에서 신성시하는 '메루산'을 뜻한다. 앙코르 와트의 3층 탑이 메루산을 형상회에 지은 것이며, 우주의 중심을 상징화한 것이다.

당시 푸난은 발달된 항해술을 바탕으로 인도 왕국과 중국을 잇는 역할을 했다. 덕분에 해상무역이 발전하게 되었고, 말레이 반도에 이르는 영역까지 넓은 영 토를 장학하게 되었다. 이때 당시부터 인도의 영향과 흰두 문명의 유입은 '나가' 가 등장하는 크메르의 건국 신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푸난은 대략 6세기 말부 터 쇠퇴하기 시작하는데 메콩 상류에 위치해있던 첸라(Chenla)가 점차 성장하 며 푸난을 압박하기 때문이다. 첸라는 앙코르 시대를 열게 한 주인공이다.

인도의 영향, 첸라시대

첸라(Chenla) 왕국은 지금의 라오스 남부와 베트남 남부, 캄보디아 전역에 자리했다. 원래는 푸난 왕국의 속국이었으나, 국력을 키워 푸난을 밀어내고 7세기경 캄보디아를 차지했다. 첸라 왕국 역시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것은 왕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 '바르만(Varman)'은 보호를 받는 자라는 뜻의 인도 산스크리트어인데 대부분의 첸라왕국의 왕의 이름 뒤에 칭호로 붙어있다.

기록에 따르면 자야바르만 1세가 사망 후 후계자가 없자 왕위 계승권을 둘러 싸고 분열됐다. 그렇게 첸라 왕국은 자바(JAVA)에 위치한 샤일렌드라 왕국의 지배를 받게 된다. 당시 자아바르만 2세는 샤일렌드라 왕국에 볼모로 잡혀가 성장기를 보내게 되었는데, 이후 고국으로 돌아와 앙코르 왕국 시대를 열게 된다.



A glorious period of The Khmer Dynasty

: How did Angkor Wat, which represents Cambodia, come to be built?

: In the past, the Khmer Empire had a tremendous heyday and many great temples were built!

: Oh! Then what made the Khmer Empire collapsed?

Good question. To see the Angkor Wat more enjoyable, you should know the origin! From the Funan and Chenla period to the Khmer Empire, the history is quite long. It would be much more interesting to learn about the religious culture additionally.

Cambodian History at a glance

Cambodian history is truly spectacular, From the Khmer Kingdom which was brighter than any other history, to the killing fields that should never be repeated through French colonies. Cambodia's dynamic history, from the heaven to earth is still going on.

Funan, the first country of Cambodia

Around the 1st century, the first state Funan was established on the land of what we now call Cambodia. It existed until the 6th century and grew into an agrarian society using abundant quantities and fertile soil from the Mekong Delta. Funan is a word of the same meaning with Phnom in Phnom Penh, the capital we now call Cambodia. It means "mountain", The mountain we're referring to here is Mount Meru which is sacred in Hindu culture. The three-story tower in Angkor Wat was built in the shape of Mount Meru, which is a symbol of the center of the universe.

At that time, based on advanced navigation techniques, Funan played a role as a messenger between the Kingdom of India and the China. For that reason, Funan developed a system of sea trade and dominated total control of wide area to the Malay Peninsula, From that time on, influence of India and the influx of Hindu civilization can also be found in the birth myth of Khmer, where the 'Naga' appears. Funan began to decline around late in the sixth century, due to Chenla which was located in the upper region of the Mekong River as it grows gradually and oppressed Funan. Chenla is the protagonist who ushering era of Angkor in.

The influence of India, the Chenla period

The Kingdom of Chenla was located in what is now Southern Laos, Southern Vietnam, and the whole area of Cambodia. Originally it was once a subordinate of the Kingdom Funan, but By the 7th century, Chenla developed national strength to repelled Funan and occupied Cambodia. The Chenla was also greatly influenced by India. This can be seen from the name of the King. 'Varman' is an Indian Sanskrit word which means "a protected person", which named after the King of most of the Kindom of Chenla. According to historic records, After the death of King Jayavarman, who had failure of heirs, Chenla was torn apart by the right of succession. Thus, the Kingdom of Chenla was controlled by the Shailendra dynasty located on Java. At that time, Jayavarman II was held hostage by Shailendra and spent period of growth. After he grew up, he returned to his homeland and began the Angkor Kingdom era.







앙코르 문명의 탄생, 크메르 왕국

명실상부, 지금의 캄보디아를 있게 만든 시대다. 앙코르 왕국의 시대는 크메르(Khmer) 왕국이라고 불린다. 바로 이때 앙코르 와트를 축조하는 절정기를 거치게 된다. 샤일렌드 왕국에서 불모로 잡혀 성장기를 보낸 자아바르만 2세는 힌두교의 사상을 기초로 스스로를 신왕이라 칭한다. 그 후 야소와르만 1세가 수도를 앙코르로 정했고 수리아와르만 2세가 왕국을 재통일하며 앙코르 왕조의 최전성기를 구축하게된다.

그는 국토를 크게 확장시키기 시작했으며 크메르 문명의 상징인 앙 코르와트를 건축하기 시작했다. 무려 300년이 넘게 건축은 계속되 었는데 그 기간 동안 예술 양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며 종교 의식 은 힌두교에서 점차 관세음보살 신앙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당시 대승불교를 국교로 삼게 되며 바이욘(Bayon) 사원 및 앙코르토움(Angkor Thom)을 추가로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앙코르왕국은 인도차이나반도 전역에 걸친 캄보디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제국이었다. 600년가량 지속된 앙코르왕국의 황금기는 지금의 태국인 아유타야 왕국의 침략으로 15세기에 막을 내리게 된다. 멸망후 앙코르와트는 밀림속 버려진 채 오래도록 잊혀진 상태로 남겨졌는데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됨으로써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불교순례지의 하나가 되었다.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역사, 킬링 필드

찬란했던 크메르 왕국의 시대가 끝나고 캄보디아의 역사는 쇠퇴기를 걷는다. 무려 400여 년간의 태국의 공격과 베트남의 내정 간섭으로 국력이 기울게 된다. 당시 프랑스는 베트남의 영토를 시작으로 라오스와 캄보디아까지 차지하려는 야욕을 드러냈고 결국 프랑스의 식민지로 한세기를 보내게 된다.

이후 1953년 11월9일, 시아누크왕은 캄보디아의 독립을 선언하게 된다. 그렇게 독립한 크메르 공화국은 혼란 속에서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때부터 크메르 루즈 점령기가 시작된다. 크메르 루즈는 '붉은 크메르'라는 뜻으로 당시 군인이 착용한 스카프의 색에서 파생 된 이름이다. 급진 좌익 무장단체의 수장, 폴 포트(Pol Pot)가 약 3년 간 캄보디아를 지배했다. 그는 외국과의 교류를 차단했으며 국제적 협력이나 교역도 불허했다.

국민들에게는 고향과 본거지를 떠나 지정된 지역으로 이주시켜 강제 노역을 명령했다. 당시 굶주림과 질병, 처형 등으로 사망한 사람수가 무려 200만 명에 이른다. 당시 인구의 1/4 정도가 사망한 것이다. 농업 국가로 만드는데 방해물로 여겨지는 지식인과 부호들은 안경을 썼다는 이유로, 혹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고문, 사형에 처했다. 당시 학살이 바로 킬링 필드(Killing Fields)다. 이 사건으로 캄보디아의 모습은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

The Khmer Empire, The birth of Angkor civilization

It is truly an era that made present-day Cambodia. The era of the Angkor Empire is called the Khmer Empire. This was the peak of the construction of Angkor Wat. Jayavarman II, who grew up in Shailendra, called himself a god based on Hinduism. After that, Yasovarman I designated Angkor as the capital of the country, and Suryavarman II reunified the kingdom to enjoy its Golden Age.

He started expanding the country and began constructing Angkor Wat, a symbol of the Khmer civilization. The construction had continued for more than 300 years and during that period, there were many changes in art and also religious ceremonies changed from Hinduism to Avalokitesvara gradually.

At that time, Mahayana Buddhism was established as a state religion, therefore they had started building more Bayon temples and Angkor thom either. Also, the Kingdom of the Ankor established the greatest empire in Cambodian history, sweep over the Indochina Peninsula. The heyday of the Angkor kingdom, which lasted for 600 years ended in the 15TH century by the Ayutthaya's invaded, what is now Thailand. After the fall of Angkor, Ankor WAT was left abandoned in the jungle and forgotten for a long time. Nowadays, it was almost well-preserved its original form, it became one of the Southeast Asia's most famous place of Buddhist pilgrimage.

The Killing Fields that should not be repeated

After the glorious era of the Khmer, Cambodian history was in decline. The decline of national power was caused by Thailand attacks lasted for 400 years and Vietnam's interference in domestic affairs. In those days, France has revealed its ambition to occupy Laos and Cambodia, starting with Vietnam's territory. Eventually, Cambodia spent a century as a colony of France.

On 9 November 1953, King Sihanouk declared the independence of Cambodia. Since gaining Independence, The Khmer Republic allowed civil wars from the turmoil and this was the beginning of Khmer Rouge occupation of Cambodia. The Khmer Rouge means "Red Khmer", it was derived from the color of scarfs worn by soldiers. Pol Pot was the head of a radical left-wing militant group, ruled Cambodia for about three years. He blocked any exchange with foreign nations and rejected international cooperation or trades.

The people were forced to leave their hometowns and work in designated areas. At that time, as many as 2 million people died from hunger, disease, and executions. It means about a quarter of the population died. Intellectuals and wealthy people who were considered to be obstacles to make an agricultural country were tortured and executed for wearing glasses or being able to speak foreign languages. This genocide was called the Killing Fields. This incident reversed the whole situation of the Cambodia.





신화 속 무희가 펼쳐내는 이야기

: 앙코르와트 벽면에는 춤추는 그림이 참 많은 것 같아.

(: 과거에 무희들이 많았기 때문이지.

:LI도춤좀추는데,한번볼래?

: 너의 막춤은 최고지. 하지만 무희들의 춤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춤이 아니야. 압사라 댄스라고 하는데, 오늘날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거든. 신화적인 요소들도 많이 담겨있으니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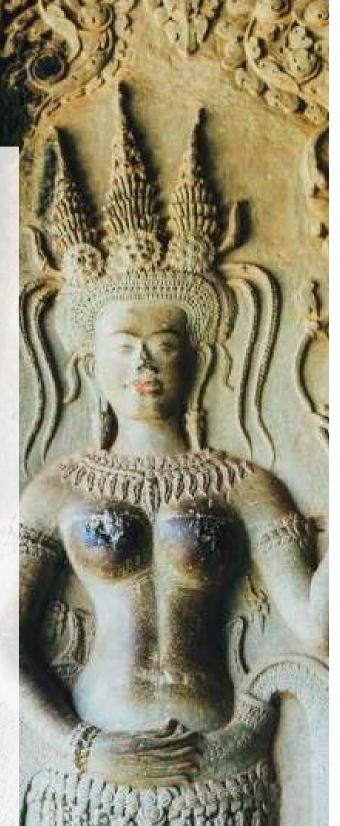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는 셀수 없이 많은 무희들의 흔적이 남아있다. 각기 다른 춤사위를 한 '압사라'의 부조가 유적지 곳곳에 새겨져 있는 것이다. 압사라는 캄보디아의 전통 무용으로만 치부하기엔 너무 많은 역사적 단초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압사라(Apsara)는 힌두 신화 속 여신의 이름으로, '물 위에서 태어났다'는 의미를 가졌다. 신이 불로장수를 위해 천 년 동안 우유바다를 휘저을 때 압사라가 태어났기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압사라 댄스는 15세기 크메르 왕국이 멸망하면서 한 차례 사양길을 걸었다. 오랜 기간 동안 역사 속에 잠들어 있으면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다가, 1940년 앙코르와트 사원 복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유적지 벽면에 새겨진 압사라 부조들이 관심을 받게 되자 복원된 것이다. 고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압사라 댄스는 현대의 것이다.

복원 이후의 길도 순탄치 않았다. 소용돌이쳤던 캄보디아 현대 역사와 맞물려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불과 몇십 년 전인 1970년대에는 아예 명 맥이 끊길뻔한 아찔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76년부터 1979년까지의 크메르 루주 점령기 때의 일이다. 당시 압사라 댄스 또한 탄압의 대상이 됐다. 수많은 압사라 댄스 지도자들이 끌려가 처형당했고, 이에 겨우 되살려 놓은 압사라 댄스의 명맥이 다시 끊길 정도에 이르렀다. 크메르 루주 집권 시기인 불과 3년 사이의 일이다. 다행스럽게도 가까스로 살아남은 압사라 댄스 지도자들이 크메르 루주 이후 다시금 압사라 교육을 시작하면서 지금은 활발하게 전수가 이뤄지고 있다.

전통적인 압사라 댄스 레퍼토리에는 네 가지 등장인물이 있다. 여자, 남자, 거인, 원숭이로 각자 특징을 형상화한 독특한 메이크업과 장신구를 걸친다. 원숭이는 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원숭이 영웅 하누만을 형상화한 한 것으로, 하누만과 압사라를 중심으로 힌두 신화속이야기를 풀어간다.

압사라는 힌두교 천지창조 신화에서 처음 등장한다. '물 위(Apsu)', '태어나다 (Rasa)'가 결합된 명칭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실제로 신화 속 첫 등장도 물과 관련되어 있다. 신들이 선과 악으로 나누어 싸우다 악에게 밀리게 된 선한 신들이 승리를 위해 불로장수의 약을 찾기 시작한다. 이 약은 천년 동안 '우유 바다 휘젓기'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고, 신들이 우유 바다 휘젓기를 하며 생긴 물보라 속에서 압사라들이 무수하게 탄생했다.



The story of dancing girls in the myth



I think there are so many pictures of dancing on the wall of Angkor Wat.



it's because there were many dancing girls in the past.



: I'm a bit of a dancer, too. Do you want to see me dancing?
: Your funky chicken dance is the best.
But dancing girls' dance is not that easy to talk about.

It's called Apsara Dance, and it has experienced so many ups and downs until today.

There are a lot of mythological elements, so let's find out together.

There are countless traces of dancing girls in Angkor Wat, Cambodia. The reliefs of 'Apsara' with different dance moves are engraved throughout the site. Apsara has too many historical motives and meanings to be defined limitedly as a Cambodian traditional dance. Apsara is the name of the Hindu Goddess, meaning 'born on water'. Apsara got this name since she was born when God stirred the sea of milk for a thousand years for a perennial youth and long life.

Apsara Dance once got into a decline after the fall of the Khmer Empire in the 15th century. After a long period of dormant in history and barely maintaining its reputation, it was restored as the restoration of Angkor Wat began in 1940 drawing attention to the Apsara reliefs carved on the walls. The Apsara dance we can enjoy nowadays is modern.

It was not smooth either after the restoration. It was directly influenced by the swirling history of Cambodia. Only a few decades ago, in the 1970s, it almost lost its reputation entirely. It was during the occupation of the Khmer Rouge from 1976 to 1979. At that time, Apsara Dance was also subject to oppression. Numerous Apsara Dance leaders were ousted and executed. As a result, the reputation of Apsara Dance barely kept itself in existence were in danger of extinction. All happened during three years since the Khmer Rouge took power. Fortunately, Apsara Dance leaders who managed to survive are now actively transferring the dance after the period of Khmer Rouge.

There are four characters in the traditional Apsara Dance repertoire. A woman, a man, a giant and a monkey, each wearing unique makeup and accessories that embody their characteristics. The monkey is a portrait of Hanuman, the monkey hero in Indian mythology. And it tells the story of Hindu mythology focused on Hanuman and Apsara.

Apsara first appears in Hindu Creation Myth. It is assumed to be a combination of 'Apsu (on the water)' and 'Rasa (be born)' and in fact, the first appearance in mythology is also related to water. The good gods who have been defeated by evil in a fight began to seek the medicine of perennial youth and long life for victory. This medicine could only be obtained by stirring the sea of milk for a thousand years and many Apsaras were born in the spray created by the Gods stirring the sea of milk.





캄폿강에서 맞이하는 노을, 그리고 반딧불이까지

📀 : 캄보디아의 숨은 매력을 찾을 수 있는 여행이 하고 싶어! 강민 도와줘.

: 그렇다면 반딧불을 보여줘야겠구나.

💮 : 반딧불은 어렸을 적에 동화책에서나 보았고 실제로는 한 번도 본적이 없어!

🏈 : 캄폿강 배 위에서 노을과 함께 반딧불이를 볼 수 있어. 잊지 못할 추억 그 자체지. 따라와!

캄폿 시내의 서쪽을 흐르는 캄폿강(Kampot River)은 노을을 감상하기에 좋은 곳이다. 서쪽으로 솟은 보코산 너머로 해가 저무는데, 사방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이 강변에 모여든다. 특별한 풍경은 아니면 어떠랴. 고즈넉한 캄폿 시내의 분위기와 어우러지는 그 순간은 정말이지 매력이 가득하다.

컴폿의 아름다운 노을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는 프로 그램이 있다. 2014년 마을 주민들이 컴폿의 매력을 널리 활용하기 위해 개발했다는 선셋 크루즈 투어다. 유람선을 타고 강을 두어 시 간쯤 둘러보는 이 투어 프로그램은 컴폿의 저녁을 맞이하기에는 최 고의 선택이다.

선셋 크루즈 투어 프로그램은 캄폿 피시 마켓 주변에 있는 여행사중 한 곳에서 예약할 수 있다. 선셋 크루즈 투어 프로그램을 내걸고 영업하고 있는 업체를 찾아 들어가면 된다. 숙소 리셉션에 예약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10여 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배의 크기는 조금씩 다르다. 배는 피시 마켓 인근에 정박하고 있다. 요금은약 5달러 수준이다.

선셋 크루즈 투어는 강의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갔다가 되돌아오는 경로로 진행한다. 배는 올드 프렌치 브릿지(Old French Bridge) 아래를 지나서 강의 상류로 항해한다. 가는 길에 노을을 감상하며

뱃놀이를 즐길 수 있다. 반환점 인근에서는 반딧불이 군락지를 지나기도 한단다. 현지 여행사에서 반딧불이 투어라고 부르기도 하는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반딧불이 관찰이 어려워졌다고는 하나,우기와 그 직후인 5월에서 10월 사이에는 그나마 만나볼 수 있는가능성이 높다. 한 선장의 말에 의하면, 마치 크리스마스트리를 보는것 같다고.

배는 업체마다 크기와 모양 등이 다양하다. 100명 이상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배도 있다. 좌식 테이블이 있어서 편안하게 앉거나 누 워서 자유로운 기분을 느껴보자. 더위는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해 가 저무는 시각인 5시경에 운항을 시작하므로 비교적 시원하게 이 용할 수 있으니까. 다만 모기는 조심할 것.

유람선은 주로 음악을 크게 틀고 운항하기 때문에 여유롭다기보다는 신나는 분위기에 가깝다. 선내 매점에서는 맥주 등 여러 음료와 간식을 판매하기도 한다. 배에서 맥주 한 잔을 즐기며 일행과 담소를 나누거나, 추억을 만들어도 좋겠다. 돌아오는 길에 마주하게 될 캠폿 시내의 야경도 꽤 매력적이다. 크루즈 업체에 따라 마지막 항차 운항이 끝난 후에도 자정까지 배에서 음식, 음료,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곳도 있다. 마지막 항차에 탑승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또하나의 혜택이다.

SUNSET AND FIREFLIES ON THE KAMPOT RIVER

: I want to travel to find Cambodia's hidden charms! Help me, KangMin.

Then I'll show you the fireflies.

🥎 : I've only read about fireflies in fairy tales, and have never seen them before!

②: You can see fireflies with the sunset on the boat of the Kampot River.
It'll be an unforgettable memory. Follow me!

The Kampot River which runs west of downtown Kampot is a great place to enjoy the sunset. The sun sets over the Bokor Mountain and many people gather by the river to see the golden color on all sides. Although it's not a special scene, the moment that blends in with the tranquil atmosphere of downtown Kampot is full of charm.

There is a program which lets you see the beautiful sunset of Kampot a little closer. It is a sunset cruise tour which was developed by villagers in 2014 to make the best use of the sunset of Kampot. The two-to-three hour-long tour on a cruise ship is the best choice for the evening in Kampot.

You can book this program at one of the travel agencies near the Kampot Fish Market. Just find a company that runs the Sunset Cruise Tour program. You can also request a reservation at the resort reception. About 10 companies are offering the program, but the size of the ships varies slightly. The ships are anchored near Fish Market and the fare is about 5 dollars.

The ship goes up and down the stream. The ship sails through under the Old French Bridge, heading the upstream river. You can experience the fun of the boat ride while enjoying the sunset on the way. Sometimes fireflies pass through the

village near the return point. It's the reason why local travel agencies call the sunset tour the 'Fireflies Tour'. Though fireflies are hardly seen these day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o see fireflies between May and October; rainy season and right after. According to one of the captains of the tour, it looks like watching a Christmas tree.

The size and shape of ships vary from company to company. There's a ship for more than 100 people and a ship that has sitting tables to sit or lie down with comfort.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he heat because the tour starts when the sun sets, around 5pm. You may feel cool but you should be careful of mosquitoes.

The cruise ship is more of an exciting atmosphere than a relaxing one because the music is usually loudly on. Various beverages such as beer and snacks are sold in the on-board snack bar. You can chat with your friends or make memories while enjoying a bottle of beer on the boat. The night view of downtown Kampot which you will see on your way back is also quite attractive. Some cruise companies allow people to enjoy food, beverages and music on their ships until midnight after the last tour is over. This is one of the benefits for those who boarded on the last ships.





씨엠립의 끝나지 않는 밤

: 이 밤에 다들 어디로 가는 걸까..?

(): 아마 펍 스트리트로 가는 중일 거야. 밤에 아주 화려한 곳이거든.

🧰 : 그런 곳이라면 놓<mark>칠</mark> 수 없지! 우리도 어서 <mark>따라</mark>가자.

: <mark>좋아. 분위기 좋은 바</mark>에서 <mark>맥주</mark> 한 잔씩 마시<mark>며</mark> 캄보디아의 밤공기를 느껴보자. 전통 크메르 음악을 라이브로 연주하기도 하니, 특별한 밤을 보낼 수 있을거야.

앙코르 왕국의 찬란한 유적을 마치 툼레이더가 된 것처럼 누비고 다녔다면, 이번에는 씨엠립(Siem Reap)의 밤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공간으로 탐험을 떠날 차례다. 목적지는 씨엠립 시내의 '8번가(Street 8)', '펍 스트리트(Pub Street)'다. 약 100m 남짓 이어지는 펍 스트리트는 이름 그대로 수많은 펍과 레스토랑, 길거리 음식, 바, 클럽 등이 모여 있는 거리다. 당신이 상상하는 거의 모든 즐길 거리가 이 공간에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으니 기대해도 좋다.

이 거리에 펍이 들어서기 시작한 <mark>것은 19</mark>90년대 후반이다. 2000년대에 접어들며 펍과 레스토랑, 바가 줄지어 생겨났고, 거리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공간들도 문을 열었다. 안젤리나 졸리가 영화 촬영 중 자주 찾았다는 '더 레드 피아노(The Red Piano)'도 그 즈음 영업을 시작했다. 2005년 이후 거리가 정비되며, 지금의 깨끗한 모습으로 자리를 잡았다. '펍 스트리트'라고 불린 것도 그때부터였다고 한다.

펍 스트리트의 역사를 시작하고 주도한 곳들은 물론, 새롭게 문을 열고 색다른 요리와 분위기로 여행자의 발길을 사로잡는 공간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전통 크메르 음악을 연주하는 라이브 공연을 진행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로컬 분위기를 한껏 즐기고 싶다면한 번쯤은 방문해보자.

동남아시아 특유의 분위기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노점상도 즐비하다. 튀긴 아이스크림, 과일 쉐이크, 튀긴 곤충이나 전갈 등등 달콤한 디저트, 기묘한 음식들도 곳곳에서 접할 수 있다. 기념품이나 수공예품 등을 취급하는 기념품점, 마사지 전문점 등도 구석구석 자리한다.

CAMBODIA

THE NEVER-ENDING NIGHT OF SIEM REAP

: Where are they going at this late at night..?

Maybe they're on their way to Pub Street. It's a very fancy place at night.

: We can't miss such a place! Let's catch up.

Alright. Let's have a bottle of beer at a nice bar and feel the night mood of Cambodia.

Some pubs perform live concerts of traditional Khmer music, so you can have a special night.

If you scouted the glorious heritage of the Angkor Kingdom as if you were a 'Tomb Raider', now it's time to go on an expedition to a space that decorates the night of Siem Reap. The destination is 'Street 8' and 'Pub Street' in downtown Siem Reap. Pub Street, like its name suggests, is a street which stretches about 100 meters where numerous pubs, restaurants, street food, bars and clubs are gathered. You can look forward to it because the street provides almost everything for you to enjoy.

Pubs started to appear in the late 1990s. In the 2000s, pubs, restaurants and bars got into lines, and places leading the mood of the streets also opened. 'The Red Piano' which Angelina Jolie often visited during filming also opened around that time. The streets have been renovated since 2005 into a clean space as we see today. The street is called 'Pub Street' since then.

It is easy to find not only the places that started and led the history of Pub Street but also new places that steal travelers' hearts with unique dishes and moods. Some pubs perform live concerts of traditional Khmer music. If you want to enjoy the local atmosphere, give it a try to visit Pub Street.

There are also a lot of street vendors that make the unique atmosphere of Southeast Asia. Fried ice cream, fruit shakes, fried insects or scorpions and other sweet desserts are everywhere. There are also souvenir shops selling souvenirs, handicrafts and massage shops in every corner.

라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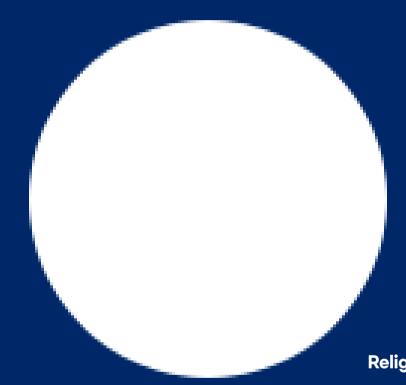
수도 : 비엔티안 **언어** : 라오스어

면적: 23.6만km² (2017 FAO)

인구: 737만 9,358명 (2021 UN)

종교: 불교 69%, 토속신앙 28%, 기독교 1.5%

환율: 1\$ = 약 8,700킵



LAOS

Capital: Vientiane

Language: Lao language

Area: 0.236 million km² (2017 FAO)

Population: 7.3 million (2021 UN)

Religion: Buddhism 69%, Folk beliefs 28%, Christian 1.5%

Exchange rate: 1\$ = 8,700 LAK

열대 몬순의 영향으로 고온 다습한 기후를 가졌다. 라오 인민민주공화국이 정식 명칭이며, 바다를 접하지 않은 내륙국이다. 일당제 공산주의 국가로 프랑스령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1946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승인받은 후 1950년 초에 들어서 실질적인 독립이 추진되었다. 찹쌀을 이용한 요리들이 많다. 북서쪽으로는 미얀마와 중국, 동쪽으로는 베트남, 남쪽으로는 캄보디아, 서쪽으로는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로서 동남아시아의 유일한 내륙국이다. 라오스의 역사는 14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존재하고 그 이후 세 개의 왕국으로 나뉜 란쌍 왕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93년, 비엔티안 왕국, 루앙프라방 왕국, 참파싹 왕국이 프랑스의 보호국이 되면서 연합되었다. 1945년 3월 일본군의 점령 이후 잠시 독립을 했으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다시 프랑스의 통치를 받다가, 1946년 프랑스가 루앙프라방 왕의 통치하에 통일된 라오스의 독립을 승인하였다. 1949년 헌법이 공포되고 프랑스 연방 안에서 제한된 자치국가로 존재하다가 It is a hot, humid climate due to the influence of the tropical monsoon.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is the official name, and it is an inland country that does not border the s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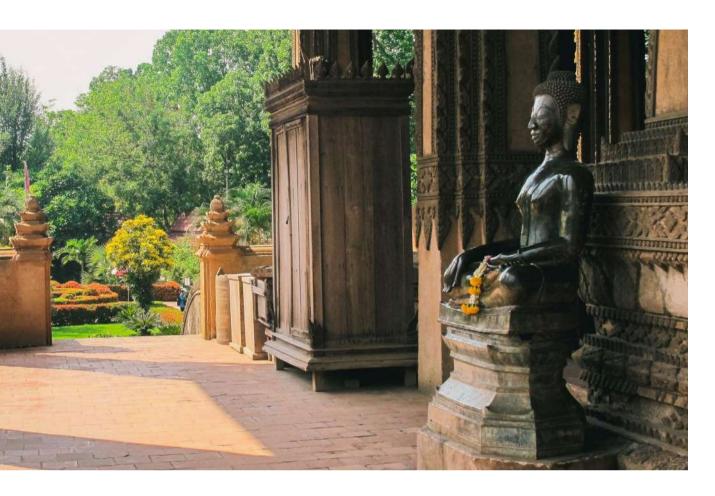
After spending a long time in French territory as a one-party communist state, it was approved by France in 1946 and substantial independence was promoted in early 1950. There are many dishes using sticky rice.

It is the only inland country in Southeast Asia that borders Myanmar and China to the northwest, Vietnam to the east, Cambodia to the south, and Thailand to the west.

The history of Laos extends from the 14th to 18th centuries that started from the kingdom of Lan Xang that was divided into three kingdoms afterward. In 1893, the Kingdom of Vientiane, the Kingdom of Luang Prabang, and the Kingdom of Champasak were united as they became part of the French protectorate. After the Japanese occupation in March 1945, Laos briefly gained independence but was again ruled by France at the end of World War II, and in 1946 France approved the independence of Laos under King Luang Prabang.

After the Constitution was promulgated in 1949, Laos remained a restricted autonomous state within the French Fede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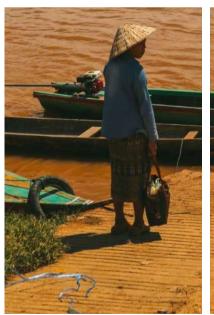
and from the beginning of 1950, Laos promoted substantial independence through the First Indochina War.















/11

찹쌀의 자손, 라오스

: 강민! 라오스는 대표적인 음식이 뭐야?

🕟 : 라오스는 주식이 찹쌀! '찹쌀의 자손'이라고 부르거든.

: 오.. 국수를 자주 접하다보니 밥이 조금 생각났거든. 잘 됐다!

: 따라와.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지.

라오스 사람들의 주식은 찹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쌀국수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식사에는 젓가락이 아닌, 숟가락과 포크만을 이용한다. 라오스인들 은 라오스 문화 공동체의 끈끈함과 찹쌀을 연관 지어 자신들을 '찹쌀의 자손'이라 부르곤 한다.

라오스는 인도차이나반도 국가 중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민물고기를 즐겨 먹는다. 라오스의 음식에 기본이 되는 양념, '빠덱 (Pa dek)' 역시 민물고기를 소금에 오랫동안 절여 발효시켜 만든 생선젓갈이다. 빠덱은 갓 잡은 민물고기를 손질해 서늘한 곳에 보관했다가 소금을 치고 쌀겨와 함께 단지에서 숙성시킨다. 빠덱을 정제해 만든 피시소스는 '남빠(Nam pa)'라고 한다. 찌개, 볶음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땀맏홍(Tam mak hong)은 태국의 쏨땀(Som Tam)과 비슷한 파파야 샐러드다. 아직 설익은 그린 파파야를 생선 젓갈인 빠덱과 고춧가루, 라임, 땅콩 그리고 갖가지 향신료를 절구에 넣고 버무려 샐러드로 만든다. 쏨땀은 땅콩과 토마토를 넣어 매운맛과 단맛을 동시에 내는데 반해, 땀막홍은 피시소스의 맛이 강해 맵고 신맛이 강한 편이다. 그린 파파야 대신 오이, 가지를 넣기도 한다. 생면인 '카우뿐(kawpoon)'과 함께 버무려 내기도 한다.

얌(Yam)은 시큼하고 매콤한 라오스식 샐러드다. 보통 파파야, 고수, 양파, 당근 등 신선한 야채를 피시소스, 라임, 고추 등을 버무려 만든다. 시큼하고 매운맛이 감돌기 때문에 채소의 신선한 맛을 한껏 느낄 수 있으며 소고 기를 넣은 '얌 씬응우아', 오징어를 넣은 '얌 빠묵', 해산물을 넣은 '얌 탈레' 등 다양한 토핑을 추가해 즐길 수 있다. 시큼한 맛이 나는 라오스식 소시지를 넣은 '얌 여'는 씁쓸한 맛의 라오비어 다크와 궁합이 아주 좋다.



LAOS, THE DESCENDANTS OF GLUTINOUS RICE



: KangMin! What is the staple food in Laos?



: The main dish of Laos is glutinous rice! Laotians are called the 'son of glutinous rice'.



: Oh.. I wanted to have rice because we've had noodles a lot. That's nice!



Follow me. I'll show you how to enjoy our meal.

Laotians' staple food is glutinous rice. Therefore, they only use spoons and forks for almost every meal except rice noodles. The Laotians often call themselves 'descendants of glutinous rice' in connection with the strong relationships of the Laotian cultural community and glutinous rice.

Laos is the only country in Indochina Peninsula without an ocean. Therefore, they enjoy having freshwater fish. 'Pa dek', a basic seasoning for Laotian food is also a salted fish sauce made by fermenting freshwater fish with salt for a long time. To make Pa dek, they clean freshwater fish and store them in a cool place, then put salt into the pot and ferment them with rice bran. Rice bran makes the salted fish smell better and smoother. Fish sauce made by refining Pa dek is called 'Nam pa' and it is widely used for stew, stir-fried food, etc.

Tam mak hong is a papaya salad similar to 'Som Tam' in Thailand. To make Tam mak hong, the unripe green papaya is mixed with Pa dek, red pepper powder, lime, peanuts and various spices. Som Tam tastes spicy and sweet by adding peanuts and tomatoes, while Tam mak hong tastes spicy and sour due to the strong taste of the fish sauce. Instead of green papaya, they sometimes add cucumbers and eggplants. It is also mixed with raw noodles, 'kawpoon'.

Yam is a sour and spicy Laotian salad. Usually, fresh vegetables such as papayas, coriander, onions, and carrots are mixed with fish sauce, lime and red pepper. Because of its sour and spicy taste, it is possible to fully enjoy the fresh taste of the vegetables. Also, you can add various toppings such as 'Yam Sin Ngua' with beef, 'Yam Pamuk' with squid, 'Yam Thale with seafood, etc. Yam Yeo, which is added with sour taste of Laotian-styled sausage is well-matched with the bitter taste of Beerlao Dark.





: 난 라오스에 오면 블루 라군을 꼭 가보고 싶었어.

🌕 : 방비엥 여행 중 빼놓을 수 없지. 몇 번째 블루 라군을 가볼까?

: 블루 라군이 여러 개야? 나는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걸!?

: 블루 리군 1부터 3까지 있어. 1이 가장 대중적이며 2는 한적하고 3은 즐길거리가 가장 많아. 자 그럼 한 곳씩 알아보도록 할까?

방비엥(Bang Vieng) 여행 중 빼놓을 수 없는 그곳, 블루 라군(Blue Lagoon) 이다. 라오스에서 일반적으로 블루 라군은 아쿠아마린 빛깔의 천연 수영장을 뜻한다. 석회질의 성분이 물에 녹아들어서 영롱한 빛깔로 물들어 있는 것. 방비엥의 블루라군은 바로 이러한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방비엥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은 대개 가장 접근성이 좋은 '블루라군 1'로 향하지만, 주변에 비슷한 블루라군이 몇개더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방비엥에서 가장 잘 알려진 핫스폿이 블루 라군 1이다. 방비엥 시내에서 이 곳까지의 거리도 다른 블루 라군에 비해 가까운 편이라, 당일치기로 방문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큼지막한 라군이 있다. 중앙부 수심은 최대 5m에 이르니, 구명조끼를 입고 수영하는 것을 권한다. 라군 위로는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는 집라인 코스가 있다. 근처에는 물이 흘러나오는 탐푸 캄 동굴도 있으니 함께 둘러보는 것도 좋다. 접근성이 좋아서 가장 사람이 많다. 입장료는 1인당 1만 깝.

블루 라군 2는 블루 라군 1에서 남서쪽으로 약 7km 떨어진 곳에 있다. 블루라군 1에 있는 것보다는 규모가 작은 집라인, 그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변에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선탠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사람이 적어서 한적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입장료는 1인당 1만 낍.

블루 라군 3은 방비엥 시내에서 약 17km 떨어진 곳에서 찾을 수 있다. 가장 멀리 있는 만큼 이동 시간이 길다. 비포장도로를 따라 꽤 오랫동안 달려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여러 대의 그네, 집라인, 대나무 뗏목까지도 갖추고 있는 블루 라군 3은 사실상 가장 재미있게 즐길 거리가 많은 곳이다. 블루 라군 1만큼 방문객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편은 아니다. 꽤 넓은 편이다. 바로 옆에서 운영 중인 작은 매점에서 간식과 맥주 등을 판매하기도 한다. 입장료는 1인당 1만 낍.

준비물: 생수, 수영복 및 갈아입을 옷, 수건, 선크림, 다리 통행료, 블루 라군 입장료, 식음료를 구매할 현금, 방수 가능한 카메라, 휴지(화장실에 휴지가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음)



🔊 : We can't miss out Blue Lagoon on the trip to Vang Vieng. Which Blue Lagoon do you want to go to?

🦱 : Are there many Blue Lagoons? I thought that Blue Lagoon is one and only!

There are three Blue Lagoons. Blue Lagoon 1 is the most popular, 2 is the quietest, and 3 has many things to enjoy. Let's find out one place at a time.

The Blue Lagoon is a must-visit place during a trip to Vang Vieng. In Laos, the Blue Lagoon generally refers to a natural pool of aquamarine colors. Lime-based components are melt and the water turn into bright colors. The Blue Lagoon of Vang Vieng is a place where you can enjoy swimming in these wonderful natural environments. Travelers who visit Vang Vieng usually head to the most accessible 'Blue Lagoon 1', but few of them know that there are several more Blue Lagoons around.

The most well-known hotspot in Vang Vieng is Blue Lagoon 1. Since the distance from downtown Vang Vieng to Blue Lagoon 1 is closer than other Blue Lagoons, large number of one-day travelers visit Blue Lagoon 1. There is a large lagoon and the depth of the central part is up to 5 meters, it would be better for you to swim in a life jacket. Above the lagoon, you can enjoy zip-line courses after booking. Tham Phu Kham Cave is located nearby where water flows, try to look around together. Due to its good accessibility, there are more people than in any other place. The admission fee is 10,000 kips per person.

Blue Lagoon 2 is located about 7 km southwest of Blue Lagoon 1. You can enjoy Zip-lines and swings which are smaller than those of Blue Lagoon 1 and there is an advantage of enjoying tanning since there are no high mountains around. Relatively small number of people visit Blue Lagoon 2, so you can have fun in quiet conditions. The admission fee is 10,000 kips per person.

Blue Lagoon 3 is located about 17 kilometers away from downtown Vang Vieng. As it's farthest from the city, keep in mind that you have to run along the unpaved road for quite a long time. Blue Lagoon 3 is the most enjoyable place since there are several swings, zip-line, and bamboo rafts ready for travelers. There are not as many visitors as Blue Lagoon 1, but quite many people visit there. It's quite large and several small stores sell snacks and beer. The admission fee is 10,000 kips per person.

Requisites: Bottled water, swimming suit, a change of clothes, towels, sunblock, a toll for bridge, admission fee for the Blue Lagoon, cash to purchase food/beverage, waterproof cameras and toilet paper (it often lacks)





(국가야. 맞지? : 라오스는 바다가 없는 완전한 내륙 국가야. 맞지?

🕠 : 맞아. 하지만 메콩강 덕분에 4,000개의 섬이 생겨났지.

(3,000개? 말도 안 돼. 장난하는 거지?

) : 사실이야. '시판돈'이라는 이름 자체가 '4,000개의 섬'이라는 뜻인걸. 이곳에는 프랑스 식민지 시절의 흔적도 남아있고. 이라와디 돌고래가 서식하고 있으니 살펴보자.

메콩강은 길쭉한 모양의 라오스 국토를 따라 흐른다. 그리고 라오스와 캄보디아 국경이 닿는 곳에서 주변 강물과 합류하며 물줄기가 거대해지는데, 이곳을 시판돈(Si Phan Don)이라고 부른다. 시판돈은 4,000개의 섬이라는 뜻이다. 시판돈의 섬은 시즌에 따라 그 수가 다르다. 수량이 많아지는 우기에는섬의 수가 줄었다가, 수량이 적어지는 건기에는 강이 마르면서 최대 4,000개의 섬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크기 또한 각양각색인데,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건 것이 있는가 하면, 발 한짝 디딜 정도의 모래톱 같은 섬도 있다.

시판돈 지역의 마을들은 돈콩(Don Khong), 돈콘(Don Khon), 돈댓(Don Det) 등이 대표적이다. 돈이 섬을 뜻하는 말이니 곧 콩섬, 콘섬, 댓섬이 되겠다. 이 중 가장 큰 섬은 돈콩이다. 남북으로 최대 18km, 최대 폭은 8km에 달하는 규모다. 육지와 연결되는 다리도 개통되면서 접근성이 매우 높아졌다. 돈콩의 동쪽 마을인 므앙콩은 시판돈의 지역 거점으로 여겨진다.

돈콘에는 프랑스 식민지 시절의 흔적이 남아있다. 현재는 돈댓보다 개발이더딘 지역이지만, 식민지 시절에는 오히려 돈콘이 프랑스의 메콩강 개발 거점으로 사용됐다. 프랑스식으로 지어진 주요 건물들이 한적한 시골 풍경에이질적으로 얹어져 있는 느낌을 준다. 돈댓과 돈콘을 연결하는 콘크리트 다리도 있는데, 프렌치 브릿지라고 불린다. 이 또한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졌다.

시판돈에 특별함을 더하는 것은 이라와디 돌고래(Irrawaddy dolphin)다. 라오스 여행자들이 시판돈을 꼭 일정에 넣는 이유도 이 돌고래 때문이다. 이라와디 돌고래는 민물에 사는 돌고래로, 둥근 머리와 웃는 듯한 입꼬리를 가지고 있다. 웃는 돌고래라는 별명도 이런 생김 덕분에 얻었다. 사실 이라와디 돌고래는 메콩강 전역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무분별한 포획과 인도차이나 지역에서 발생한 전쟁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했다. 베트남전쟁 당시, 메콩강을 통한 군수품 수송을 방해하기 위해 미국군이 강에 집중적으로 폭탄을투하하기도 했다고. 그 결과 1900년대 초반 수천 마리에 육박했던 숫자가급감한 것이다.

👣 : Laos is a completely inland country with no sea. Right?

🕠 : Yes, but the Mekong River created 4,000 islands.

3: 4,000? No way. Are you kidding me?

: It's true. The name 'Si Phan Don' means 4,000 islands. There are traces of the French colonial period, and the Irrawaddy dolphins live here, so let's take a look.

The Mekong River flows along with the elongated land of Laos. And the water stream becomes large as it joins the surrounding rivers near the border between Laos and Cambodia which is called Si Phan Don. 'Si Phan Don' means 4,000 islands. The number of islands in Si Phan Don varies from season to season. The number of islands decreases in the rainy season and increases in the dry season when you can see up to 4,000 islands. The sizes of the islands vary. Some islands are large enough for people to live and some islands are as small as sandbanks that only can be stepped on.

Don Khong, Don Khon, and Don Det are representative villages in Si Phan Don. Since 'Don' means 'an island', we now understand the names; Khong island, Khon island, and Det island. The largest island is Don Khong that reaches up to 18 kilometers in length and up to 8 kilometers in width. With the opening of a bridge that connects to the land, accessibility has also increased. Muang Khong, the eastern village of Don Khong is considered as a regional base of Si Phan Don.

There are traces of the French colonial period in Don Khon. It's slower than Don Det in development currently, but it was the base for the development of the Mekong River in the French colonial period. Main buildings built in French style give a foreign impression to the quiet rural landscape. There is also a concrete bridge that connects Don Det and Don Khon. It's the French Bridge, also built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 Irrawaddy dolphins make Si Phan Don special. The reason why travelers in Laos add Si Phan Don to their schedules is these dolphins. The Irrawaddy dolphin is a freshwater dolphin with a round head and a smiling mouth. These characteristics give the nickname 'Smiling Dolphin' to the Irrawaddy dolphin. In fact, Irrawaddy dolphins were easily found throughout the Mekong River. However, due to indiscriminate capture and war in the Indochina region, the population decreased rapidly. During the Vietnam War, U.S. troops intensively dropped bombs on the river to disrupt the transport of military supplies through the Mekong River. As a result, the number of dolphins dropped sharply from thousands in the early 1900s to about 100 nowadays.



동굴 속에서 펼쳐지는 부처의 세상



: 우리 루앙프라방에서 엄청 멀리 온 것 같은데, 저기 저 동굴은 뭐야?



: 먼 길 오느라 수고했어. 이곳은 '빡우'동굴이야. 왜 사람들이 이곳에 모일까?



: 음.. 날씨가 더워서 동굴에 오는거 아닐까? 시원하니<mark>까!</mark>

: 좋은 접근이야. 이 곳은 4천여 좌의 불상이 한데 모셔진 신성한 곳이야. 따라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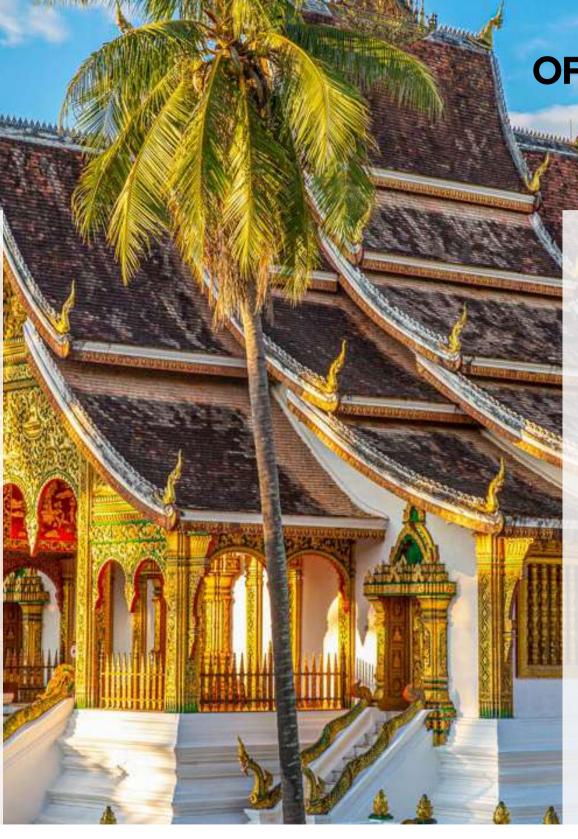
매년 새해를 맞이하면, 루앙프라방(Luang Prabang)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있다. 루앙프라방 시내에서 그리 가깝지도 않을뿐더러, 심지어 배를 타고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메콩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동 시간만 해도 약 2시간 정도. 루앙프라방 사람들은 왜 이렇게 먼 곳까지 다녀오는 걸까.

루앙프라방에서 메콩강을 따라 상류 지역으로 올라가면 화강암으로 된 절벽 지대를 만나게 된다. 이 절벽 지대에는 두 개의 동굴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루 앙프라방 사람들이 찾는 목적지다. 루앙프라방에서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빡우동굴(Pak Ou Caves)은 4천여 기의 불상이 한데 모셔진 사원 혹은 동굴로 유명하다.

동굴은 총 2개소다. 위쪽에 있는 것이 탐폼 동굴(Tham Phom), 아래쪽에 있는 것이 탐팅 동굴(Tham Ting)이다. 16세기 세타티랏(Setthathirat) 왕이 발견 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사람들이 이곳을 신성하게 여겨온 것이 오늘날의 모습을 하게 된 이유란다.

현재 탐폼 동굴에는 1,500여 기의 불상이, 탐팅 동굴에는 2,500여 기의 불상이 안치되어 있다. 전부 일반인들이 하나씩 가져다 둔 금동 불상이다. 무려 300년 이상의 역사를 품은 불상도 있지만, 18~19세기에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그 역사도 가벼이 넘길 만한 수준이 아닌 것은 당연하고.

특히 라오스의 새해맞이 명절인 피마이 라오(Pi Mai Lao) 기간에 많은 인파가 몰린다. 이 기간에 불상을 물에 씻기고, 새해 소원을 비는 의식을 하기 위함이다. 물론 평상시에도 이곳을 찾는 여행자, 현지인이 많다. 내부가 상당히 어두 우므로, 방문할 때 손전등을 들고 들어가기를 권한다. 배를 타고 오가는 기간이 꽤 지루하겠지만, 주변 풍경이 무척 아름답다. 유유자적 뱃놀이를 다녀오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겠다.







: I think we've come a long way from Luang Prabang. What's that cave over there?



: You did a great effort to come all the way. This is the Pak Ou Cave. Why do people gather here?



: Well, because it's hot? It's cool in here!



: That's a good approach. This is a sacred place where 4,000 Buddhist statues are kept together. Follow me!

There is a place where the people of Luang Prabang visit every New Year.

They visit that place even though it's far from downtown and they have to take a boat to get there. It takes about two hours to go up-stream the Mekong River. Why do they go so far?

When you go up-stream the Mekong River, there's a granite cliff area. There are two caves in this area, and they're the destinations of the people of Luang Prabang. Located 25 kilometers from Luang Prabang, Pak Ou Cave is famous for a temple or cave with 4,000 statues of the Budd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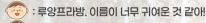
There are two caves in total. The upper one is Tham Phom, and the lower one is Tham Ting. Since the discovery of the caves by King Setthathirat in the 16th century, people have considered them sacred, and this is the reason why they have become the present shape.

Currently, there are about 1,500 statues of the Buddha in Tham Phom and 2,500 in Tham Ting. All of them are gilt-bronze statues brought one by one by the public. While there are statues with more than 300 years of history, most of them were made in the 18~19th century. Nevertheless, they are well worth enough despite of relatively short history.

In particular, lots of people crowded the caves during the New Year's holiday of Laos, Pi Mai Lao to wash the statues and make New Year's wishes during the holiday. Usually, many travelers and locals visit the caves on ordinary days. Since it is quite dark inside, you'd better carry a flashlight. The travel time on the ship will be quite boring, but the surrounding landscape is very beautiful. It'll be good to think of it as relaxing boating.



황금빛 도시, 황금빛 사원



🏂 : 어허. 루앙프라방은 '큰 황금 불상'이라는 뜻이야.

: 정말? 불교국가답구나. 유래를 알게 되니 더 궁금해지는데?

: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천지차이지! 황금빛 도시를 감상해볼까?

루앙프라방에 여러 사원이 있지만, 왓 씨엥통(Wat Xieng Thong) 사원만큼은 꼭 한 번쯤은 가보기를 권한다. 루앙프라방을 대표하는 이 사원은 14세기에 창건한 이래로 한 번도 파괴된 적 없는,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니까. '황금빛 도시의 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왓 씨엥통 사원은 루앙프라방이 정말 황금빛 도시였던 시절에 창건되어 오늘날까지도 줄곧 루앙프라방의 종 교적인 구심점을 해왔던 곳이다.

사원은 크게 세 개의 건물로 나뉜다. 우선 대법전(Sim)이다. 가장 오래된 건물 인 만큼 16세기 루앙프라방의 사원 건축 양식을 대표하는 사례다. 삼단 지붕의 끝자락이 지면에 붙으려는 듯이 내려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붕의 끝자락에는 각각 용 모양으로 된 장식이 있는데, 비를 기원하고 사원을 수호하는 의미가 짙다. 세타틸랏 왕의 흔적도 엿볼 수 있다. 증축 과정에서 이 건물에 황금색 스텐실로 짠타파닛(Chanthaphanith) 왕의 전설에 관한 내용을 그려넣었다. 그 밖에도 고대 불교 설화를 주제로 한 벽화 등을 정교한 솜씨로 새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옆에는 봉안당(Royal Funerary Carriage House)이 있다. 1960년, 라오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사방봉 왕의 납골함을 옮겼던 운구차를 이곳에서 보관중이다. 높이만 해도 무려 12m에 이를 정도로 큼지막하다. 운구차에는 머리가 7개 달린 나가 수호신 조각이 있는데, 라오스의 유명 조각가인 팃탄이 제작했다. 1962년에는 봉안당 외부에 힌두교의 신화 라마아나의 내용을 금박 부조로 새기기도 했다.

불은 법당(Ho Tai Pha Sai Nyaat)이라는 건물도 있다. 1880년도에 지은 법당이다. 사원 건축 당시에 제작한 희귀 와불상을 이곳에 모셔두었다. 이곳에서꼭 살펴보아야 할 것은 외벽이다. 1957년 부처 탄생 2,500주년을 기념해 외벽에 정교한 유리 모자이크 작품을 하나 남겼는데, '생명의 나무라는 이름의작품이다. 부처의 삶이 내용이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상이 달라지며 색다른분위기를 풍기니,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작품을 감상해 보자.





: Luang Prabang. I think the name is so cute!

🕟 : Uh-oh. Luang Prabang means 'big golden Buddha statue'.

Really? Such a Buddhist nation. I'm more curious to know the origin.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knowing and not knowing before seeing. Let's enjoy the golden city.

Although there are many temples in Luang Prabang, Wat Xieng Thong temple is a must-visit. The temple represents Luang Prabang preserving its former shape which has never been destroyed since it was built in the 14th century. Wat Xieng Thong temple, which means 'the temple of the golden city' was built in the days when Luang Prabang was a real golden city and has been the religious center of Luang Prabang until these days.

The temple is composed of three main buildings. First, the 'Sim' represents the signature construction style of temples in Luang Prabang in the 16th century as it is the oldest building. The main characteristic is the edge of the three-tier roof that cascades down as if it is about to stick to the ground. Each edge of the roof has dragon-shaped decorations which connotes the wishes for rain and the protection of the temple. You can also see some traces of King Setthathirat. He stenciled a legend about King Chanthaphanith with golden stencils during the process of the extension. Besides, you can appreciate murals about Buddhist myths carved with elaborate skills.

The Royal Funeral Carriage House is located next to the Sim. The funeral car that carried the charnel of King Sisavang Vong in 1960, the last king of Laos is kept here. It is as grand as 12 meters in height. There you can see a seven-headed Naga guardian sculpture in the funeral car which was made by famous Laos sculptor Tittan. In 1962, the contents of Ramayana, the Hindu myth were engraved in gold relievos on the outside of the Royal Funerary Carriage House.

There is also a building named 'Red Chapel' (Ho Tai Pha Sai Nyaat). It was built in 1880. A rare statue of the Buddha made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temple was enshrined here. What you must see is the outer wall. There's an elaborate glass mosaic work named 'The tree of life' made to celebrate the 2,500th anniversary of the Buddha's birth in 1957. The life of Buddha is narrated. The color changes by the angle of view and gives off different atmospheres. Try to appreciate the work by moving around.



프라깨우의 흔적, 란쌍 왕국

: 강민! 나 라오스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을까?

: 아주 좋은 자세야. 라오스를 더 즐겁게 여행하려면 란쌍 왕국 이야기를 들어보자.

: 란쌍 왕국? 라오스의 역사와 관련이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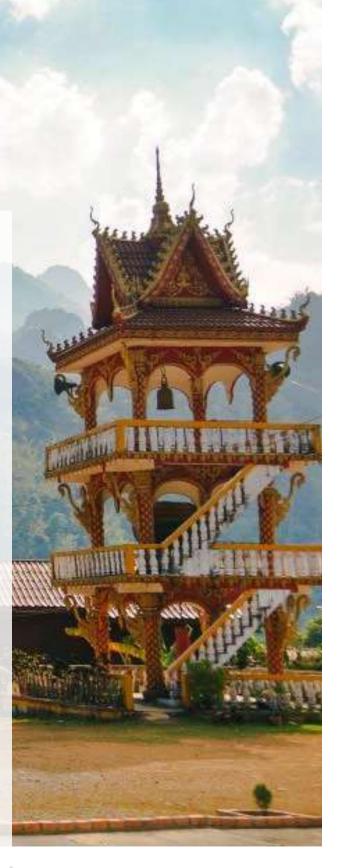
그럼! 라오스의 역사는 란쌍 왕국으로부터 시작되었거든. 떠나자. 에메랄드 불상을 찾아서~

라오스의 역사는 란쌍 왕국으로부터 시작된다. 란쌍 왕국을 이야기하며 빼놓 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에메랄드 불상, '프라깨우'다. 캄보디아 크메르 제국의 왕 가에서 성장한 '파응움(Fa Ngum)'은 크메르 왕의 명령을 받들고 지금의 라오 스 일대를 공격하여 점령에 성공한다. 그는 루앙프라방에 수도를 정하고, 크메 르 제국으로부터 독립하여 1353년, 라오스 최초의 통일 왕조 란쌍 왕국을 세

란쌍 왕국의 초대 왕, 파웅음은 훌륭한 군사 지도자였음에 틀림없었지만 귀족 과 지방 세력을 장악하는 능력이 떨어져 결국 왕권에서 쫓겨나게 된다. 파웅음 이 왕권에서 쫓겨난 뒤 그의 큰아들, 쌈쎈타이(Sam Saen Thai)가 왕권을 이 어받는다. 18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한 그는 무려 43년이라는 긴 통치 기간 동 안 행정체계를 개편하고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이때 라오스는 역사상 가장 번영한 시기를 맞게 된다.

포티싸랏 왕의 뒤를 이어 란쌍 왕국의 왕권을 차지한 세타티랏(Setthathirat) 은 란나 왕국에서 신성한 불상인 '프라깨우'를 란쌍 왕국으로 가져오게 된다. 프라깨우는 에메랄드 불상을 뜻한<mark>다. 또한 당시 세력을 불리던 버마, 그러니</mark> 까 오늘날의 미얀마를 의식해 수도를 루앙프라방에서 비엔티안으로 천도하 게 된다. 세타티랏은 당시 버마의 위협으로부터 란쌍 왕국을 지켜냈으며 탓 루 망(That Luang)과 왓 프라깨우(Wat Phra Kaew)를 건설한다. 이후 두 차례 에 걸쳐 버마의 통치를 받게 됐지만 란쌍 왕조의 마지막 국왕인 쑤리야웡싸 (Souliya Vongsa)가 재위하며 란쌍 왕국은 황금기를 맞는다. 무려 67년간의 평화가 지속됐지만 그를 마지막으로 라오스는 3개의 왕국으로 분열하며 다시 금 혼란기로 돌입한다. 라오스는 계속된 분열로 국력이 약해졌고 오늘날의 방 콕에 수도를 두고 있던 태국 '시암<mark>(Siam)</mark> 왕조'에게 외교를 빌미로 수도인 비 엔티안을 무력으로 점령당한다.

완전히 힘을 잃은 라오스는 프랑스의 기나긴 식민 지배를 거치게 된다. 식민 지배가 끝나갈 무렵 반 프랑스 민족주의자와 라오스 공산당 간의 내전으로 시 련을 겪었으며 2차 인도차이나 전쟁 기간 중 미국의 공중 폭격으로 엄청난 인 명 피해를 입기도 했다. 1975년, '빠텟 라오'가 내전에서 승리하며 지금의 '라 오스 인민주주의 공화국'이 성립되었다.



The Kingdom of Lan Xang, Traces of Phra Kaew

: KanaMin! I'm planning a trip to Laos. Is there anything I must know?



👀 : That's a very good attitude to make journey more enjoyable. you'd better hear the story of the Kingdom of Lan Xang.



: Kinadom of Lan Xana? Is it related to the history of Laos?



Of course! The history of Laos began with the Kinadom of Lan Xana. Let's leave for an adventure to find the Emerald Buddha statue.

The history of Laos begins with the Kingdom of Lan Xang. The emerald Buddha statue, 'Phra Kaew' is essential for the Kingdom of Lan Xang. Raised by the royal family of the Khmer Empire in Cambodia, 'Fa Ngum' succeeded to dominate the current Laos region under the orders of King Khmer. With its capital in Luang Prabang, Lan Xang, the first unified kingdom of Laos was established in 1353. independent from the Khmer Empire.

Fa Ngum, the first king of the Kingdom of Lan Xang, must have been a great military leader, but he was unable to gain control of aristocrats and local powers which ended him up ousted from the throne. After Fa Ngum was ousted from the throne, his eldest son Sam Saen Thai took over the throne. At a tender age of 18, he reorganized the administrative system and ruled the country stably during his long reign of 43 years. Laos faced the most prosperous period in history.

Setthathirat, the next king of Phothisarat brought the sacred Buddha statue 'Phra Kaew' from the Lan Na Kingdom to the Kingdom of Lan Xang. Phra Kaew means an emerald Buddha statue. Besides, he transferred the capital from Luang Prabang to Vientiane, being conscious of Burma, present-day Myanmar, strengthened its force at that time. Setthathirat defended the Kingdom of Lan Xang from the threat of Burma and built That Luang and Wat Phra Kaew. Later, the kingdom was ruled by Burma twice but greeted the golden age with the reign of Souliya Vongsa, the last king of the Lan Xang dynasty. After 67 years of peace during his reign, Laos finally split into three kingdoms and entered into an age of chaos again. Laos has weakened its national power due to the several times of division and Vientiane was dominated by force under the pretext of diplomacy to the 'Siam dynasty' of Thailand.

Laos went through a long period of French colonial rule, completely losing its national power. At the end of the colonial rule, the civil war was broken between the anti-French nationalists and the communist party of Laos. And during the Second Indochina War, the U.S. air bombing caused enormous casualties. In 1975, the victory of Pathet Lao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present-day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라오스를 지키는 백만 마리의 코끼리

() : 익현! 여행을 가기 전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이 있니?

(그래야더 현지를 제대로 느끼는 것 같거든.

그렇구나. 라오스는 연중 18개 정도의 대형 축제가 열려.그 중 11개가 불교 관련 행사야.

:오 그래?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 있겠다. 꼭 가보겠어!

불교는 라오스의 정체성에 기여한 종교다. 라오스는 1947년 국교를 불교로 지정한 불교국가다. 라오스 사람들은 생활의 많은 부분을 불교적 정신과 동일 시하며 생활한다.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출가 생활을 하도록 정해둔 주변 국가와 달리 라오스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출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워낙 불심이 깊어 자발적으로 출가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대부분의 남자 아이들은 생에 1주일에서 3달 정도 사원에서 수도 생활을 하며 불법을 익히고 불교의 정신을 내면화한다.

불교가 라오스의 국교로 지정된 것은 100년이 채 안 됐지만, 불교가 라오스에 들어온 것은 아주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파 응움은 크메르 왕국에서 루앙프라방으로 넘어와 란쌍 왕국을 세웠고, 이 과정에서 크메르에서 지배적 이었던 종교, 불교가 그대로 전이된다. 크메르 왕국에서 고승을 초청하며 불법을 설파하기도 하는 등 파 응움을 비롯한 란쌍 왕국 초기 왕들은 불교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국가의 기름을 마련했다.

루앙프라방의 불교 문화를 경험하려면 아침 일찍 거리로 나오면 된다. 매일 아침마다 불교 의식인 탁발 행렬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라오스에서는 수행자가자신의 아집을 버리기 위해 남에게 빌어먹으며 수행을 하는 탁발이 일반화되어 있다. 곧 수행자는 재가자의 자비를 통해 생존하고, 재가자는 수행자에게음식을 기부하며 덕을 쌓는 것이다. 이 의식은 무려 란쌍 왕국 때부터 이어져왔으니, 적어도 600년 동안 매일매일 쌓여왔던 풍경이다.

불교 국가인 만큼 라오스의 축제는 불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라오스에서는 연중 18개 정도의 대형 축제가 열리는데, 이중 11개가 불교 관련 행사로 집계된다. 매년 4월 부처님 오신 날 축제는 응당 성대하게 진행된다. 라오스 전역의 사원은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러 온 사람들로 붐빈다. 라오스력 새해인 '삐마이(Pi Mai)'를 기념하는 축제도 4월에 있다. 신년 축제이지만, 이 또한 불교와 깊은 관련이 있다. 삐마이에는 사람들이 서로 물을 뿌리는 풍습이 있는데, 이 행위가 새해를 맞아 불상을 씻기던 것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승려의 수행의 시작과 끝을 기념하는 축제도 있<mark>다. 라오스 승려들은 여름 장마</mark>시기 약 3개월간 외출하지 않고 사원에서 수행<mark>하는 '하안</mark>거'를 갖는다. 연말인 11월에는 비엔티안에서 라오스 승려들이 모두 모이는 탓루앙 축제가 열린다. 세타티랏왕은 부처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mark>탓루앙(That Luang) 축제를</mark> 열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A million elephants that protect Laos

: Ikhyun! What's your first priority in preparing for a trip?

Festivals! I go on a trip during the festivals of the country.

Festivals make me feel the local mood.

I see. Laos has about 18 big festivals throughout the year.
If of them are Buddhist-related festivals.

 Oh really? There must be special spectacles impossible to experience in our country.
 I'll definitely participate in the festivals!

Buddhism is a religion that contributed to Laotian identity. Laos is a Buddhist country that declared Buddhism as the national religion in 1947. Laotians identify much of their lives with the Buddhist spirit. Unlike neighboring countries that force people to enter the Buddhist priesthoo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Laotians can decide by themselves without any restraint. However, there are many people who voluntarily enter the Buddhist priesthood due to their deep devotions. Most boys spend a certain period of time ranging from 1 week to 3 months on average in a temple, learning about Buddhism and internalizing the spirit of Buddhism.

It has been less than 100 years since Buddhism was designated as the national religion of Laos. But Buddhism was introduced to Laos a long time ago in the history. Fa Ngum founded the Kingdom of Lan Xang after moving from the Khmer Kingdom to Luang Prabang. At this time, Buddhism, the dominant religion in the Khmer Kingdom was transferred together. In the early days of the Kingdom of Lan Xang, the kings including Fa Ngum actively fostered Buddhism to establish the foundation of Lan Xang. Even high priests of Buddhism were invited to preach in Khmer.

To experience the Buddhist culture of Luang Prabang, come out to the streets early in the morning. Because every morning, the religious mendicancy procession continues. In Laos, it is common for disciplinants to practice by begging others to abandon their egoism. In other words, the disciplinants survive through the mercy of the believers and the believers strive after virtue by donating food to the disciplinants. This ritual has been continued for at least 600 years, from the era of Lan Xang kingdom

As a Buddhist country, the festivals of Laos are closely related to Buddhism. In Laos, about 18 large festivals are held throughout the year, among which 11 are counted as Buddhist-related events. The Buddha's Birthday Festival is held magnificently every April. All the temples in Laos are crowded with people who come to celebrate Buddha's birthday. 'Pi Mai', a festival that celebrates the Laotian New Year's Day is also held in April. Although it is a New Year's festival, it is also deeply related to Buddhism. There is a custom that people spray water on each other during Pi Mai and this custom is derived from washing Buddha statues for the New Year.

There is also a festival to celebrate the beginning and end of Buddhist monks' practice. During the summer rainy season, Laotian monks do not go out for about three months. It is called Vassa at the temples. In November, That Luang Festival is held in Vientiane where all Laotian monks gather. King Setthathirat held That Luang Festival to show his respect to the Buddha and it is continued up to now.



방비엥을 여행 중이라면 남성 강에 몸을 맡겨볼 것

: 오늘은 방비엥에 가는 날~

: 오! 계획은 있는거야?

: 아니 오늘은 즉흥적으로 가보려고 해. 어디가 좋을까?

: 음., 좋아 오늘은 날이 더우니 남쏭강으로 가자. 최고의 액티비티를 보여주지!

방비엥 최고의 액티비티 중 하나는 남쏭 강(Nam Song River)에 몸을 맡기는 <mark>것이다. 그렇다. 그저 몸을 맡기기만 하면 된다. 준비물은 강</mark>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카약, 그리고 튜브다. 방비엥에서 카약이나 튜브를 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카약을 취급하는 대여점이 남 쏭 강변을 따라 즐비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카이드가 필요하다면 현지에서 투어 프로그램을 찾을 수도 있다.

가이드와 함께 타는 카야킹은 대개 두 시간쯤 진행된다. 잔잔한 물살을 타고 유유자적 시간을 보내고, 주변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자연과 하나가 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중간에 잠시 쉬어갈 만한 곳도 있다. 가벼운 음료와 주류, 간식 등을 판매하는 곳이<mark>다.</mark> 카야킹을 즐기는 다른 여행자와 어울리는 것도 가능하다.

얼마 전까지 방비엥에서는 튜브를 타고 남쏭 강을 따라 흘러 내려가는 게 유행이었다. 트랙터의 폐타이어에서 꺼낸 듯한 검은색 튜브를 타고 강을 누비는 게 일반적이었다. 당시에는 거의 모든 여행자가 이 액티비티를 경험했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튜브를 타고 물줄기를 타다가, 마음에 드는 강변 바가 있으면 들르는 식으로 남쏭 강을 즐겼다. 그러나 지금은 바가 많이 사라진 상태다. 바가 너무 시끄러웠던 탓이기도 하고, 남쏭 강의 물살이 강해 튜브를 타는 게 위험하기도 해서다. 아직 튜브를 대여해주는 곳이 몇 군데 남아 있기는 하다.

카야킹과 튜빙, 어떤 것을 즐기더라도 남쏭 강의 물살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유량이 많거나, 유속이 <mark>빠른 시기에는 남쏭</mark> 강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 구명 조끼도 함께 대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FEEL THE FLOW OF NAM SONG RIVER

📀 : Today is the day to go to Vang Vieng~

3 : Oh! Do you have any plans?

No, I'm going to be spontaneous today. Any good places to recommend?

: Well.. It's hot today, so let's go to the Nam Song River.
I'll show you the best activities!

One of the best activities in Vang Vieng is to go with the flow of the Nam Song River. All you have to do is just leaving yourself on the river. The preparations such as kayaks and tubes are easily found around the river. It's not a hard job to try kayaks or tubes in Vang Vieng. It is because rental shops of kayaks are lined up along the Nam Song River. If you need a guide, you can also find a tour program there.

The kayaking with the guide usually takes about two hours. You can spend a relaxing time along the gentle waves, enjoy the beautiful scenery around and become one with nature. There are some places where you can take a break in the middle of the kayaking. You can have some drinks, alcoholic beverages, and snacks. You can also hang out with other travelers who enjoy kayaking.

Until recently, it was popular floating down the Nam Song River in a tube in Vang Vieng. It was common to go around on the river in a black tube that looks like a waste tire from a tractor. At that time, it was so popular that almost every traveler experienced this activity. They enjoyed the Nam Song River by taking a tube, following the current of the river and stopping by their preferred riverside bars. However, many bars have disappeared because they were too noisy and the current of the Nam Song River is too swift. There are still a few places to rent tubes though.

Whether you enjoy kayaking or tubing, it is essential to check the current of the Nam Song River. You'd better not to enter the Nam Song River when the current is large or swift. Renting a life vest is highly recommended.

지속가능한 여행 생태계 조성으로 더욱 아름답고 건강한 방비엥 만들기

: 강민, 메콩 전문가는 여행을 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니?



: 나는 지속가능한 여행을 하려고 노력해.



: 예를 들면?

: 라오스의 'SAE LAO'라는 비영리단체에서는 현지 마을에서 생산한 농작물을 이용한 레스토랑, 바이오 가스 기술, 천연 비누 생산 등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면서 경제를 살리고 있어 한번 볼까?

SAE LAO의 설립자, Sengkeo Frichitthavong이 마을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방비엥은 무성한 열대우림, 깨끗한 강, 오염되지 않은 강물 이 흐르는 곳이었다고 한다. 관광은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지만, 무분별한 개발이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충격을 받았고, 생각했다. 모든 것이 파괴되기 전에 방비엥의 아름다운 자연과 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말이다. 2006년, Sengkeo Frichitthavong은 프랑스인 Anais Maumet을 만나 이 생각을 구체화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방안에 대해 논의 했고, 2년 후에는 커뮤니티 기반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비영리단체인 SAE LAO 협회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SAE LAO 프로젝트는 블루 라군으로 유명한 나통 마을의 지역 주민에게 직업 훈련과 양질의 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속 가능한 기술을 교육하고, 무료로 영어 수업을 진행한다.

세계 각지에서 찾아오는 자원봉사자들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다양한 문화를 보고, 듣고, 느끼고, 나누기도 한다. 지역 주민을 SAE LAO 프로젝트의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리더나 직원으로, 학생, 교사, 소비자, 아이디어 기획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마을 농장에서 생산한 농작물을 이용한 레스토랑, 바이오 가스 기술, 천연 비누 생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의 건축 등을 제안해 환경 파괴를 최 소화하는 노력도 꾸준히 이어간다.

방비엥 중심지에서 약 7km 떨어진 곳에 있는 나통 마을(Nathong Village)의 SAE LAO 프로젝트는 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직원 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열린다. 블루 라군 입구에서 그들의 레스토랑을 만나볼 수 있다. 방비엥 시내에서 게 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도 한다.

방비엥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노력을 응원하고 싶다면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자. 최소 2주 이상, 하루 5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 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그게 어렵다면 게스트하우스나 레스토랑을 이용해 응원해도 좋다. SAE LAO 프로 젝트는 모든 이들에게 열린 곳이다.



SAE LAO PROJECT, FOR MORE BEAUTIFUL VANG VIENG



: KangMin. What point does the Mekong expert focus on when traveling?



: I try to make a sustainable trip.



: For example?



: A non-profit organization called "SAE LAO" in Laos is saving the economy by minimizing. environmental destruction in sustainable ways, such as running restaurants using local crops, developing biogas technology, and producing natural soap. Shall we take a look?

Vang Vieng was the city of lush rainforests and clean, unpolluted rivers until the founder of SAE LAO, Sengkeo Frichitthavong left. Tourism had provided new opportunities for residents, but indiscriminate development was adversely affecting the surrounding environments. He was shocked and determined to do something to preserve the beautiful nature and the heritage of Vang Vieng before everything got destroyed. In 2006, Sengkeo Frichitthavong met Anais Maumet from France and embodied this idea. They discussed ways to create a sustainable future and two years later they established a non-profit organization SAE LAO, as part of a community-based project.

SAE LAO project creates various programs to provide job training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of good quality for residents in Nathong Village which is famous for Blue Lagoon. They educate people about sustainable technologies and give English lessons for free.

They also create exchange programs in cooperation with volunteers from all over the world to see, listen, feel and share various cultures. They also support residents by letting them participate as members of SAE LAO project to serve as leaders, staff, students, teachers, consumers, and idea planners. They make unceasing effort to minimize environmental destruction; usage of crops from local farms in restaurants, bio-gas technology, natural soap production and construction in a sustainable way.

SAE LAO project in Nathong Village, about 7 km from the center of Vang Vieng has been quite successful. The number of employees is steadily increasing and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are provided. You can find their restaurants at the entrance of Blue Lagoon. They also run questhouses in downtown Vang Vieng.

If you love Vang Vieng and wish to support their efforts, it would be a good choice to participate in volunteer works. Various volunteer programs are prepared for those who can participate in volunteer works for at least two weeks, more than five hours a day. If you find it difficult, you can support them by using questhouses or restaurants. SAE LAO project is open to everyone.

MYANMAR

미얀마

수도 : 네피도 **언어** : 미얀마어

면적: 67.7만km² (2017 FAO)

인구: 5,480만 6.014명 (2021 UN)

종교: 불교 88%, 기독교 6%, 이슬람 4%

환율: 1\$ = 약 1,500짜트

미얀마 연방공화국은 버마족(70%)과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버마족이 많은 만큼 1989년 이전에는 국명이 버마였는데,

이는 영국 식민지의 잔재임과 동시에 다른 소수민족들을 아우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현재의 미얀마로 국명이 바뀌었다. 청국장과 쌀국수, 특히 맥주가 유명하다.

국제적인 고립과 미얀마식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실패,

장기적인 군사 독재 등의 정치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경제가 매우 침체되어 있다.

오랫동안 군부가 통치하고 있는 국가로 인권 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속에

미국 등 서방 국가들로부터 경제 제재조치를 받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의 하나로,

수 십 년간의 침체와 정책의 실수, 고립으로 고통받고 있다.

미얀마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메콩강 유역의 국가들 중 가장 낮다.

영국 통치하에서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였다.

이 당시 미얀마는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이었으나, 현재는 고무가 수출품목의 대종을 이루며

총수출고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2차대전과 전후의 내란으로 심한 타격을 입었는데

1959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전쟁 전의 수준을 회복했다.

MYANMAR

Capital: Naypyidaw

Language: Burmese language Area: 0.67 million km² (2017 FAO)

Population: 54 million (2021 UN)

Religion: Buddhism 88%, Christian 6%, Islam 4%

Exchange rate: 1\$ = 1,500 MMK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consists of Burmese (70%) and ethnic minorities.

As there were many Burmese, the national name was Burma before 1989, which was changed to what is now Myanmar because it did not cover other minorities, and because it was the remains of the British colony.

Cheonggukjang(fast-fermented bean paste) and rice noodles, especially beer, are famous.

The economy is very stagnant due to a combination of political problems such as international isolation, failure of Myanmar-style socialist planned economy, and long-term military dictatorship. It is a long-time military-controlled country and is

under economic sanctions from the U.S. and other Western countries amid international criticism over human rights abuses. It is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Southeast Asia, suffering from decades of stagnation, policy mistakes, and isolation.

Myanmar's average annual GDP growth rate is the lowest among countries in the Mekong River basin.

Under British rule, Myanmar was the richest country in Southeast Asia.

At that time, Myanmar was the world's largest rice exporter, but now the rubber is the largest export item, accounting for 70% of the total exports. It was severely damaged by World War II and the postwar civil war,

but only in 1959 did it regain its prewar level.



MYANMAR









미얀마에서도 청국장을 먹는다



: 지금 이 냄새는 혹시 청국장?



: 익현아.. 너 후각이 뛰어나구나?



: 뭐야! 한국에서 청국장 가져왔어?



: 미얀마의 북부 고산 지역에 사는 샨족이 청국장과 비슷한 '샨 뻬복'을 만들어 먹는다고 해. 왜냐하면 그 지역의 특성상 콩이 많이 나오고 발효가 잘 되기 때문이야. 우리나라와 비슷한 맛인지 먹어볼까?

미얀마에도 우리와 똑같은 청국장이 있다고 하면 믿을 수 있을까. 재료인 콩이 들어가는 것부터, 만드는 방법까지도 거의 동일한 미얀마의 청국장 샨뻬복(Shan Pebou)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우리나라와는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미얀마 북부의 고산 지대에서 살아가는 소수민족 '샨(Shan) 족'이 만들어 전국에 공급하다는 이 샤뻬복은 대체 어떤 것일까.

산뻬복은 말려서 만드는 청국장이다. 만드는 방식이 우리의 전통 방식과 상당 부분 유사한 것이 재미있다. 우선 콩을 서너 시간 정도 삶아낸다. 오 랜시간, 센 불에 삶아내야 빠르게 발효가 된다는 것이 산족 사람들의 설명 이다. 이렇게 삶은 콩을 꺼낸 뒤 물기를 어느 정도 제거하고, 따뜻한 곳에 둔 채 이불 등을 덮어서 사나흘 정도 발효를 시킨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청 국장을 만드는 방식과 동일하다.

발효 끝에 점성이 생긴 콩을 물과 함께 기계에 넣어 갈아내는데, 이 반죽을 다시 손바닥 크기로 얇게 누른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온 것을 햇볕에 하 루 정도 말리면 완성이다. 우리의 청국장과 산족의 샨뻬복 사이에서 다른 점을 찾자면 모양새 정도이지 않을까. 맛이나 향은 거의 동일하니까. 아, 고춧가루와 고수, 생강 등을 함께 넣어 말린 샨뻬복도 있다. 일종의 별미인 셈이다. 한편, 말린 샨뻬복은 가정에서 한 번 더 구운 뒤 잘게 빻아 사용한 다

산뻬복은 산족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조미료다. 산뻬복이 없으면 요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음식에 들어간다. 미얀마 전역에서 유명한 산국수(Shan Noodle)도 어김없이 이 산뻬복으로 맛과 향을 낸다. 청국장과 유사한 덕분에 한국인의 입맛에도 아주 잘 맞는다는 사실.

미얀마에 가거든, 산족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산뻬복을 이용한 요리를 즐겨보자. 본고장인 샨 주(Shan State)의 시포(Hsipaw)로 여행을 떠나도 좋다. 어디에서든 구수한 청국장의 향기가 여러분을 맞이할 테니.



Myanmareses also eat Cheonggukjang

(fast-fermented bean paste)



: Is this smell..Cheonggukjang?

to Korean Cheonggukjang?



: Ikhyeon.. You have a good sense of smell.



: The Shan people living in the northern alpine region of Myanmar make 'Shan Pebou' similar to Cheonggukjang.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ea, lots of beans come out and ferment well. Shall we try it whether it tastes similar

Can you believe if there's Cheonggukjang(fast-fermented bean paste) in Myanmar? There is Shan Pebou, Myanmarese Cheonggukjang, which ingredients and recipe are almost same with those of Korea. The Shan people who live in the alpine region of northern Myanmar, make it and supply it to all over the country. What's this Shan Pebou?

Shan Pebou is a soybean paste made with drying process. It's interesting that the recipe is much similar to Korean one. First, boil the beans for about three or four hours. The Shan people say that it needs to be boiled over high heat for a long time to ferment quickly. After taking out the boiled beans, remove some moisture, put them in a warm place, cover them with blankets, and ferment them for about three or four days. So far, it is the same as how Koreans make Cheonggukjang.

At the end of fermentation, the viscous beans are ground into the machine with water, and these doughs are pressed thinly in the palm-size. Lastly, dry them in the sun for about a day. The only difference between Cheonggukjang of Koreans and Shan Pebou of the Shan people is just the shape. The taste and flavor are almost the same. There is another Shan Pebou that red pepper powder, coriander, and ginger are put together and dried together. It's a kind of delicacy. Meanwhile, the dried Shan Pebou is baked once more at home and then ground into small pieces to use.

Shan Pebou is a must-have seasoning for the Shan people. Almost every food contains Shan Pebou, so the Shan people can't cook without Shan Pebou. Shan Noodle, which is famous throughout Myanmar, also tastes and flavors with Shan Pebou. Thanks to the similarity of Cheonggukjang, it suits the taste of Koreans.

When you go to Myanmar, drop by a restaurant run by the Shan people and enjoy some food which contains Shan Pebou. You can also travel to Hsipaw in Shan State. The smell of Cheonggukjang will greet you wherever you are.

미얀마에서 꼭 먹어봐야 할 세 가지

: 슬슬 배가 고픈데, 오늘은 뭘 먹을까?

: 자. 미얀마에 왔다면 꼭 먹어봐야 할 것들을 소개하지

맥주도 함께 부탁해!

: 세계적인 품질로 유명한 미얀마의 맥주가 있으니 꼭 먹어보자 자 따라와

미얀마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다. 과거에 동남아 최대 쌀 수출국이었던 민 큼 지금도 많은 양의 쌀을 생산한다. 미얀마 사람들이 평소에도 즐겨 먹는 전 통 음식인 모힝가(Mohinga) 또한 쌀을 이용한 국수 요리다. 전통적으로 레몬 그라스와 바나나 줄기를 넣지만 보통은 메기를 삶은 후 살점만 따로 발라내 큰 솥에 불린 콩과 야채, 마늘, 생강 등을 넣고 몇 시간 더 푹 고아 낸다. 모힝가를 먹을 때는 면을 담은 그릇에 육수를 붓고 삶은 계란이나 메추라기 알을 곁들여 내놓으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고명을 얹어 먹는다.

샨(Shan) 지역의 팔라웅(Palaung)과 껄로(Kalaw)가 차 생산지로 유명하다. 러펫예는 이런 미얀마의 차 문화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러펫예(Lahpet Yav)는 찻잎을 우려내 먹는 미얀마식 밀크티로, 차를 우려낸 물에 연유와 설탕 을 넣어 달달하게 먹는다. 때로는 연유 대신 우유를 넣기도 하며 일반적인 밀 크티보다 진한 단맛이 특징이다. 여기에 사모사라는 튀김 만두와 같은 간식을 함께 먹기도 한다. 사모사 외에도 여러 튀김 종류나 스낵을 곁들여 간단히 끼니를 때우기도한다.

모힝가, 러펫예와 더불어 미얀마에서 꼭 먹어봐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얀마 맥주(Myanmarese beer)이다. 미얀마에서 생산되는 맥주는 '미얀마 맥주'와 '만달레이 맥주', '안다만 맥주' 등이 있는데 이 중에 '미얀마 맥주'의 점 유율이 압도적이다. 미얀마 맥주는 국영기업인 '미얀마 브루어리'에서 만들며 세계적인 품질을 자랑한다. 시원한 맥주 한 잔과 잘 어울리는 것이 튀김과 구 이 요리다. 미얀마 사람들은 평소에도 간식으로 튀김이나 꼬치구이를 즐겨 먹 는데 시장이나 거리마다 이런 노점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커리도 미얀마에서 자주 접하는 메뉴 가운데 하나다. 미얀마 커리(Myanmar curry)는 일반적인 커리와 달리 국물을 넉넉히 넣은 조림 같은 느낌이 든다. 때 문에 메인 요리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반찬들과 함께 곁들어 먹는 형태다. 무엇 보다 커리 재료가 다양한 것이 특징인데 돼지고기, 닭고기부터 생선, 새우 등 해산물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커리들이 식탁에 오른다. 모힝가와 더불어 샨 국수도 미얀마인들이 좋아하는 쌀국수이다. 샨 국수는 동부 지역의 샨 주에서 유래된 전통 음식으로 미얀마어로 샨 카욱쉐라고 부르는데 육수에 말아먹기 도 하고 양념을 넣어 매콤하게 비벼 먹기도 한다. 국물이 있는 국수는 돼지고기 나 닭고기로 육수를 내고 양파, 마늘, 생강, 땅콩 등 각종 고명과 고수를 얹어 먹는 다. 비빔국수는 육수 없이 돼지고기 등을 넣어 먹는데 외국인 입맛에도 잘 맞는다.



THREE THINGS **YOU MUST TRY** IN MYANMAR





: I'm getting hungry, what should we eat today?



: Well, let me introduce you to some foods you must try when you come to Myanmar.



And beer, please!

: There is Myanmar beer that is famous for its world-class quality, so let's try it. Come on!

Myanmar is a rice-based country. As it was the largest rice exporting country in Southeast Asia in the past, it still produces a large amount of rice. Mohinga, traditional food that Myanmarese usually enjoys, is also a noodle dish using rice. Traditionally, lemongrass and banana stems are added, but usually boil boned flesh of catfish and beans, vegetables, garlic, ginger, etc. in a large pot for a few more hours. When eating mohinga, pour broth into a bowl with noodles and add boiled eggs or quail eggs with various garnishes.

Palaung and Kalaw in Shan province are famous for tea production. Lahpet Yay makes Myanmarese tea culture even more special. Lahpet Yay is a Myanmar-styled milk tea that is brewed with tea leaves, adding condensed milk and sugar to make it sweet. Sometimes milk is added instead of condensed milk, and it is characterized by a sweeter taste than regular milk tea. They have some snacks with it like Samosa, fried dumplings. In addition to Samosa, they add various kinds of fried food or snacks to eat simply.

Along with Mohinga and Lahpet Yay, one of the must-eat foods in Myanmar is Myanmarese beer. Beer produced in Myanmar includes 'Myanmar Beer', 'Mandalay Beer', and 'Andaman Beer', among which 'Myanmar Beer' has an overwhelming share. Myanmar beer is made by the state-owned company 'Myanmar Brewery', which boasts worldclass quality. Fried and grilled dishes go well with a glass of cool beer. Myanmarese usually enjoy fried or grilled skewers as snacks, and these stalls can be easily found in markets and streets.

Curry is one of the most popular menus in Myanmar. Unlike ordinary curry, Myanmar curry feels like a boiled dish with plenty of soup. Therefore, rather than the main dish, it is eaten with various side dishes. Above all, curry ingredients are characterized by a variety of ingredients, and there are various kinds of curry, such as pork curry, chicken curry, fish curry, shrimp curry, etc. Along with Mohinga, Shan noodles are also Myanmarese favorite rice noodles. Shan noodles are a traditional food that originated in Shan province in the eastern part of the country, and are called Shan Kaukswe in Myanmar, and are sometimes mixed with broth or spicy seasoning. Noodles with soup are made with pork or chicken and eaten with various garnishes(i.e. onions, garlic, ginger, peanuts, etc.) and coriander. Spicy noodles are added with pork and other ingredients without broth, which are agreeable to the palate of



: 강민! 너무 대도시 위주의 여행을 했더니, 미얀마 현지 느낌을 잘 모르겠어.



: 내가 소개할 곳은 물 위에서 사는 마을이야.

인레 호수(Inle Lake)는 정말이지 독특하다. 길이가 22km, 폭이 11km에 달 하는 이 거대한 호수는 해발고도 880m, 그러니까 고원 위에 펼쳐져 있다. 구 름 위에 호수가 있다면 이런 풍경일지도 모를 만큼 말이다. 미얀마에서 두 번 째로 큰 호수인 이곳에 터전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호수의 아들이

라 불리는 인따족(Intha people)이다.

이곳에 오게 된 유래야 어찌 되었든, 현재 인따족은 호수에서 살아간다. 호숫 가가 아니라, 말 그대로 호수 위다. 거대한 인레 호수의 절반 가까이 뒤덮은 땅이 그들의 터전이다. 인따족은 호수 위에 집과 다른 건축물을 지었다. 드넓 은 호수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었을까. 심지어 그들은 농사를 위한 농경지도 물 위에 띄워 놓았다.

쭌묘(Kyun myaw)라는 이름의 이 수경 재배 방식은 물에 뜨는 식물인 부레옥잠 과 여러 수초를 엮어 기초를 만든 뒤, 그 위에 흙을 덮어 만드는 밭에서 이루어 진다. 여러 해에 걸쳐 수초와 흙을 엮으면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밭이 된다. 인 따족은 이곳에 주로 토마토를 심는다. 미얀마 전역에서 먹는 토마토 대부분은

응? 말도 안돼!



물은 물인데, 인레 호수의 절반 가까이 뒤덮은 호수 물 위의 땅이지. 이곳에는 인따족이 살고 있어. 한번 가볼까?

이곳에서 나고 자란 것들이다. 인따족의 소녀들이 혼인적령기가 되면, 그녀의 부모는 이 쭌묘를 지참금으로 내어주기도 한단다. 어디서든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따족은 한 발로 노를 젓는 풍습으로도 유명하다. 손으로 노를 젓는 다른 사 람들과는 달리, 받침대가 달린 노를 들고 서서 물살을 가르는 형태다. 원뿔 형 태의 큼지막한 어구를 사용해 물고기를 잡는 모습도 눈에 띈다. 쭌묘 근처에 서 물방울이 올라오는 장소를 찾아, 이 어구를 내리꽂는 방식이다. 모두 인따 족의 전통적인 모습들이지만, 최근에는 자주 볼 수 없기도 하다. 낚시 기술은 좋아졌고, 모터 달린 보트가 인레 호수를 누비고 있으니까.

현재 인레 호수에는 7만의 인따족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호수의 절반을 쭌묘로 뒤덮어 채소를 재배하고, 드넓은 호수에서 물고기를 낚아 생 활을 영위한다. 채소와 물고기를 인레 호수 인근에서 열리는 시장에 내다 팔 아서 돈을 번다. 그렇게 번 돈으로 꽃을 산 뒤, 하루 두 차례 사원에 간다. 오래 된 쭌묘가 모여서 생겨난 땅 위에 지은 사원이다. 호수 위에서 태어난 그들은, 호수에서 살다가, 호수로 돌아간다.



: KangMin! We've been on a trip focused on big cities, so I can't feel local Myanmar.



: The place I will introduce is a village that is on the water.

Inle Lake is really unique. The huge lake, 22 kilometers long and 11 kilometers wide, stretches 880 meters above sea level, above the plateau. If there is a lake on the cloud, it may be this kind of landscape. Some people live here, the second-largest lake in Myanmar. They are Intha people that is called the son of the lake.

Regardless of the origin of settling down, the Intha people now live on the lake. It's not by the lake, but it's literally on the Lake. The land covers nearly half of the huge Inle Lake and it is their home. The Intha people built houses and other buildings on the lake. Was it to use the vast lake more efficiently? They even floated farmland for farming on the water.

This hydroponic cultivation method, named 'Kyun myaw' is based on the water-floating plant 'water hyacinth' and various water plants, and is covered with soil. It becomes a farm where crops can be grown by weaving water plants and soil for several years. The Intha people usually plant tomatoes here. Most tomatoes eaten throughout Myanmar are grown here. When the girls of the Intha people are in marriageable age,



: What? That's nonsense!



: It's the land that covers almost half of the Inle Lake. The Intha people live there. Shall we go?

their parents sometimes give them Kyun myaw as marriage expenses so that they can make a living anywhere.

The Intha people are also famous for the custom of rowing with one foot(One Leg Rowers). Unlike other people who row with their hands, they stand with an oar with a pedestal and row. It is also noticeable to catch fish using large, conical fishing gear. They find a place where water drops come up near Kyun myaw and stick this fishing gear. They are all traditional figures of the Intha people, but they are not often seen these days. Fishing skills have improved, and the motorized boats are crisscrossing Inle Lake.

Currently, there are 70,000 Intha people living in Inle Lake. They grow vegetables by covering half of the lake with Kyun myaw and catch fish from the wide lake. They make money by selling vegetables and fish to markets near Inle Lake. After buying flowers with the money they earned, they go to the temple twice a day. This temple was built on the ground where the old Kyun myaw came together. Born on the lake, they live on the lake and return to the lake.





② : 인레 호수가 미얀마의 대표 여행지 맞지?

🥎 : 오.. 익현이 너도 이제 곧 메콩 전문가가 되겠는걸?

· : 하하! 동남아 국가의 매력이 듬뿍 담겨있는 메콩강이 너무 좋은걸 어떡해.

: 너에게 선물을 주겠어. 바로 인레 호수에서 '쭌묘'라는 수상 재배방식으로 자란 토마토!

인레 호수(Inle lake)는 미얀마의 대표적인 여행지 중 하나다. 미얀마 내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 호수는 미얀마 여행자에게는 보트투어, 선 셋투어 등으로 알려진 곳이다. 인레 호수는 해발 875m 고원 지대에 드넓게 펼쳐져 있는데, 곳곳에서 꽤 큰 규모의 수상 마을을 여럿 만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미얀마의 여러 부족 중 하나, 인따(Intha) 족의 터전이 바로 이곳 인레 호수다.

인따족은 인레 호수에 수상 가옥을 만들어 살아간다. 이들에게 물은 땅이고, 롱테일보트는 두 발이다. 인따족이 인레 호수에 정착한 게 14세기였다고 하 니 대를 이어 이 땅, 아니 이 물 위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인 레 호수 위에서 물고기를 낚고, 작물을 경작하는 지혜를 계승한다. 어린아이 도 배를 자유자재로 다룰 정도로 호수 위에서의 항해술도 능숙하다. 인레 호 수와하나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인따족의 여러 특징 중에 쭌묘(Kyun Myaw)라고 불리는 수경재배지가 독특하다. 부레옥잠과 같은 수초를 엮어 기초를 만들고, 층층이 흙을 덮어 농작물 재배를 위한 땅을 만드는 방식이다. 호수 바닥에 고정해 놓은 것처럼 보일 수있지만, 사실은 물 위에 자유롭게 떠 있는 밭이라는 점이 재미있다. 땅 대신호수 위를 선택한 인따 족은 이러한 쭌묘를 계속 만들어, 이제는 인레 호수의 절반을 자신들의 농경지로 활용한다.

인따족은 이 쭌묘에서 미얀마 전역으로 팔려나가는 토마토를 생산한다. 생산 량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란다. 호수 밑에 가라앉아 썩어가는 수초는 쭌묘에 귀중한 영양분을 제공하고, 호수 위에 쏟아지는 햇볕은 토마토의 맛 을 한층 더 훌륭하게 만들어준다. 나아가 이 쭌묘는 인레 호수를 정화하는 역 항응 도막기도 하단다 Inle Lake is Myanmar's representative tourist spot, right?

: Oh, Ikhyun, you're going to be a Mekong expert soon.

: Haha! I love the Mekong River, which has the charm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 : I'll give you a present. A tomato that is grown on Inle Lake by water cultivating method called 'Kyun Myaw'!

Inle Lake is one of the most popular travel spots in Myanmar. As the second-largest lake in Myanmar, it is known as a boat tour and a sunset tour to travelers of Myanmar. Inle Lake is spread out in the 875m plateau areas above sea level, and, interestingly, you can find several quite large floating villages. Inle Lake is home to the Intha people, one of the Myanmarese tribes.

The Intha people build floating houses on the Lake and live there. For them, the water is the land, and the Longtail boats are their feet. Intha people settled in Inle Lake in the 14th century, so they have continued to live on this water. They inherited the wisdom of fishing on the Lake and cultivating crops. Even young children can handle ships freely, so they are good at navigating on the lake. They are living together with the Lake

Among the many characteristics of the Intha people, the hydroponic cultivation farm called Kyun Myaw is unique. It is based on woven water-floating plants like water hyacinth and is covered with soil to cultivate crops. It looks fixed to the bottom of the lake, but it is actually floating freely on the water. The Intha people, who chose over the Lake instead of the land, make Kyun Myaw continuously and now use half of the Lake as their farmland.

The Intha people produce tomatoes that are sold throughout Myanmar in this Kyun Myaw. The Production of tomatoes is one of the largest production in the country. Water plants that sink under the lake and rot provide valuable nutrients to Kyun Myaw, and the sunlight pouring over the Lake makes the tomatoes taste even better. Furthermore, this Kyun Myaw also plays a role in purifying the Lake.



이토록 완벽할 수 있을까, 아난다 사원

: 미얀마에는 사원이 무수히 많은 것 같아.

(왕): 맞아. 사원들이 참 정교하고 웅장하지?

응. 가장 멋진 사원에 날 데려가줘!

아난다 사원은 미얀마의 사원들 가운데 가장 완벽하다고 평가받고 있어.그 이유를 함께 느껴보러 가자.

바간 전역에 건립된 수천 개의 사원 중에서도 단연 최고로 손꼽히는 곳은 아난다 사원(Ananda Temple)이다. 전쟁과 자연재해 등 여러 부침에도 불구하고 옛 모습을 고스란히 품고 있어 바간 사원 건축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건물이다. 아니, 하나의 작품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다. 정사각형 형태의 건물과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뻗은 주랑에서 나타나는 균형미는 완벽 그 자체다.

900년이 넘는 역사에 아무런 일도 없이 멀쩡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970년대에 바간 지역을 덮친 대지진 당시 꽤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다. 다행히 빠르게 복구를 해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아난다 사원의 900 주년을 맞아 첨탑에 황금빛 칠을 했는데,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다. 사원은 1105년, 짠싯타(Kyansittha) 왕의 지시로 지어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무려 900년 이상 이토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리를 지켜 오고 있는 셈이다.

아난다 사원은 완벽한 균형미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동서남북 네 방향에 있는 입구가 곧게 뻗은 주랑을 통해 정사각형 형태의 중앙부 성소 건물로 이어지는 데, 그 끝에 서로 다른 네 개의 불상이 있다. 높이가 무려 9m에 달하는, 대형 부 처상이다.

네 개의 불상은 각각 다른 부처의 모습을 하고 있다. 북쪽 성소에는 까꾸산다 붓다(Kakusandha Buddha, 구류손불), 동쪽에는 꼰냐가마나 붓다(Konagamana Buddha, 구나함모니불), 남쪽에는 깟싸파 붓다(Kassapa Buddha, 가섭불), 그리고 서쪽에는 고따마 붓다(Gautama Buddha, 석가모니불)가 모셔져 있다. 까꾸산다 붓다와 깟싸파 붓다는 멀리서 볼 때는 인자한미소를, 가까이에서는 근엄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으로유명하다. 멀리서 봐야하는 일반인에게는 한없이 인자한 부처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귀족에게는 엄격함을 강조하는 부처를 보여주려는 작가의 의도가담긴 것이란다.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부분이다.

실내는 바간 왕조 이전이었던 몬 왕국 시대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동굴 사원 과도 같은 분위기가 바로 그것이다. 경건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기도 한다. 조명을 어둡게 했고, 적은 양의 햇볕만 스며드는 것처럼 들어올 수 있게 설계했다. 아난다 사원은 이런 성스러운 분위기를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사원이다.





: I think there are countless temples in Myanmar.

You're right. The temples are very sophisticated and magnificent, aren't thev?

: Yes, take me to the best temple!

Ananda Temple is considered the most perfect among the temples in Myanmar. Let's go find the reason together.

Among the thousands of temples built throughout Bagan, the best temple is the Ananda Temple. The temple shows the essence of the architectural art of Bagan temples, as it retains its old shape despite several wars and natural disasters. Actually, it would be more right to see it as a piece of work. The balanced beauty that appears in the square-shaped temple and the four-pronged parvis is perfect.

It is not that it is maintaining its original shape without any incidents in the history of more than 900 years. It was damaged when a big earthquake hit the Bagan region in the 1970s. Fortunately, it has been restored quickly so it is maintaining its current shape. On the occasion of the 900th anniversary of Ananda Temple, the spire was painted in gold, which is quite conspicuous. The temple was built in 1105, under the direction of King Kyansittha, and has maintained to this day. In other words, it has been standing in such a beautiful shape for more than 900 years.

Ananda Temple is characterized by a perfect balance. The entrances of the four directions lead to a square-shaped central sanctuary building, and there are four different Buddha statues at the end. They are large Buddha statues, measuring as high as 9 meters.

The four Buddha statue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Kakusandha Buddha is kept in the north, Konagamana Buddha is kept in the east, Kassapa Buddha is kept in the south, and Gautama Buddha is kept in the west. Kakusandha Buddha and Kassapa Buddha are famous for their gentle smiles from afar and their solemn expressions from close. It contains the intention to show a generous smile of Buddha to the general public who could only see Buddha from afar and Buddha that emphasizes strictness to the aristocrats who can approach Buddha closely. It's more interesting to know.

The interior follows the style of the Mon Kingdoms, before the Bagan dynasty such as the atmosphere of the cave temple. There are also signs of efforts to create a holy atmosphere. It was designed to be dark and allow a small amount of sunlight. Ananda Temple is the best temple to feel this sacred atmosphere.



건물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 **요케소네 수도원**

(1)

: 아니.. 이렇게 정교한 탑과 조각상들이 있다니

: 140여년 정도 된 건축물들이야.

🕟 : 예술 작품을 크게 옮겨놓은 것만 같은데?

: 실제로 목조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내구성이 좋아.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승려들이 오랫동안 수행했던 곳이기도 해서 중요한 유적지로 손꼽히고 있지.

요케소네 수도원(Yoke-sone Kyaung Monastery)은 살레(Sale)에 있는 박물 관이다. 한때 불교 수도원이었던 이곳은 1882년 건설되어 오늘날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건축물이다. 목조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40여 년이나 그 모습을 오롯이 유지하고 있어 미얀마의 건축사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다. 153개의 티크를 사용해 내구성을 높인 점이 돋보이는 순간이다. 미얀마의 마지막 왕, 띠보(Thibaw) 시절에 지었으며, 비교적 최근까지도 그들의 거처로 활용되었다.

요케소네 수도원은 미얀마 불교의 중요한 유적지다. 오랫동안 승려들이 수행한 공간이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눈여겨봐야 할 점은 자카타 (Jakata) 조각이다. 수도원 곳곳에서 불교에 전해져 내려오는 자카타 조각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자카타는 석가모니의 윤회를 다룬 이야기다. 총 547개의 시로 이루어져 있다. 석가모니가 신이나 각 계층의 인간, 새, 짐승, 어류, 용 등등 여러 차례 윤회를 거치며 수많은 덕을 쌓은 결과, 부처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의 전생 이야기 하나하나가 바로 자카타다. 인도의 여러 전설과 신화, 그리고 우화 등을 불교 의 교리에 맞게 수정한 채 전해지던 것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요케소네 수도원에서는 자카타 조각 작품 외에도 승려들이 사용했던 여러 유물을 만나볼 수 있다. 미얀마의 유명 작가인 Sale U Ponnya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며, 그의 작품 또한 이곳에서 전시하고 있다.

요케소네 수도원은 미얀마의 마지막 왕조였던 꼰바웅(Konbaung) 왕조 말기 건축물의 훌륭한 사례로 여겨진다. 이후에 지어진 여러 건축물, 혹은 조각가의 작품보다도 훨씬 섬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각에 등장하는 인물의 표정이 나 자세, 행동 등을 자연스럽게 묘사한 것, 그 안에 위트를 넣었다는 점이 매력 적이다. 퍼즐처럼 조각한 탓에 오랫동안 해석할 수 없었던 조각들도 있다.

요케소네 수도원은 바간에서 이리와디 강을 따라 차량으로 약 1시간 30분을 달리면 만나게 되는 살레 마을에 자리한다. 수도원 하나만 보기 위해 온다고 해도 그 가치가 충분하니 꼭 한 번쯤은 방문해 보자.



THE BUILDING ITSELF IS A WORK OF ART,
THE YOKE-SONE KYAUNG
MONASTERY



: Wow., Such elaborate towers and statues!



: They're about 140 years old.



: It seems like a big transfer of artworks.

: It's a wooden building but it's durable It's keeping its old:

:It's a wooden building, but it's durable. It's keeping its old trace.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historical sites because monks had practiced there for a long time.

The York-sone Kyaung Monastery is a museum in Sale. Once a Buddhist monastery, it was constructed in 1882 and remains the same to this day. Although it is a wooden structure, it has been maintained for as long as 140 years, which is considered important in terms of Myanmarese architectural history. It is noticeable that its durability was increased by using 153 teaks. It was built during the reign of Thibaw, the last king of Myanmar, and has been used as their residence until relatively recently.

The Yoke-sone Kyaung Monastery is an important site of Buddhism in Myanmar.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the place has been used by monks to meditate for a long time, but more important to note is the sculptures of Jakata. There are sculptures of the Jakata passed down in Buddhism throughout the monastery.

Jakata is a story about Sakyamuni's reincarnation. It consists of 547 poems in total. It says that Sakyamuni became the Buddha as a result of numerous virtues after many reincarnations, including gods, humans, birds, animals, fish, and dragons. Every reincarnation story is Jakata. Most stories of Jakata are Indian legends, myths, and fables modified to suit Buddhist doctrines.

In addition to the sculptures of the Jakata, there are various relics used by monks at the Yoke-sone Kyaung Monastery. It is also the birthplace of Myanmarese famous author Sale U Ponnya, and his books are also on display here.

The Yoke-sone Kyaung Monastery is considered an excellent example of the late Konbaung architecture, the last dynasty of Myanmar. It is considered to be much more delicate than the later works of many architects or sculptures. The sculptures in the monastery naturally depict the facial expressions, postures, and behaviors of the figures in the sculptures, and contain wit in them. Some pieces could not be interpreted for a long time because they were carved like puzzles.

The Yoke-sone Kyaung Monastery is located in the village of Sale, which is far from an hour and a half by car from Bagan. Even if you come to see only the monastery, it's worth it, so visit there at least once.



아픈 과거를 넘어 희망찬 미래로

: 미얀마도 아픔이 있는 국가라고 들었어.

: 그렇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기도 했고, 군부 독재가 이어지고 있지.

: 그렇구나. 그 나라에 여행을 간다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이기도 하니까, 꼭 공부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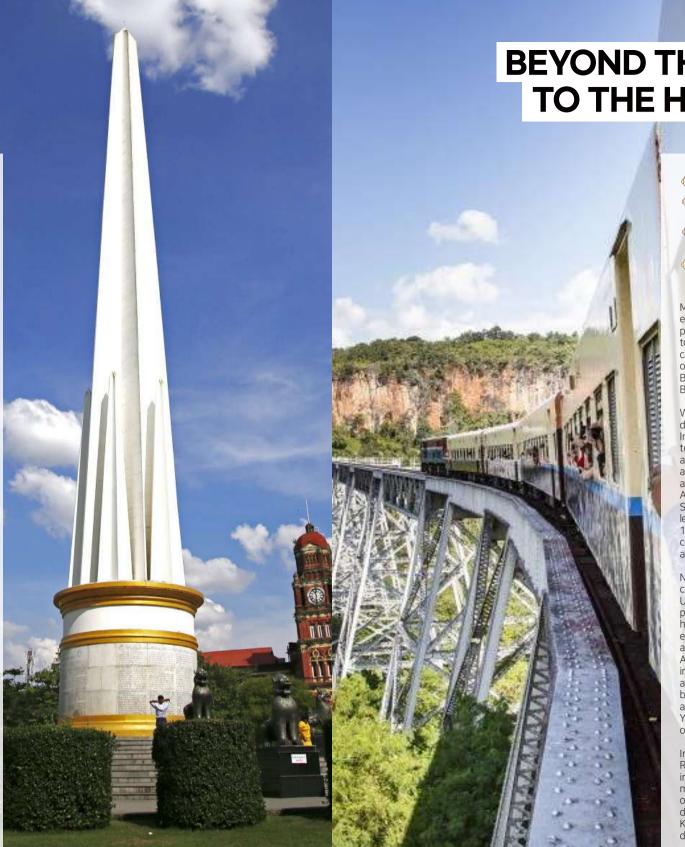
: 자 그럼, 미얀마 여행을 더 즐겁고 유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역사를 알아보자!

미얀마는 버마족과 샨족, 꺼인족, 라카인족 등 약 130여 개의 소수 민족들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다. 이중 버마족이 전체 인구의 70% 정도 차지하며 미얀마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영국은 미얀마를 '버 마'라 부르며 당시 영국령이던 인도의 한 주로 편입시켰다. 또한 다 수 민족인 버마족을 견제하기 위해 이들과 소수 민족들을 따로 분리 해 관리하는 정책을 폈다.

제국주의가 저물어 가면서 미얀마에도 통합적인 민족의식과 자주 독립에 대한 열망이 높아져갔다. 독립운동 단체들은 영국까지 건너 가 미얀마의 자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식민 지배를 반 대하는 시위를 하거나 농민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이 계속되자 1937년에 영국은 미얀마를 인도에서 분리하고 자치권 일 부를 허용했다. 무력 투쟁을 위한 버마 독립군도 조직되었는데 이에 앞장선 인물이 미얀마 독립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아웅산 장군이다. 또한 공산당과 소수 민족들이 자치권을 요구하며 무장 폭동을 일으 키는 등 정치적 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1962년에 네윈이 일으킨 쿠데타로 미얀마에 군부 독재 정치가 시작된다.

쿠데타 이후 장기 집권 체제를 마친 네윈은 1974년에 국호를 '버마 연방사회주의공화국'으로 바꾸고 자신이 당 의장 겸 대통령이 되어 일당 독재를 공고히 한다. 하지만 높은 물가와 부족한 생필품, 열악한 노동 환경, 극단적인 제한 조치들이 이어지면서 독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져갔고 결국 1981년에 네윈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 이런 가운데 1988년 3월부터 양곤대에서 시작된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져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다. 이에 네윈은 당 의장까지 사임하지만 국민들은 8월 8일 민주적인 총선 실시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펼친다. 이를 '랑군의 봄', '8888 민주화 운동'이라 일컬으며 당시 수천 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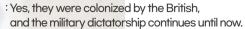
2010년에 군부 정권은 다시 '미얀마연방공화국'으로 국명을 개칭한 후 2011년에 다당제를 표방한 연방의회가 개원하면서 형식상 군정 시대는 막을 내리지만 헌법에는 여전히 군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놓았다. 그럼에도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점점 커져가고 마침내 2015년 총선거에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NLD가 압승하며 실질적인 민주 정부가 수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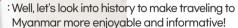


: I heard Myanmar is also a country with pain.





: I see. Traveling to one country is also an interest in that country, so I should study it.



Myanmar is a multiracial country that consists of about 130 ethnic minorities, including the Bamar, Shan, Karen, and Rakhine people. Among them, the Burmese make up about 70% of the total population and form a core group of Myanmar. The British called Myanmar 'Burma' and incorporated it into the province of India, one of the British colonies. To keep the majority of Burmese in check, the government also separately managed Burmese and minorities.

With the end of imperialism, Myanmarese also have a growing desire for integrated national awareness and independence. Independence organizations traveled all the way to Britain to demand Myanmareses autonomy, but when it was not accepted, they staged protests against colonization and an agrarian revolt. In 1937, Britain separated Myanmar from India and allowed some of its autonomy. The Burmese Independence Army for armed struggles was also organized, and General Aung San, who is revered as a hero of Myanmarese independence, led the army. Besides, military dictatorship began in Myanmar in 1962 in a coup by Ne Win, amid deepening political chaos, with communist parties and ethnic minorities calling for autonomy and starting armed riots.

Ne Win, who finished his long-term rule after the coup, changed the name of the country to the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Burma' in 1974 and became the party chairman and president to solidify his one-party dictatorship. However, with high prices, scarce necessities, poor working conditions and extreme restrictions, voices against dictatorship have grown, and Ne Win eventually stepped down as president in 1981. Amid this situation, protests that began in Yangon University in March 1988 spread across the country, leading to massive anti-government protests. Ne Win resigned as party chairman, but people staged a massive protest on August 8 to call for a democratic general election. It is called the 'Spring of the Yangon' and the '8888 Democratic Movement', and thousaneds of people were killed or injured at the time.

In 2010, the military regime renamed itself the "Federal Republic of Myanmar" and opened a multi-party parliament in 2011, ending the era of military government in a formal manner, but still legislated to allow the military to exert influence on the Constitution. Nevertheless, the people's desire for democratization grew and finally the NLD, led by Aung San Suu Kyi, won the 2015 general election, establishing a substantial democratic government.



일상에 깃든 독실한 불교 문화

: 🕝

: 미얀마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가?

(중) : 정답! 미얀마는 국민의 90%가 불교를 믿어. 그래서 불교를 깊게 경험할 수 있지.

🌮 : 그럼 우리 파고다 사원에 들어가서 현지인을 구경하자!

🚮 : 잠깐. 내가 또 준비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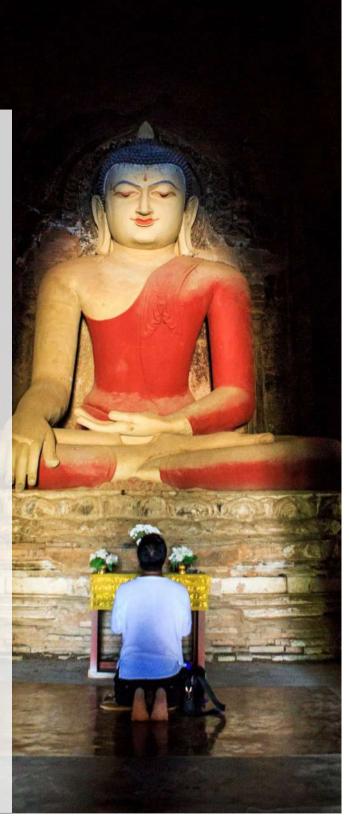
민소매 옷이나 무릎 위 짧은 치마, 반바지 차림은 출입이 제한된다고. 갈아입고 들어 가야해!

미얀마는 국민의 90% 정도가 불교도인 동남아에서 가장 독실한 불교 국가이다. 미얀마 사람들은 일생을 불교적인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살 아간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신쀼의식(Shin Pyu ritual)이다. 미얀마인들은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승려가 되는 체험을 하는데 10 세를 전후한 나이가 되면 머리를 깎고 집을 떠나 사원에서 승려들과 생활하게 된다. 신쀼의식은 가족과 친척들이 모인 가운데 마치 축제처럼 치러진다. 많은 사람들의 격려 속에서 아이는 부처의 삶과 가르침을 배우고 불교 예절을 익히며 불자의 삶에 첫걸음을 떼게 된다. 의식을 마치면 아이는 비로소 참된 한 인간으로 받아들여진다.

미얀마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기원전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불교가 융성하기 시작한 때는 11세기 경 최초의 통일 왕국인 바간이 세워지 면서부터다. 당시 국민을 통합할 수단으로 불교를 택했고 이때부터 불교 문화는 왕실의 보호와 막대한 지원 아래 미얀마 전역에 빠르게 전파됐다. 이후에도 여러 왕조의 지배자들이 정통성을 획득하고자 불교를 적극 장려한 덕분에 미얀마는 동남아 불교의 중심지이자 성 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미얀마 불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따라 참선하며 열반에 이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소승불교이다. 파고다와 사원은 이러한 미얀마 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다. 미얀마에서는 큰 도시는 물론 작은 시골 마을 어디에서나 수많은 파고다와 사원을만날 수 있다. 미얀마 사람들은 틈만 나면 파고다를 찾아 참배하고기도를 드린다.

사원 주변에서는 이른 아침마다 승려들의 탁발 행렬에 쌀과 음식들을 보시하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새벽녘 어슴푸레한 여명속에서 불탑 아래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미얀마에서 자주 마주치는 풍경이다. 미얀마 사람들에게 파고다는 종교적인 공간을 넘어일상 과도 같은 의미다. 가족 나들이나 데이트 명소가 되기도 하고일과를 마친 후에도 사람들은 파고다를 찾아가 하루를 마무리한다. '하루를 사원에서 시작해 사원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일상인 나라가 바로 미얀마이다. 파고다와 사원에 들어갈 때는 신발과 양말을 모두 벗고 맨발로 입장해야 한다. 민소매 옷이나 무릎 위 치마나 반바지차림은 입장이 제한된다.



A devout Buddhist culture in everyday life



Does Myanmar have many Buddhists?

: Bingo! In Myanmar, 90 percent of the peopl believe in Buddhism.

So you can experience $\operatorname{\mathsf{Buddhism}}\nolimits$ deeply.

: Then let's go to Pagoda and Temples to see the loc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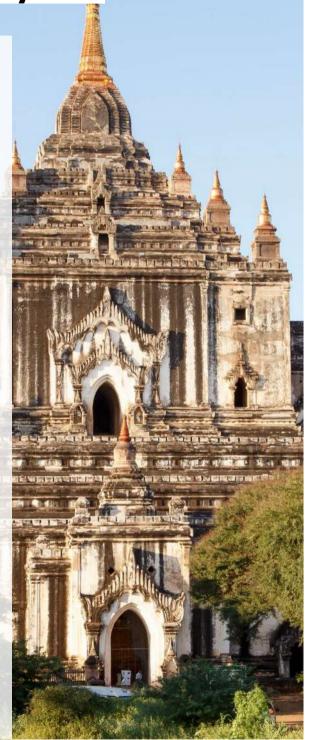
: Wait, I prepared something. Sleeveless clothes, short skirts, and shorts are restricted from entering the temples. You have to change clothes before entering the temples!

Myanmar is the most devout Buddhist country in Southeast Asia, where about 90% of its people are Buddhists. Myanmar people live their entire lives in Buddhist values and culture. It is the Shin Pyu ritual that shows this briefly. Everyone in Myanmar experiences becoming a monk once in a lifetime, and when they are about 10 years old, they leave their homes and live with monks in temples. The Shin Pyu ceremony is held like a festival with families and relatives gathered. With the encouragement of many people, the child takes the first step in the Buddhist iffe by learning the life and teachings of Buddha and Buddhist manners. At the end of the ceremony, the child is accepted as a true human being.

It is known as B.C. that Buddhism was introduced to Myanmar. However, Buddhism began to flourish in the 11th century when the first unified kingdom, Bagan, was established. Buddhism was chosen as a means of unifying the people at that time, and from then on, Buddhist culture was quickly spread throughout Myanmar under the protection of the royal family and massive supports. Since then, Myanmar has established itself as a center and sacred place for Southeast Asian Buddhism, thanks to the active encouragement of Buddhism by kings of various dynasties to acquire legitimacy.

Buddhism in Myanmar is the Theravada Buddhism that considers Zen meditation and Nirvana important in the teaching of Sakyamuni. Pagodas and temples are good places to experience the history and culture of Buddhism in Myanmar. In Myanmar, numerous pagodas and temples can be found in large cities as well as in small rural villages. People in Myanmar visit pagodas whenever they have time to worship and pray.

Around the temple, some people offer rice and food to the procession of religious mendicancy in the early morning. In the thin light of dawn, people praying under the pagodas are often seen in Myanmar. For the people of Myanmar, pagoda means 'everyday' beyond religious place. It can be a family picnic or a date spot, and even after the day is over, people visit pagodas to wrap up the day. Myanmar is the country where it is routine to 'start a day at a temple and end a day at a temple'. When entering pagodas and temples, you must take off your shoes and socks. Sleeveless clothes, skirts, and shorts are restricted.





와일드하게 미얀마 여행하기

: 나 오늘 여행은 활동적인 체험을 하고 싶어!

👀 : 나만 믿어. 호핑 투어, 스노클링, 스쿠버 다이빙 어때?

: 역시 메콩전문가.. 너가 없으면 난 어떡해?

: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

다웨이(Dawei)는 태국과 미얀마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도양 해안 도시로, 미얀마의 남동쪽에 위치한 타닌타이(Tanintharyi)에 있다. 원 래 이 지역은 여행자들이 갈 수 없었던 제한 구역이었다. 이제는 오 픈이 되어, 여행자들도 다웨이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발자국이 덜하고 그만큼 미얀마의 진정한 모습을 느낄 수 있다. 다 웨이에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해변과 시골 어촌으로 가 득 차 있다. 다웨이 도심에서 오토바이나 차를 타고 산을 넘어 해변 으로 향하는 시간은 최소 30분. 가는 길은 비포장 도로에 오르막길 내리막길, 자꾸만 첩첩산중으로 들어가는 것만 같은 낯선 길에 몸 은 지쳐갈 수 있다.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고민하고, 동네 슈퍼마켓에서 달달한 슈 거케인 주스(Sugarcane Juice)도 한잔 마시며 쉬었다가, 그렇게 다 시 또 달리고 달리다 보면, 말도 안 되게 크고 깨끗한 바다에 도착 하게 된다. 만약 다웨이에서 딱 하루만 있을 수 있다면, 가장 가까운 북쪽 해변, 마웅마간 해변(Maungmagan Beach)으로 놀러가 보라. 탁 트인 마웅마간 (Maungmagan Beach)해변은 현지인들도 노을 을 구경하러 많이 오는 곳이랍니다. 그렇지만 메콩은 가능하다면

다웨이와 남쪽에 있는 해변가에서 일정을 나눠 머물기를 추천한다. 여정을 통해 남쪽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운 해변들을 볼 수 있다. 다웨이 남쪽에 있는 5~6개의 해변들은 여느 유명 휴양지와 는 정말 다른 느낌이다. 이곳에는 백사장과 바다, 그리고 여행하는 나 뿐이다. 귀 속에는 끝없이 파도 소리가 담기고, 끝없는 백사장과 끝없는 물결은 당신의 눈 길을 사로잡을 것이다.

A STATE OF THE PARTY OF THE PAR

바다 수영도 좋고 여유롭게 태닝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액티비티한 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다웨이의 아일랜드 호핑 투어는 배를 타고 섬을 돌면서 스노쿨링도 하고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배에 서 점심도 먹는 다이나믹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다웨이에서 차로 약 한 시간 정도를 달려 조그만 어촌 마을에 도착해 배를 타고 더 깊숙이 들 어간다. 같은 바다지만 배를 타고 들어가니, 왠지 바다 색도 더 예뻐 보이고, 프라이빗한 분위기로 한층 더 로맨틱… 바다에서 마음껏 수 영하고, 배 위에서 점심도 먹고, 또 스노쿨링을 하다 보면 어느새 노을 이 진다. 여기 모스코스 섬(Moscos Islands)에서 느끼는 모든 것들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IF YOU ARE INTO A WILD TRIP TO MYANMAR

: I want to have activities on my trip today!

: Trust me. How about hopping tour, snorkeling, scuba diving?

: What a Mekong expert... What am I supposed to do without you?

: Be good when I'm here!

Dawei is a coastal city on the Indian Ocean boarding Thailand and Myanmar in Tanintharyi, in the southeast of Myanmar, Originally, this area was an off-limits to tourists. Now it's open, travelers can visit Dawei! There's less footprints, and you can feel the real life of Myanmar. Dawei is filled with hidden beaches and rural fishing villages that are still unknown. It takes at least 30 minutes from Dawei's downtown to cross the mountain and head to the beach by motorbike or a car. All the way you go is like up and down on an unpaved road. You might wonder 'is this the right way?'. You will be getting tired of the strange way that seems to lead you to a wrong place.

Take a break drinking a sugarcane juice at a local supermarket. And then keep going, you will finally arrive at an incredibly huge and clean sandy beach. If you can stay just one day in Dawei, go to the nearest northern beach, Maungmagan Beach. Maungmagan Beach is a popular place for locals to see the sunset. If possible, Mekong recommends you stay both Dawei and the southern beach. I can tell it's a

tough journey. But the more you head to the southern end, you will see more beautiful beaches. Those five to six beaches in the south of Dawei is just surreal. There's no other popular travel spots like here. There only exists white sand, the sea and just myself alone. The sound of endless waves in your ears, endless white sand, and endless waves in your eye.

It's nice to swim in the sea or tan leisurely. Some people may want to do more activities. Dawei's Island hopping tours take you around the island by boat. You can enjoy snorkeling, scuba diving, and eating lunch on board. It takes about an hour by car from Dawei to a small fishing village and you will be led further away by a boat. We know it's the same sea, but the color of the sea looks more beautiful and romantic with a private, special atmosphere. Swim free, have a lunch on the boat, and enjoy snorkeling as much as you like. Then, the sunset is already set. You will never forget everything you feel here on the island of Moscos.



동화 속을 걷는 **아름다운 시골길**

: 강민, 자연을 느끼며 걸을 수 있는 여행코스가 궁금해!

: 껄로 마을부터 인레 호수까지 약 40km인데, 대표적인 코스야. 어때?

: 40km..? 할 수 있을까?

: 홈스테이 마을에서 쉬어가면 돼. 평화로운 시간 속에 빠져볼까?

산 주에 있는 껄로 마을(Kalaw Village)에서 인레 호수(Inle Lake)까지 이어진 길은 목가적인 전원 풍경과 현지 홈스테이를 체험하는 미얀 마의 대표적인 트레킹 코스다. 야트막한 언덕과 들판을 따라 걷다 보면 동화 같은 풍경이 쉼 없이 펼쳐지고, 꾸밈없는 자연과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잔잔한 감동을 준다. 작은 시골 마을인 껄로에 일 년 내내 여행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껄로에서 인레 호수까지 40km 남짓한 다소 먼 거리이지만 대부분 길이 평탄하고 험난한 구간이 없어 누구나 편하게 트레킹을 즐긴다. 해발 1,000m가 넘는 고산 지대를 가로질러 가기 때문에 날씨 또한 쾌적하고 선선한 편이다.

해가 저물어갈 때가 되면 홈스테이 숙소에 도착한다. 미얀마의 전통 가옥에서 하룻밤 묵어가는 특별한 시간이다. 이곳에서 소박한 미얀마 가정식을 맛보고, 쉼 없이 걷느라 고단했던 몸을 누이며 잠을 청할 수 있다. 다음날은 이른 아침을 먹고 인레 호수까지 남은 길을 천천히 음 미하며 걷는 일정이다. 인레 호수로 이어진 외길에 닿으면 서로 다른 길을 걸었던 여행자들이 다시 재회의 시간을 갖는다.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이 되어 길을 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호숫가 선착장이다. 삼삼오오 보트에 몸을 싣고 종착점인 인레 호수의 낭쉐(Nyaung shwe) 마을로 향하는 길이 꿈결보다 달콤하게 다가온다.

껄로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시포 마을(Hsipaw village)에는 고산족 홈스테이를 체험하는 트레킹 코스가 있다. 고산족인 팔라웅족은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의 전통과 풍습을 지키며 살고 있는 소수 민족 가운데 하나다. 껄로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마을에서 홈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다. 시포 트레킹은 아침에 출발해 늦은 점심 정도면 팔라웅족 마을에 도착하는데 마을이 고산 지대에 위치해 있어 산길을 오르락내리락해야 한다. 팔라웅족 마을에서 하룻밤 묵고 다음날 다시 온 길을 따라 내려오게 된다.

껄로와 시포 마을 안에 트레킹 업체들이 여럿 있으며 보통 4∼6명이 한 팀을 이뤄 가이드와 함께 길을 나선다. 업체마다 트레킹 루트와 일정, 비용 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맞는 곳을 선택하면 된다.

MYANAR

BEAUTIFUL COUNTRY LANE LIKE WALKING IN FAIRY TALES

SkangMin. I'm looking for a travel course I can feel nature while I'm walking!

🎨 : There's a representative course about 40km from Kalaw village to Inle Lake. How is it?

: 40km..? Can I make it?

😮 : You can take a rest in the homestay village. Shall we get into a peaceful time?

The road from Kalaw Village in Shan State to Inle Lake is Myanmar's representative trekking course where visitors can see pastoral rural landscapes and experience local homestays. Walking along the shallow hills and fields, the fairytale-like scenery continues endlessly, and the images of life in harmony with the nature touch our hearts. This is why travelers continue to visit all the year round such a small rural village, Kalaw. It is a long distance of about 40 kilometers from Kalaw to Inle Lake, but most of the roads are flat and there are no rough sections, so anyone enjoys trekking comfortably. The weather is also pleasant and cool because it crosses the alpine region, which is more than 1,000 meters above sea level.

When it gets dark, you will arrive at the homestay accommodation. It is a special time to stay overnight in Myanmar's traditional houses. You can taste simple Myanmarese home-style meals and lie down and sleep. The schedule of the next day is eating early breakfast and walking slowly to Inle Lake. When you reach the single path leading to Inle Lake, travelers who have walked different paths have time to reunite again. If you walk down the road with lighter steps, you will find a lakeside dock. The road to the village of Nyaung shwe of Inle Lake, which is the final destination, is sweeter than the dream.

Located further north than Kalaw, Hsipaw village has a trekking course where you can experience alpine regions' homestay. The Palaung people, the alpine tribe, are one of the ethnic minorities who still live by keeping their traditions and customs without any outside interference. Just like Kalaw, you can experience a homestay in their villages. The Hsipaw trekking starts in the morning and arrives at the Palaung village around late lunch, and the village is located in the alpine region, so you have to go up and down the mountain path. Staying overnight in the Palaung village and come down the road the next day.

There are several trekking agencies in Kalaw and Hsipaw village, and four to six people usually form a team to go on the road with a guide. Each agency has a slightly different trekking route, schedule, and cost, so you can compare them and choose the proper agency for you.

VIETNAM



베트남

수도: 하노이 **언어:** 베트남어

면적: 33.1만km² (2017 FAO)

인구: 9,816만 8,829명 (2021 UN)

종교: 불교 12%, 가톨릭 7% **환율:** 1\$ = 약 23.000동

VIETNAM

Capital: Hanoi

Language: Vietnamese language **Area**: 0.331 million km² (2017 FAO)

Population: 98 million (2021 UN)

Religion: Buddhism 12%, Catholic 7% Exchange rate: 1\$ = 23,000 VND

북부는 아열대성, 남부는 열대몬순의 기후를 가진 길쭉한 나라이다.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라는 명칭처럼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빠른 경제 발전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위기를 맞기도 했다.

비엣족(85.3%) 외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21년 기준으로 인구가 세계 15위에 달할 정도로 많은 편이다.

쌀국수, 분짜, 짜조 등 쌀로 만든 음식을 즐겨 먹는다.

북쪽으로는 중국, 서쪽으로는 라오스 및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동쪽과 남쪽으로는 동해(남중국해)에 면해 있다.

프랑스 식민 지배 기간 동안 계속하여 독립 운동을 벌였고,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일본의 지배를 받기도 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1945년 9월 2일 호치민은 하노이의 바딘 광장에서

베트남의 독립을 선언하고 베트남 민주 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프랑스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제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발발했고, 승리를 거두며 독립하는 듯 했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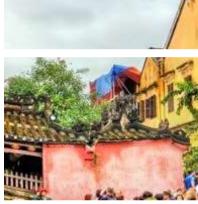
서구 열강들의 개입으로 약 30년 후인 1976년에 진정한 독립을 이루었다.

It is a oblong country with a subtropical climate in the north and tropical monsoon in the south. As the name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t maintains a communist regime and faced a crisis due to inflation following rapid economic development. It consists of 55 ethnic minorities, including the Vietnamese (85.3%), and it's the 15th most populous country in the world. They enjoy eating rice-based foods such as rice noodles, Bun Cha, and Cho Gio. Vietnam borders China at the north, Laos and Cambodia at the west, and the East Sea (the South China Sea) at the east and south. During the French colonial period, Vietnam continued to campaign for independence, and was ruled by Japan during World War II. After the war, Ho Chi Minh declared Vietnam's independence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at Badin Square in Hanoi on 2 September 1945. However, the French refused to accept independence of Vietnam and the First Indochina War broke out, and at that time Vietnam seemed to gain independence with victory, but achieved its true independence in 1976, about 30 years later with the intervention of Western powers.



VIETNAM











베트남 커피가 특별한 이유

: 날씨 때문인지, 갈증이 나는데?



달랏에 왔으니 커피 한잔 하면서 좀 쉴까?



좋아. 난 믹스커피!



: 믹스커피는 잠깐 넣어둬. 달랏은 베트남 최고의 커피를 맛볼 수 있는 곳이야. 따라와!



오.. 연유커피 끝내주는데? 태국의 연유커피 인정!

커피 향 맴도는 힐링 도시 달랏(Da Lat)에 가다

아직 우리나라 여행자들에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달랏은 베트남인들 에게 가장 사랑받는 여행지다. 최적의 온도와 습도, 보랏빛 꽃들과 투명한 공기, 더위를 씻어주는 청량한 빗줄기, 고풍스러운 유럽식 건축물들과 여 유로운 사람들 그리고 베트남 최고의 커피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달랏은 프랑스인들이 만든 인공적인 휴양지였다. 호치민의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원하고 쾌적한 도시를 찾아낸 그들은 호수를 만들고 고급 빌라 를 지었으며 철로를 깔았다. 그리고 커피도 가져왔다. 달란의 자연환경이 커피 재배에 매우 적합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아예 커피 생산지로 삼 기에 이른다.

사실, 베트남이 세계 2위의 커피 생산국이 된 것은 아라비카종보다 맛 이 쓰고 카페인이 강한 대신 병충해에도 강해 쑥쑥 잘 자라는 로부스타종 (Robusta varieties)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전체 수출량의 95%가 로부스 타종인데 대부분 우리가 자주 즐기는 인스턴트커피의 원료로 쓰인다.

그러나 고지대인 달랏은 아라비카종 생산이 충분히 가능한 환경이다. 최 근 달랏 커피 농가들은 커피 고급화에 힘쓰며 베트남 커피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덕분에 달랏 커피는 세계 어디에서도 인정받 는 고급 품종으로 성장하기에 이르렀다.

달랏 곳곳에는 좋은 원두로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독자적인 카페들이 많 다. 실제로 베트남 웬만한 대도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스타벅스조차 달 랏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만큼 베트남 최대, 최고의 커피 산지라는 자부 심과 특유의 매력적인 카페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달랏 교외에는 커피 농장과 체험시설을 겸한 카페도 많다.

그중 한 곳인 메린 커피농장(M Linh Coffee Garden)은 족제비똥 원두로 만든 위즐(Weasel) 커피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부터 귀족들이 즐기던 커피 문화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것이다. 커피 열매 를 먹고사는 사향족제비의 배설물에서 원두를 채취해 깨끗하게 씻은 다음 잘 볶아서 커피를 만드는데 진하면서도 특유의 산미가 있어 비싼 값에도 찾는 이들이 많은 편이다. 참고로 동물을 이용한 커피 재배는 정부의 허가 를 받은 합법적인 농가만이 가능하다.



WHY IS THE **VIETNAMESE COFFEE** SO SPECIAL?



: Maybe because of the weather, I'm thirsty.



: Since we're in Dalat, shall we have a cup of coffee and rest?



: That sounds great. I'll have a cup of mix coffee!



Put the mix coffee in for a while. Dalat is a place where you can taste the best coffee in Vietnam. Follow me!



: Oh, sweetened condensed milk coffee is awesome. Condensed milk coffee in Vietnam is good!

Go to Da Lat, a healing city with scent of coffee

Although it is not yet known to Korean tourists, Da Lat is the most beloved tourist destination by Vietnamese. It is a place where you can meet the best temperature and humidity, purple flowers and transparent air, a raindrop that wash the heat antique European style architectures, leisurely people and Vietnam's best coffee.

Da Lat was an artificial resort created by the French. They found a cool and nice city to escape the heat of Ho Chi Minh City, creating lakes, luxurious villa, and rails. They also brought coffee. They realized that Da Lat's natural environment is well suited for coffee cultivation. they decided to make it a coffee producing area.

In fact, the reason why Vietnam has become the world's second largest coffee producer because it produces Robusta varieties that are tasty and has strong caffeine than Arabica species, but is also strong in insect pests. 95% of exports are Robusta, which is mostly used as a raw material for instant coffee that we enjoy frequently.

However, the Da Lat, which is in the highlands possible to produce Arabica. Recently, Da Lat coffee farmers have been working to break the prejudice against Vietnamese coffee by trying to upgrade their coffee. This has led to the growth of Da Lat coffee as a high-quality species recognized anywhere in the world.

There are many independent cafes in Da Lat that makes specialty coffee. You can't find even Starbucks in Da Lat, which is easily found in Vietnams' most popular metropolises. This is because the country and people have the pride of being Vietnam's largest and best coffee producing countries and authentic cafe culture. There are many coffee plantations and cafes that have tour programs in the suburbs of Da Lat.

One of them is the M Linh Coffee Garden, where you can taste Weasel Coffee made from weasel beans. The coffee culture enjoyed by nobles since the French colony has been handed down to this day. Coffee beans are collected from the excrement of the musk weasel, which feed on coffee beans and then thoroughly wash them clean, and roasted to make coffee. But they are strong and have a unique acidity, so many people enjoy drinking them at high prices. For your reference, only legal farmers with government permission can grow coffee using animals.



전 세계인을 사로잡은 베트남 쌀국수의 매력

(): 베트남 쌀국수를 현지에서 먹게 되다니 너무 행복해.

: 쌀국수에도 종류가 엄청 다양한 것 알고 있니?

: 대한민국에서는 소고기 쌀국수가 가장 대중적이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네. 그냥 다 맛있어!

: 어휴... 그래도 알고 먹어야 더 맛있지! 쌀국수는 육수에 따라, 면의 종류에 따라, 고명에 따라 종류가 나뉜다고. 아마 모든 종류의 쌀국수를 먹으려면 10일은 필요할걸?

베트남 쌀국수 한 그릇을 주문한다. 깔끔한 육수 맛에 당일 아침 막 뽑아온 부드러운 생면의 어우러짐은 그야말로 환상적이다. 거기에 고수를 넣어 국물에 우러나게 하면, 풍미는 극대화된다. 제대로 만든, 고수 넣은 소고기 쌀국수 한 그릇은 예술과 다름없다. 쌀국수는 다양한 변주가 가능한 요리 다. 육수에 따라, 재료에 따라, 지역에 따라 갈래가 워낙 다양해서 정확히 몇 종류나 되는지 헤아리기 어렵다.

닭고기로 만든 깔끔한 쌀국수 퍼가(Pho Ga), 생선과 어묵을 넣어 진한 맛이 일품인 분까(Bun Ca), 중부 지방에서 만날 수 있는 비빔국수 미꽝(Mi Quang), 숯불고기와 함께 소스에 찍어 먹는 분짜(Bun Cha), 면과 고기와 야채와 짜조까지한 그릇에 담아주는 분팃느엉(Bun thit nuong) 등 종류도 다양하다. 쌀국수를종류 별로 한 번씩만 먹어보려고 해도 최소 10번은 쌀국수만 먹어야할 정도다.베트남을 여러 번방문해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셈이다.

이를테면, 달고 기름진 음식 문화가 발달한 베트남 남부 사람들은 '퍼보'를 좋아하는데 소꼬리와 갈비, 사태에 계피, 향료 등을 함께 넣어 오랫동안 우려낸 육수가 특징이다. 담백한 맛을 즐기는 북부 사람들은 '퍼가'를 선호한다. 닭의 고기와 뼈를 푹 고아서 만든 담백한 국물이 일품이다. 해산물로 유명한 나짱 등 중부지방에서는 생선으로 육수를 내기도 한다.

같은 쌀국수라도 북부로 갈수록 면의 굵기가 얇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요리법에 따라 달라지는 면의 종류도 미리 알아두면 편리하다. 베트남 북부, 중부 지역에서 즐겨먹는 하얀 면인 분(Bun)은 쌀로 만들었지만 우리 눈에는 소면에 가깝게 보인다. 하노이 음식인 분짜, 후에 지방의 대표 음식 분보후에 등의 국수가 그 예이다.

퍼(Pho)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쌀국수면이다. 분보다는 면발이 조금 굵고 납작하다. 뜨거운 소고기 육수와 어울리는 식감과 맛을 지니고 있다. 퍼보, 퍼가 등이 있다. 볶음국수나 비빔국수로 만들 때 주로 쓰는 미(Mi)는 노란색의 면으로 약간 라면과 비슷하게 보인다. 중국에서 밀가루에 계란을 넣어 만들던 국수가 베트남에 전해졌다는 유래가 있다. 미꽝(Mi Quang), 미싸오보(Mi Xao Bo)가 그것이다. 고수 먹기가 힘들다면 '콩라우텀', '콩자우무이' 라고 얘기해서 미리 빼달라고 부탁하자.



VIETNAMESE RICE NOODLES THAT ATTRACT PEOPLE AROUND THE WORLD

🤝: I'm so happy to eat Vietnamese rice noodles at the place of origin.

:Did you know that there are so many different kinds of rice noodles?

💮 : I'm afraid not. Is it because beef rice noodles are prevalent in Korea? All the rice noddles are just delicious!

Whew...It's even more delicious to know and eat! Rice noodles are divided according to broth, noodle, and garnish. Maybe you need 10 days to eat every kind of rice noodles.



Order a bowl of Vietnamese rice noodles. The combination of the clean broth and soft raw noodles that have been just made in the morning of the day is simply fantastic. When coriander is added to the broth, the flavor is maximized. A bowl of properly made beef rice noodles with coriander is just like an art. Rice noodles are a dish that can be varied in many ways. Depending on the broth, depending on the ingredients, and depending on the region,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exactly how many kinds of branches there are.

A neat rice noodle 'Pho Ga' made of chicken, 'Bun Ca' with fish and fish cake, 'Mi Quang' of the central district, 'Bun Cha' with charcoal-grilled meat, and 'Bun thit nuong' that is served with noodles, meat, vegetables, and 'Cho gio'. Even if you try to eat rice noodles only once in each type, you have to eat rice noodles at least 10 times. This is why you have to visit Vietnam several times.

For example, people in southern Vietnam, who have developed a sweet and greasy food culture, prefer 'Pho Bo', which is characterized by a broth that has been brewed for a long time with cow tails, ribs, cinnamon, and spices. Northern people who enjoy a light taste prefer 'Pho Ga'. The broth made by brewing chicken and bones is excellent. In the central regions, such as Nha Trang, which is famous for seafood, the broth is brewed with fish.

Even the name of rice noodle is same, noodle strips tend to get thinner as the location of region goes north. And it is useful to know the type of noodles that vary depending on the recipe in advance. Bun, a white noodle popular in northern and central Vietnam is made of rice, but it looks close to thin noodles to our eyes. Noodles such as Bun Cha, Hanoi food, and Bun Bo Hue, the representative food of Hue province, are examples.

Pho is the rice noodle that we commonly know. The noodles are a little thicker and flatter than Bun. It has a texture and taste that go well with hot beef broth. There are Pho Bo, Pho Ga, etc. Mi, which is usually used to make stir-fried noodles or spicy noodles is a yellow noodle that looks a little similar to ramen. It is said that noodles made by putting eggs in flour in China were handed down to Vietnam. There's Mi Quang, Mi Xao Bo.

If it's hard to eat coriander, let's say 'Khong An Rau Thom' and 'Khong An Rau Mui' and ask them to take it out in advance.



여긴 어디야.? 마치 겨울왕국의 마법이 풀린 대자연을 보는 것 같아

이곳은 풍냐께방 국립공원! 현재까지 300개 이상의 동굴이 발견되었는데 아직도 조사하지 못한 지역이 남아있다고 해. 아시아의 유니콘도 여기서 발견되었다구!

: 설마 사올라를 말하는거야? 뿔이 달린 소도 아닌 사슴도 아닌 그 동물?

베트남 중부, 라오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꽝빈성에는 대자연의 신비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풍경이 펼쳐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 고도 거대한 카르스트 지형을 품은 원시림 지대, 퐁냐께방(Phong Nha-Ke Bang) 국립공원이 그곳이다. 이곳의 자랑인 카르스트 지형은 약 4천만 년 전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다.

세계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환경이기에, 당연하게도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면적만 해도 123,326ha, 주변 완충 지역 까지 포함하면 무려 220,055ha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다. 국립 공원 내에 숲이나 늪지대, 열대 밀림과 사바나 등 다양한 형태의 자연환경 이 펼쳐져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거대한 석회암 동굴이 지하에 광범위히 게 이어져 있다는 것이다.

퐁냐께방 국립공원 내 카르스트 지형 아래에는 현재까지 300개 이상의 동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9년 조사에서 발견한 동굴의 총 길이 가 126km에 달했지만, 아직도 모든 지역을 조사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곳에 얼마나 큰 규모의 동굴 지대가 펼쳐져 있을까.

퐁냐께방 국립공원은 다른 곳에서는 쉬이 볼 수 없는 동물들이 서식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두크랑구르원숭이가 대표적이 다. 그와 가까운 친척 관계에 있는 하틴랑구르원숭이는 퐁냐께방 국립공 원 내에서만 서식하는 종이다.

사올라(Saola)라는 이름의, 완전히 새로운 종의 포유류가 발견되기도 했 다. 사슴이나 오릭스처럼 생긴 모습을 하고 있는데, 길고 날카로운 뿔을 달 고 있는 게 특징이다. 아시아의 유니콘이라고 불리기도.

베트남 정부와 유네스코는 이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인다. 동굴 지대와 주변 숲을 모두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경계선 내부의 산림 자 원과 생물 다양성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보존, 연구하고 있다. 국립공원 부 지의 대부분은 엄격하게 관리하는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일부 구역 에서는 투어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도 한다.

🦃 : Where are we? It looks like Mother Nature out of the movie 'Frozen' where all the spells are removed.

: This is Phong Nha-Ke Bang National Park! More than 300 caves have been discovered so far. but there are still areas that have not been investigated. Asian unicorns were also found here!

: Are you talking about Saola, not a cow, not a deer, but has horns?

: Yes, vou're right.

In Quang Binh Province, which borders central Vietnam and Laos. There is a landscape where you can see the mystery of nature with your own eyes. Phong Nha-Ke Bang National Park is a wildwood with the world's most beautiful and enormous karstterrain is there. The pride of the karst landscape began to form about 40 million years ago, which is one of the oldest in Asia.

Unsurprisingly, it has been designated as a World Heritage Site by UNESCO, because it is an environment that cannot be easily seen anywhere in the world. It's such a huge scale that the entire National Park covers 220,055ha, and designated area alone takes up 123,326ha of total area. Within the national park, there are various types of natural environments such as forests, swamps, tropical jungles and savanna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huge limestone caves are extensively connected underground.

There have been more than 300 caves below the karst topography in Phong Nha-Ke Bang National Park. Although the total length of the cave discovered in the 2009 survey was

126km, it is said that not all areas have been examined yet. How large is the cave area spread out here?

A Unique Forest Ecosystem

Phong Nha-Ke Bang National Park is also famous for animals that cannot be easily seen anywhere else. A case in point is the Douc Langur, which is endangered. The closly related Hatinh Langur is a species that lives only in Phong Nha-Ke Bang National park. Also, a completely new species of mammal, named Saola has been discovered. It looks like a deer or a duck, which is characterized by a long, sharp horn. It is also called the Asian unicon.

The Vietnamese government and UNESCO make great efforts to preserve the area. Both the cave area and the surrounding forest are designated as national parks, further systematically preserving, and studying forest resources and biodiversity within the boundary lines. Most of the national park's sites are set up as strictly controlled areas, but tour programs are also run in some areas.





:

: 지금 우리의 가이드북이 메콩강을 지나오는 순서인 것 알고 있었니?

: 뭐라고? 익현이 너 오늘 좀 멋진데?

🌍 : 하하! 동남아여행은 어딜 가든 메콩강을 만날 수 있거든. 메콩강은 주변 여러 국가의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이 되어주고 있어.

🌃 : 좋아. 메콩강에 대해 공부해서 내가 접수하겠어!

살아 있는 강의 도시들

파리의 세느강, 런던의 템스강, 인도 바라나시의 갠지스강, 서울의 한강까지. 번화한 모든 도시에는 반드시 그 도시를 대표하는 강이 있다. 강은 도시와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근원이 되어준다.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메콩강을 비롯해. 베트남의 여러 강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우리가 동남아시아에 가게 된다면 어딜 가든 메콩강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미안마에도, 태국에서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도, 캄보디아에서도, 베트남 남부의 메콩 델타까지. 그 다양한 풍경이 모두 하나의 강줄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메콩강은 거대하고 품이 넓다.

총 길이가 무려 4,200km나 되는데 우리나라의 남북 길이가 약 500km 내외라는 걸 생각하면 강줄기가 얼마나 길게 뻗어나가는지 알 수 있다. 티 벳 고원에서 시작된 강줄기는 중국의 윈난성,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 아, 베트남을 따라 내려오면서 폭과 깊이를 더해 가다 남중국해로 빠져나 간다. 강 하류에 위치한 베트남 남부의 메콩 델타는 엄청난 기세로 흐르는 메콩강이 형성한 충적평야 지대로 아홉 개의 강줄기가 마치 용을 형상화한 것 같다 해서 구룡(Cuu Long)이라고도 부른다.

강이 단순한 도시의 배경이 아닌, 그 자체로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다가오는 이유다. 메콩강은 살아 있다. 여기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의 활기가 곳곳에 묻어있다. 고기 잡는 어부가 있고, 수많은 배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사람을 실어 나른다. 남부 껀터 지방의 거대한 수상 시장에 가본 이라면 메콩강 자체가 하나의 도시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메콩 델타 지방

에서만 베트남 전체 쌀생산량의 60%가 생산된다 하니, 생명의 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호이안에서 만난 투본강의 진짜 매력

투본강(Thu Bon River)은 베트남 중부 꽝남성 일대에 흐르는 대표적인 강이다. 꽝남성과 꽝응아이성의 경계에서 발원된 강은 약 200km를 구불구불 흐르는 동안 토지가 비옥해지도록 돕고, 많은 베트남 사람들의 삶터가되어준다. 호이안은 그런 투본강의 하류에 위치해 있어 세찬 물살에 의해여러 개의 섬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난 물길을 따라 많은 이방인들과 새로운 문물과 이국의 문화가 오가면서 이토록 매력적인 호이안의오늘이 완성된 것이다.

고도의 아름다움을 품은 향강

후에를 관통하며 흐르는 향강(Perfume River) 또한 매력적인 강이다. 향 강을 기준으로 서쪽에 왕궁이 있는 구도심, 동쪽에 신도심이 자리하고 있다. 가을이 되면 강 상류에서 떨어진 꽃이 강물 위로 떠내려와 향기를 내뿜는다하여 '향기로운 강'이라는 의미의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예쁜 이름만큼이나 왕궁을 안락하게 감싸고돌며 유유히 흐르는 강변 풍경은 고도의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배가시켜준다. 해질녘이면 향강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목조 유람선들이 떠다닌다. 전통 음악을 연주하는 악단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강물 위에 소원초(wish candle)도 띄울 수 있다.

: Did you know that our guidebook is now in the order of crossing the Mekong River?

: What? Ikhyun, you look intelligent today.

Haha! You can meet the Mekong River wherever you go on a trip to Southeast Asia.

The Mekong River is a living foundation for people in many countries around it.

(i) Okay. I'll study about the Mekong River and take over!

Living Riverside Cities

The Seine River in Paris, the Thames River in London, the Ganges River in Varanasi, India, and the Han River in Seoul. Every bustling city must have a river that represents it. Rivers are the source of cities and people's existence. There are stories about several rivers in Vietnam, including the Mekong River, which represents Southeast Asia.

If we go to Southeast Asia, we will able to see the Mekong river wherever we go. To Myanmar from Thailand to the Laos border from Cambodia to the Mekong Delta in Southern Vietnam. The Mekong river is enormous and wide enough not to be able to believe that all these diverse landscapes originate from the single river.

The total length is 4,200 kilometers and considering that the length of the north and south Koreas is about 500 kilometers, we can see how long the river stretches. Starting from the Tibetan Plateau, the river flows down China's Yunnan Province, Myanmar, Laos, Thailand, Cambodia, and Vietnam, adding width and depth to the South China Sea. Located in the lower part of the river, Mekong Delta in southern Vietnam is an alluvial plain formed by the Mekong River, which flows with great momentum and is also called Cuu Long because the nine river streams seem to resemble dragons.

This is why the river is not just a background of the city, but a creature of its own. The Mekong River is alive. The energy of the people who make a living here overflows everywhere. There are fishermen who catch fish, and countless ships carry people across the border. If you have been to a huge water market in the southern Can Tho region,

you will agree to the Mekong River itself as a city.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it is the land of life, as it is said that 60% of Vietnam's total rice produced only in the Mekong Delta.

The true charm of the Thu Bon River in Hoi An

The Thu Bon River is a representative river flowing in the area of Quang Nam in central Vietnam. The river, which originated at the border of Quang Nam province and Quang Ngai province helps to fertilize the land while it winds about 200km and serves as a living place for many Vietnamese. Hoi An is located on the lower side of the Thu Bon river and is divided into several islands by the strong current. And along the waterway between them, many strangers, new civilizations and exotic cultures flow back and forth, completing this charming Hoi An today.

Extreme beauty, the Perfume River(Huong River)

The Perfume River flowing through Hue is also attractive. Based on the Perfume River, there is an old city center with a royal palace in the west and a new town in the east. In autumn, flowers from the upper part of the river float and exude scent, so it is said to have been 'Perfume River'.

As much as its pretty name, the riverside scenery, which surrounds and flows comfortably around the palace, doubles the highly lyrical beauty. At sunset, wooden cruise ships float where you can enjoy the scenery of the Perfume River. You can also float wish candles on the river while listening to the music of the band which playing traditional music.



멈추어 버린 시간, 호이안의 고택들

베트남을 여행하다보니 옛 모습이 궁금해졌어.

베트남의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장소들이 있는데, 가볼래?

응, 좋아. 역시 넌 모르는 게 없구나.

충분한 사전 조사는 나를 더욱 성장시키지 호이안은 과거에 번성했다가 19세기에 들어 점차 쇠퇴하기 시작한 도시로, 19세기 이전에 지어진 멋진 건물들을 둘러볼 수 있어. 그 시대의 유행을 확인할 수 있지.

떤끼(Tan Kv) 고택

약 2세기 전에 호이안에 살았던 베트남인 가족이 지은 집이다. 현재까지 그 가족이 대를 이어 살고 있으니, 무려 7대에 걸쳐 보존하고 있는 집인 셈이다. 당시 호이안에는 각자의 영역을 구축하고 살았던 중국인과 일본인 집단이 있었는데, 이 집은 그들에게서 영향을 받았다. 일본과 중국의 건축 양식이 섞 인 모습을 건물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장은 일본 스타일, 지붕은 중국 스타일, 기둥에는 중국어로 쓰인 시 구절 등등이 대표적이다. 발코니를 만들 때 쓴 재료는 유럽에서 들여온 것이라고 하니, 당시 호이안에 어떤 나라의 배 들이 오고 갔는지를 가늠해 볼 수도 있다. 집 구석구석 숨어 있는 디테일을 찾아보자. 하나의 작품이라고 할 만큼 훌륭한 수준이다.

풍홍(Phung Hung)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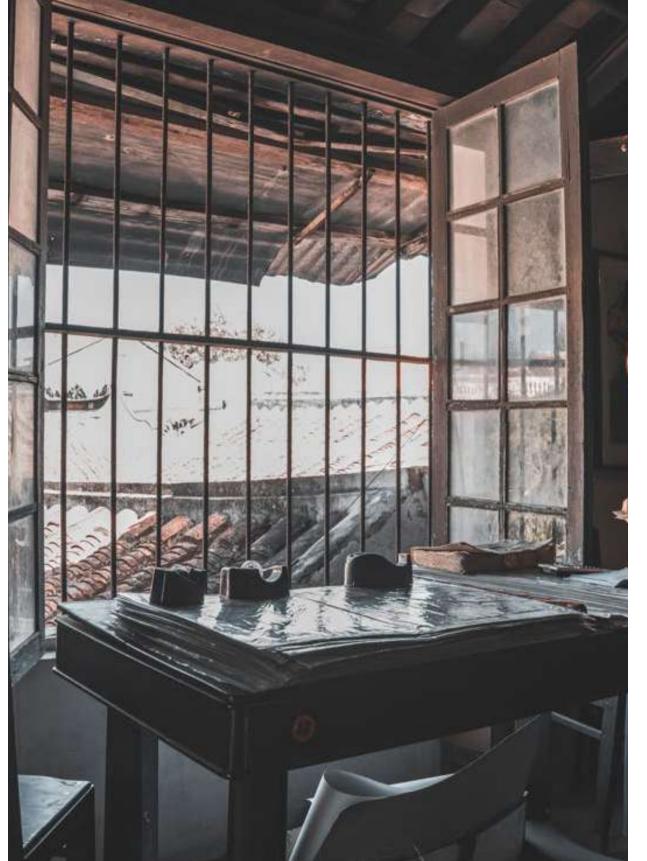
풍흥의 집은 1780년대에 지은 건축물이다. 외관은 19세기 호이안에서 유행했던 스타일을 고스란히 답습했다. 아마 외관을 리모델링한 적이 있 는 듯하다. 전반적으로 목조 건축물이며, 2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 스타일의 지붕과 중국 스타일의 지붕이 혼재되어 있다. 떤끼 고택과와 마 찬가지로 베트남, 일본, 중국의 건축 양식이 조합된 모습이다.

감성적인 등불과 벽걸이 장식, 자수로 꾸며진 현관이 매력적이다. 내부에 는 기도를 올리는 제단도 갖추고 있다. 원래는 호이안에서 꽤 잘 나가는 상 점이었다고 한다. 계피와 후추, 소금, 실크, 도자기, 유리 제품을 주로 취급 했다고. 최근에는 수공예 자수를 하는 작업장으로 활용된다.

콴탕(Quan Thang) 고택

떤끼 고택, 풍훙의 집과 마찬가지로 콴탕 고택 역시 18세기에 지은 건물이 다. 처음에는 중국인 선장이, 그다음에는 호이안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상 인이 소유한 건물이었다고, 건물의 이름은 첫 번째 소유자였던 콴탕(Quan Thang)의 이름을 땄단다

콴탕 고택은 물건이 오가는 거래소이자, 여관으로 사용된 건물이었다. 중 국의 건축 양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곳곳에 독특한 요소가 많다. 우선, 앞뒤로 길게 이어지는 건물 형태를 눈여겨볼 만하다. 정문은 응우옌 타이 혹 스트리트(Nguyen Thai Hoc Street)로, 후문은 트란 푸 스트리트(Tran Phu Street)와 이어진다. 건물은 비즈니스 공간, 생활 공간, 예배 공간 등 총 세 가지 구획으로 나뉘는데, 각각 고유한 특징이 있으며, 섬세하게 꾸며 져 있기도 하다.



FROZEN IN TIME, THE ANCIENT HOUSES

: As I traveled to Vietnam. I became curious about the traces of Vietnam.



There are some places that keep the old traces of Vietnam, do you want to go?



😜 : Yes, sure. You know everything.



Sufficient preliminary research makes me grow even more. Hoi An is a city that flourished in the past and gradually began to decline in the 19th century. So you can see the wonderful buildings built before the 19th century. We can see the trends of that time.

Tan Kv House

It was built about two centuries ago by a Vietnamese family who lived in Hoi An. The family has been living there for 7 generations and preserved by them. At that time, there were groups of Chinese. and Japanese living in Hoi An, which were influenced by them. You can also see a mixture of Japanese and Chinese architectural styles throughout the building. The celling is Japanese style, the roof is Chinese style, and the pillars are Chinese style and so one. The materials used to make the balcony were brought from Europe. So it can be estimated which country's ships came and went to Hoi An at that time. Let's find the hidden details in every corner of the house. It is excellent enough to be called piece of work.

Phung Hung Ancient House

Phung Hung Ancient House was built in the 1780s. The exterior is a style that was popular in the 19th century in Hoi An. Perhaps the exterior has been remodeled. Overall, it is a wooden building and consists of two floors. It has a mix of Japanese-style roofs and Chinese-style roofs. Like the Tan Ky House, the architectural structure of this house highlights the blend of Vietnamese. Japanese and Chinese styles.

The entrance hall is decorated with emotional lanterns, wall hangings and embroidery. Inside, there is an alter to pray. Originally, it was a quiet popular store in Hoi An. They usually sold cinnamon, pepper, salt, silk, ceramics, and glass products. Recently, it has been used as a workshop for handcraft embroidery.

Quan Thang Ancient House

Just like the Tan Ky House and Phung Hung Ancient House, Quan Thang was built in the 18th century. It was owned by a Chinese captain at first and then by a merchant who bought and sold goods in Hoi An. The building was named after the first owner, Quan Thang.

The Quan Thang Ancient House was used both as a trading place and an accommodation. It has the architectural style of Chinese and there are many unique elements everywhere. First of all, it is worth paving attention to the shape of the building that runs long back and forth. The main gate is Nguyen Thai Hoc Street and the rear gate is connected to Tran Phu Street. The building is divided into three sections: a business space, a living space and a worship space. Each of space has its own uniqueness, and is delicately decorated.



깊은 정글 속에서 발견된 참파의 유산

: 여기는 무슨 유적지일까?

: 베트남과 끝까지 맞서 싸우다가 베트남에 흡수된 참파라는 나라의 유적지야.



: 참파가 힌두교를 믿었었나봐. 저쪽에 저 사원 힌두교 사원 아닌가?



: 맞아, 과거 인도로부터 힌두교의 문화가 베트남에 건너왔어. 그래서 이 사원 곳곳에 힌두교 신화가 묻어있지. 한때 수도였던 곳이다 보니 중요한 유산이 많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재돼있더라고.

베트남 땅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왕국이 하나 있다. 베트남이 인도차 이나반도의 동쪽을 평정할 때까지 맞섰던, 참파(Champa)라는 나라다. 참파 는 2세기 말부터 17세기 말까지 현재의 베트남 중부 지역에서 남부까지 영 향력을 미쳤던 국가로, 인도네시아계 참족이 주를 이루는 집단이었다. 인도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 동남아시아의 힌두교 문화권을 대표하기도 했다.

베트남은 오랜 전쟁 끝에 참파를 정벌했고, 한때 강성했던 이들은 이제 베트 남 남부의 작은 소수민족 집단으로만 남아 있다. 그들의 유산은 수세기에 걸 쳐 방치되었고, 파괴되었다. 그런 줄로만 알았다.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기 억 속에서 참파에 관한 이야기는 점점 사라졌다. 불과 100여 년 전, 프랑스 탐험가가 깊은 정글 속에서 한 유적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꽝남 주 남쪽에 있는 미선 유적지(My Son Sanctuary)는 참파 왕국의 대규 모 사원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곳이다. 4세기에 인도 힌두교로부터 건너온 독특한 문화가 베트남 해안가에서도 발전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곳에는 인상적인 유적지가 약 70여 기 정도 남아 있다. 힌두교 사원이다. 학자들은 4세기 말 참파 왕국의 바드라바르만(Bhadravarman) 왕이 시바의 목조 사당을 지으면서 미선 유적지의 모습이 갖추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 고 있다. 짧은 시간 내에 건설한 게 아닌, 거의 900여 년간 차례로 지어진 건 축물들이라는 뜻이다.

현재 남아 있는 것들은 8~13세기에 지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당시 참파 에게도 상당히 중요했을 유적이 다수를 차지한다. 지금에야 버려지고 방치 된 탓에 상당 부분 낡은 모습이지만, 참파 왕국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곳을 중 요하게 여겼는지, 이들의 국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다.



THE LEGACY OF THE **CHAMPA KINGDOM** IN THE DEEP JUNGLE



: What kind of historical site is this?



: It is a historical site of a country called Champa that was absorbed into Vietnam after fighting Vietnam till the end.



🙃 : I guess Champa believed in Hinduism. Isn't that the Hindu temple over there?



Right. Hindu culture has come to Vietnam from India in the past. So there are Hindu myths all over this temple. It was once the capital city, so there are many important heritages. It's also list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In Vietnam, there is a Kingdom that disappeared into the back of history. It is a country called the Champa, which fought until Vietnam conquered the eastern part of the Indochina peninsula. Champa was a country that had influence from the present central region to the southern part of Vietnam from the end of the 2Nd century to the end of the 17th century. It was influenced by Indian culture and represented the Hindu culture in Southeast Asia.

Vietnam has defeated the Champa after a long war, and those who were strong are now remain only a small minority group in southern Vietnam. Their heritage has been neglected and destroyed over. This is the story that everybody knew. Throughout the history, the story of the Champa gradually disappeared in people's memories. Until Just over 100 years ago, before a French explorer discovered a relic in a

My Son Sanctuary, south of Quang Nam province is the site of a large temple in the Champa Kingdom. This proves that the unique culture that came from Hinduism in India in the 4th century also developed on the coast of Vietnam

There are about 70 impressive historical sites remain here. They are Hindu temples. Scholars believe that at the end of the 4th century, King Bhadravarman began to built a wooden shrine in Shiva and site began to be shaped. This means that the buildings were constructed in almost 900 years, not in a short period of time.

Most of the remains had been built from the 8th to 13th centuries. there are many relics that would have been guite important for the Champa. It looks old now because it has been abandoned and neglected, but it is enough to guess how long the Champa Kingdom has valued it and how much their national power has been.





카이딘 황제와 응우옌 왕조의 쇠퇴

(MEH

:베트남 국민들은 자주성이 강한데, 왜 그런지 알아?

(글쎄.. 그런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정답. 대한민국도 일본의 식민 지배를 겪었듯이, 베트남도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어. 그리고 베트남에는 프랑스의 지배에 맞서 싸운 왕조가 있지.

🍻 : 아 얼른 이야기해줘! 궁금해!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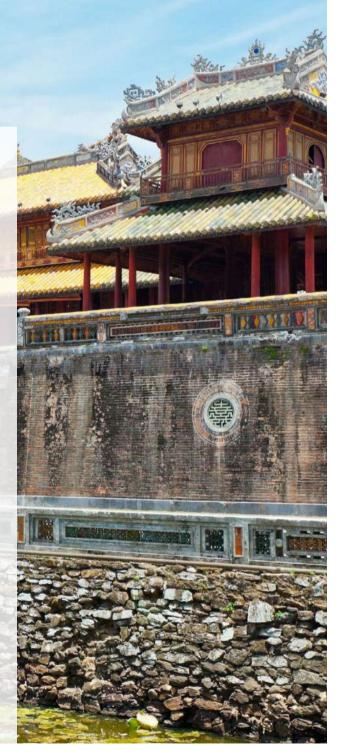
응우옌 왕조(Nguyen Dynasty)는 베트남의 마지막 통일 왕조이자, 최대 규모의 왕조였다.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 떠이선 왕조를 무너뜨렸고, 북부 지방을 합쳐 통일을 이룩했다. 이들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한 채 속국으로 전략한 참파 왕국을 멸망시켰으며, 캄보디아를 속국화하는 등 19세기 인도차이나반도의 패자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내부의 정치적인 상황을 정리한 프랑스의 손길이 베트남에 미치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 성장했기에, 그들의 내정간섭은 어찌 보면 예정된 수순이었다. 응우옌 왕조는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고, 식민 지배를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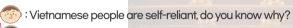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났다. 20세기 초에 이르러 전 세계를 무대로 한 서구열강의 파워 게임은 더욱더 거세졌고, 이미 오랫동안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아온 응우옌 왕조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이름뿐인 황제가 연달아 즉위했다. 제국은 제국이 아니었다. 1916년, 카이딘 황제가 즉위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카이딘(Khai Dinh) 황제는 응우옌 왕조의 12대 황제다. 그는 프랑스의 도움을 받지 않는, 자주적인 국가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명예를 회복하고 옛 명성에 걸맞은 나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몇 년후인 1919년, 그는 칙령 하나를 발표했다. 베트남의 공식 언어로는 베트남어 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게 그의 거의 유일한 업적이다시피했다. 그게 업적이라면 말이다.

세계는 이미 베트남을 프랑스의 식민지라고 여겼다. 베트남이 어떻게 이야기 하는 중요치 않았다. 카이딘 황제도 마찬가지였다. 앞에서는 자주적인 나라를 내세웠지만, 프랑스와 여러 방면으로 협력을 하고 있었다. 결국, 응우옌 왕조 는 끝까지 외세에 휘둘리다가, 다음 황제인 바오다이에서 멸망하고 말았다.



A Decline of Emperor Khai Dinh and The Nguyen Dynasty.



: Well...There must be a momentum, right?

Correct. Just as Korea experienced
Japanese colonial rule, Vietnam was also colonized
by France. And there is a dynasty in Vietnam
that fought against French rule.

Oh, come on, tell me! I'm so curious!

The Last Dynasty of Vietnam

The Nguyen Dynasty was Vietnam's last unification and the largest dynasty. With the support of France, they toppled the Tay Son Dynasty and combined the northern provinces to achieve national unity. They became a ruler of the Indochina Pen in the 19th century, destroying the Champa kingdom which had fallen into a subordinate state leaving behind the glory of the past, and subjugating Cambodia.

However, France's efforts to sort out internal political situations have begun to affect Vietnam. Since they grew up with the support of France, their intervention in internal affairs were in a way to scheduled procedure. The Nguyen Dynasty was influenced by France and was came under colonial rule.

A decade later, by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he power game of the Western powers on the global stage became more and more intense and the Nguyen Dynasty, which had been under French Colonial rule for a long time was on a path of decline. The titular emperors were crowned in a row. It was not empire anymore. It was until 1916, when Emperor Khai Dinh was crowned

The Emperor Khai Dinh was the 12th emperor of the Nguyen Dynasty. He thought that he would create an independent state without the help of France. He pledged to make an effort to restore its fame and be reborn as a country worthy of its old fame. A few years later, in 1919, he issued an edict. It was said that the only Vietnamese should be used as the official language of Vietnam. That was the only achievement for him. If that's an achievement.

The world has already considered Vietnam as a colony of France. It didn't matter to them how Vietnam insisted. So did the Emperor Khai Dish. It seemed like an independent country in the front, but he was cooperating with France in many ways. Eventually, The Nguyen Dynasty was influenced by foreign powers until the end, and finally destroyed during the next emperor Baodai.





여행 갈 때 알아두면 좋을 베트남 전쟁 이야기

:우: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윌남전 참전용사셨는데, 정말 참혹했다고 하시더라.

: 그러셨구나. 베트남의 땅을 밟으니 감회가 참 새롭다.

: 그러게, 베트남 사람들은 월남전에 대해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 저기를 봬 전쟁박물관 같은데?

낯선 도시를 여행할 때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좀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베트남 전쟁은 우리나라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근현대사의 한 장면이다. 베트남 여행전 알아두면 좋을 베트남 전쟁 이야기를 모아보았다.

호찌민과 베트남 전쟁

20세기는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격변기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베트남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호찌민(Ho Chi Minh)이다. 응우옌 아이 꾸옥, 리 투이 등 약 160여 개에 달하는 가명을 사용하며 세계 곳곳에서 활약했던 그는 일평생 베트남의 독립을 위해 싸웠다. 최초로 베트남 공산당을 창설하는가 하면 유명무실했던 응우옌 왕조의 황제 바오다이를 폐위시키고 독립을 선언했다. 특히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인도차이나 전쟁을 감행했고, 이후 미국, 소련이 가담해 베트남 전쟁이 벌어지자 북베트남군의 최고 지휘관으로도 활약했다.

안타깝게도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9년 9월 2일, 그토록 염원하던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숨을 거둔 호찌민. 아직까지도 20세기 아시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저명한 사회주의 리더로 기억되고 있다.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사이공은 '호찌민시티'로 명칭을 바꾸었고, 호찌민이 베트남의 독립을 선언했던 하노이 바딘 광장에는 그의 묘소가 자리해 있다.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

1965년 10월 22일. 한국 맹호부대가 베트남 퀴논 항에 입성한 날이다. '한국 전쟁에 참전한 우방국(미국)에 보답하기 위해', '베트남 전선은 한국 전선과 직결되어 있다' 등의 명분으로 파병을 결정한 한국 정부. 1973년까지 약 8년간, 비둘기부대, 청룡부대, 백마부대 등 무려 30만 명이 넘는한국 군인을 베트남에 파병했다. 이는 50만 명을 파병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숫자다. 한국군은 대대급 이상 작전 100여 회, 소부대작전 57만여 회를 통해서 우수한 전과를 올렸으나 전사자 5천명, 부상자 2만명이라는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했다.

미국이 패배한 유일한 전쟁

예상보다 길어진 전쟁 기간과 심각한 병력 손실 등으로 미국 내에서 반전 여론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결국 1968년부터 미국과 북베트남 사이에 휴전 협상이 시작되었다. 1971년 미군이 베트남 전선에서 철수하기 시작한 뒤로도 한국군은 2개 보병사단을 비롯한 3만7천여 명의 전투 병력을 두었는데, 이는 참전국 중 가장 많은 숫자였다고 한다.

1973년 파리 휴전 협정 이후에야 한국군의 완전 철수가 이루어졌다. 이후 1975년 북베트남의 대규모 공세로 수도 사이공이 함락되고 즈엉반민 대통령이 항복하면서 기나긴 베트남 전쟁은 끝이 났다. 미국이 패배한 첫 전쟁이었다.



The Vietnam War stories that you should know when you travel Vietnam

😚 : My grandfather was a Vietnam War veteran, and he said it was terrible.

(i) : I see. I'm filled with emotions by visiting Vietnam.

: Me too. How do Vietnamese remember about Vietnam War?

: Look over there! It looks like a war museum.

It is very important to know the basic information on the country's history when traveling in unfamiliar cities. Because you can practice good manners as well as see and feel more. Moreover, the Vietnam War is closely related to Korean modern history. Before traveling to Vietnam, here are some Vietnam War stories that would be good to know.

Ho Chi Minh and Vietnam War

The 20th century was a period of upheaval in Southeast Asia and around the world. And Ho Chi Minh is the one who cannot be left out when talking about the history of Vietnam, which was at the center of it. Having used about 160 pseudonyms, including Nguyen Ai Quoc and Ly Thuy, he fought for Vietnam's independence all his life.

He founded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for the first time and abolished Bao Dai, the famous emperor of the Nguyen Dynasty and declared independence. In particular, he fought the Indochina War for independence from France and later served as the top commander of the North Vietnamese army when the U.S. and Soviet Union joined the Vietnam War.

Unfortunately, Ho Chi Minh died of a heart attack on September 2, 1969, when the Vietnam War was in the heart of war, He died without seeing the independence of the country he longed for. He is still remembered as Asia's most influential leader and prominent socialist leader in the 20th century. To commemorate his achievements, Saigon changed its name to Ho Chi Minh City, and his grave is located in Hanoi's Ba Dinh Square, where Ho Chi Minh declared Vietnam's independence.

South Korea's dispatch of troops to Vietnam

On October 22, 1965, the Korean White tiger Unit entered Vietnam's Qui Nhon Por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dispatch troops under the pretext of 'rewarding its allies (U.S.)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and 'Vietnam Front is directly related to the Korean Front'. For about eight years until 1973, more than 300,000 South Korean soldiers, including pigeon units, blue dragon units, and white horse units, were dispatched to Vietnam

This was the second-largest number after the United States, which had sent 500,000 troops. The South Korean military had achieved excellent results through more than 100 battalion-level operations and 570,000 small unit operations, but it had to make a huge sacrifice of 5,000 killed and 20,000 wounded.

The only war that America has defeated.

Anti-war public opinion in the United States has begun to rise due to the longer-thanexpected war period and severe troop losses. Eventually, the ceasefire negoti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Vietnam began in 1968. Even after the U.S. military began to withdraw from the Vietnamese front in 1971, the Korean military had 37,000 combat troops, including two infantry divisions, which is said to have been the largest number among the participating countries.

Only after the 1973 armistice in Paris was the complete withdrawal of the Korean troops. Later in 1975, when the capital of Saigon was captured by a massive offensive in North Vietnam and president Duong Ban min surrendered, the long Vietnam war ended. It was the first war the United States was defeated.





뻔하지 않게 베트남 여행하기

(SNS에 자주 올라오는 깔끔한 호텔이 있는데, 내일은 거기를 예약할까?

: 호텔 좋지! 하지만 우리 어제도 호텔에서 잤으니까, 오늘은 현지 홈스테이를 해보는 것 어때?

💮 : 오..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현지인들의 생활은 어떤지 경험해보자!

: 좋아. 정말 뜻 깊은 경험이 될 거야.

바다를 끼고 북에서 남쪽으로 길게 위치한 베트남은 각 지역별로 특색과 자연 환경이 다양해 관광 자원이 풍부해요. 각 소도시마다 특별한 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나트랑(Nha Trang)과 다낭(Da Nang)으로 모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편한 패키지 여행 상품이 있으니까? 그 밖에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남들이 가는 곳을 답습해서 가는 게 아닐까요?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여행을 해야 할까요?

리조트나 대형 호텔이 아닌, 현지 숙소 또는 홈스테이를 이용한다면 베트남 사람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고, 친절한 현지인들과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정을 나눌 수 있어요. 홈스테이의 성격에 따라 현지인과 함께 장을 보고 쿠킹클래스를 할 수도 있고, 보트를 타며 마을을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5성급 호텔도 좋지만, 현지 가정식을 먹으며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도란도란이야기를 나누는 여행은 어떨까요? 아마 결코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거예요.

여행을 하다 보면, 쇼핑이 빠질 수 없겠죠? 베트남에는 독특한 스타일의 옷, 실크 스카프, 수공예 그릇, 커피 등 집에 가져가 선물하고 싶은 것들이 넘쳐나요. 하지만 획일적인 관광 상품 위주로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 문제가 발생하

고 있고, 생산자들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생산 자들이 정당한 수입을 받을 수 있도록 로컬 숍에서 기념품을 구매 를 하는 것이 좋아요. 직접 만든 공정무역 수공예품이나 물건을 사 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문화를 지켜줄 수 있답니다.

베트남의 시간은 왠지 천천히 가는 것만 같습니다. 느긋한 베트남에서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골목 골목도 돌아다니고, 강 따라 사람들을 구경하며 내가 정하는 흐름 속에서 여행을 즐겨보는 것은 어떠세요? 힘들면 잠시 쉬면서 베트남 커피 '카페 쓰어다(cafe suada)'를 마시면서 느림의 미학을 한 번 누려 보시 길 바랍니다. 몇몇로컬 여행사들은 자전거 투어를 제공하기도 하니 관심이 있다면 확인해 보세요.

쿠킹클래스는 이미 베트남의 다낭, 하노이 등의 도시에서 인가가 많은 이색 체험입니다. 현지 문화에 더 가까이 가고 싶다면, 소수민 족의 전통 요리를 배워볼 수 있는 마을, 사파(Sa Pa)는 어떠세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진행되는 쿠킹 클래스는 처음 보는 재료로 특별한 요리를 하게 되는데요. 베트남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진행이 되니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습니다. 뻔하지 않은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에게 소수민족 전통 요리 수업을 적극 추천합니다.

VIETNAM

UNCLICHED TRAVELING IN VIETNAM

😚 : There is a neat hotel that is often posted on SNS, should we make a reservation for tomorrow night?

: Hotel sounds good! But since we slept at the hotel yesterday, why don't we stay at a local homestay today?

Oh, why didn't I think of that? Let's experience how local people live!

Great. It's going to be a meaningful experience.

Vietnam, which is located from north to south along the sea, is rich in tourism resources, with its diverse features and natural environment in each region. Each small city has its own unique charm, but why do people gather in Nha Trang and Da Nang City? Just because the people are gathering there? Or because there are plenty of convenient tour packages? For a variety of other reasons, don't we just follow others' travels? Then what kind of travel do we have to choose?

If you stay at a local accommodation or homestay, not a resort or a hotel, you can get a sense of the Vietnamese lifestyle, having some meals or sipping a cup of tea with friendly locals. Depending on the program of homestay, you can go grocery shopping together for a cooking class or take a boat tour around the village. Of course, a clean and quiet 5-star hotel is good, but it would be an unforgettable memory to have home-style meals and chat with the people you've met.

Shopping in Vietnam can be the highlight of your trip. There are so many unique Vietnamese-style clothes, silk scarves, handicraft bowls, coffee, and more that you want to bring home as gifts. However, problems such as environmental destruction, labor exploita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are accruing due to standardized tour packages, and local producers are suffering from poverty. That's why it's better to buy souvenirs at a local shop so that locals can earn a fair income. Just buying handcrafted goods or any goods made by themselves can help securing their culture.

The time in Vietnam seems to go slowly for some reason. Ride your bike in a laid-back Vietnam, slowly wander through alleys, see people along the river, and enjoy a trip in the flow you set. When you're getting tired, take a break and enjoy an aesthetic of slow drinking Vietnamese coffee, 'cafe sua da'. Some local travel agencies offer bike tours, so check it out if you're interested.

Cooking class is a popular experience in Vietnam's cities such as Da Nang and Hanoi etc. If you want to get closer to the local culture, how about Sa Pa, a village where you can learn traditional ethnic dishes? The cooking class, which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you can experience special dish with ingredients you've never seen before. Not only Vietnamese but also English, so anyone can easily follow along. It is highly recommended traditional ethnic cooking classes for those who want to make special memories.



호이안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 어느새 저녁이 되었네. 얼른 숙소로 돌아가서 쉬자.

: 어림없는 소리! 베트남 여행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 배가 너무 고픈걸..

: 딱 좋아! 맛있는 것도 많고, 아름다운 랜턴들이 환하게 밝혀져 있어서 정말 아름답거든. 야시장에 가서 저녁도 먹고. 기념품도 사서 숙소로 돌아가자.

해가 저물어가는 시각, 호이안(Hoi An) 시내는 더욱더 활기가 돌기 시작한다. 삼삼오오 모여든 사람들이 골목 구석구석으로 퍼져 나가고, 곳곳에서는 음식 조리 냄새들이 풍긴다. 화려한 등불로 장식된 건물이나 천막은 멋진 무대를 보는 듯하다. 다양한 수공예품과 기념품을 파는 상인들의 호객행위는 가격을 흥정하는 여행자들의 목소리와 한데 어우러진다. 마치 합중주를 보는 듯한 이 장면은 그저관광지로서의 호이안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무려 2천 년 가까이 항구 도시로서의 위상을 자랑했던 호이안의 본래 모습, 그 자체에 가까울 테니까.

호이안이 한때 세계적인 무역항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하나 있다. 바로 야시장이다. 호이안 고대 도시(Hoi An Ancient Town)에서 안호이(An Hoi) 다리를 건넌 뒤,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조금만 더 들어서면 야시장을 만날 수 있다. 워낙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한 곳이니 찾는 게 어렵진 않을 터.

호이안 아시장은 약 300m 길이의 거리에 자리하고 있는 전통 시장이다. 길거리 음식과 수공예품, 기념품, 장신구, 의류,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50개소 이상의 점포가 즐비하게 늘어서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아시장이 문을 여는 시각이면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을 두어 줄로 이동해야 할 정도로 북적인다. 호이안 최고의 핫플레이스가 이 길 위에 펼쳐지는 것이다.

호이안 야시장에 방문할 예정이라면, 몇 가지 기억해 둘 것이 있다. 일단 어떤 기념품을 사는 게 좋을지에 관한 점이다. 커피와 실크 제 품이 유명하다. 베트남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커피 생산량이 많은 지역이어서, 곳곳에서 원두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우리에게 핸드드 립 커피 원두로 흔히 알려진 아라비카 품종보다는 상대적으로 맛과 향이 덜하다는 로부스타 품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은 꼭 알아<mark>둘</mark> 것. 예술가들의 멋진 작품들도 많다. 그림이나 <mark>스케치,</mark> 섬세 한 손길이 엿보이는 도자기, 핸드메이드 대나무 제품 등이 눈여겨 볼 만하다.

무엇보다도 호이안 아시장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품목은 랜턴이다. 호이안 아시장의 하이라이트라고 봐도 좋을 정도다. 다양한 모양과 크기, 색상, 패턴으로 꾸며진 랜턴이 아시장을 수놓는다. 주변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랜턴 상인들이 불을 켜는데, 이 모습은 호이안 아시장 최고의 장관이라고 해도 좋을 수준이다.

어찌나 아름다운지 야경 사진을 찍으려는 이들이 몰리는 것은 물론이고, 웨딩 사진 촬영을 하는 커플들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랜턴의불빛을 배경으로 하고 포즈를 취하는 이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오숙하면 랜턴 상인들이 자신의 매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이들에게 아예 2만 동가량을 받기도 한다. 워낙 사람이 많이 몰리기 때문인데, 이를 피하고 싶다면 조금 이른 시각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호이안 야시장을 더욱더 즐겁게 둘러볼 수 있는 몇 가지 꿀팁을 소개한다. 우선, 야시장은 일몰 직전 시간대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주로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여는 시각은 오후 5시 이후이며, 가장바쁜 시간대는 오후 7시부터 2시간 정도다. 찾는 물건을 저렴하게구하고 싶다면 입구보다는 안쪽 매장을 찾아가는 것이 좋다. 같은물건이더라도 입구에 있는 매장에서 제시하는 가격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물건을 사기로 했다면 흥정은 당연지사. 정가의 30~50%수준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호이안 여행, 밤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싶다면 야시장은 필수 코스다.

THE NIGHT OF HOLAN IS MORE BEAUTIFUL

🧐 : It's already evening. Let's go back to our accommodation and rest.

: No way! The trip to Vietnam is now beginning.

But I'm starving now...

Perfect! There are many delicious foods and beautiful lanterns that make the place beautiful. Let's go to the night market, have dinner, buy souvenirs and go back to our accommodation.

As the sun sets, the downtown of Hoi An begins to be more vibrant. Crowd of people spread to every corner of the alley, and there are smells of food cooking. The buildings or tents decorated with colorful lanterns seem to look out over the stunning stage. Merchants who sell various handicrafts and souvenirs mix with the voices of travelers bargaining for prices. The scene may remind you of watching ensemble performance, thus it cannot allow people regard Hoi An as just a tourist destination. It would be closer to the way it was in old days when Hoi An boasted its status as a port city for nearly 2,000 years.

There is one space where you can feel that Hoi An was once a world-class trading port. It is a night market. After crossing the An Hoi Bridge in Hoi An Ancient Town, turn right and walk a little further to see the night market. It is full of flashy lights, so it won't be hard to find.

Hoi An Night Market is a traditional market located about 300 meters long. There are more than 50 shops selling street food, handcrafts, souvenirs, accessories, and clothing are lined up to welcome customers. At the opening of the night market, visitors need to move in rank because the market is so packed. Hoi An's best hot place in on the road.

If you are going to visit the Hoi An Night Market, there are a few things to keep in mind. At first, it is about what to buy for souvenirs. Coffee and traditional silk are famous. Vietnam is the second largest coffee producer in the world, so coffee beans are readily available everywher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Robusta which is relatively less taste and aroma than the Arabica variety, which is commonly known as hand drip coffee beans to us, has an absolute majority. There are also may

wonderful works by artists. Drawings and sketches, ceramics with great delicacy and handmade bamboo products deserve attention

Above all, lanterns are the most popular item at Hoi An Night Market. This is the most important products from the night market. Lanterns decorated in different shapes, sizes, colors and patterns embroider the night market. When the surrounding area starts to get dark, lantern merchants turn on the lights, which can be said to be the best view of Hoi An night market.

It is so beautiful that not only are those many people want to take pictures of the beautiful night view, but also couples taking wedding photos are often seen. Lantern merchants receive 20,000 Dong from these who take pictures against the backdrop of their stores. It is because there are so crowded. If you want to avoid it, it is recommended you visit a little earlier.

Here are some tips to make your tour of Hoi An night market even more enjoyable. First of all, it is recommended to visit the night market right before sunset. Usually, merchants open the store after 5p.m. and the rush hour is about 2 hours from 7p.m. If you want to save money on what you are looking for, it is better to go to the inside store rather than the store near entrance. Even for the same item, the price offered by the store at the entrance tends to be higher. If you decide to buy something, it is no wonder you are haggling. It is not that difficult to purchase goods at 30-50% of the list price.

Let's spend a night here and you will get one of your colorful experience on your trip in this Hoi An Night Market.









태국

수도 : 방콕 **언어** : 태국어

면적: 51.3만km² (2017 FAO)

인구: 6,995만 844명 (2021 UN)

종교: 불교 95%, 이슬람 4%, 기독교 1%

환율: 1\$ = 약 30바트

THAILAND

Capital: Bangkok

Language: Thai language

Area: 0.513 million km² (2017 FAO)

Population: 69 million (2021 UN)

Religion: Buddhism 95%, Islam 4%, Christian 1%

Exchange rate: 1\$ = 30 THB

고온 다습한 열대성 기후를 가졌으며 입헌군주제 국가이기에 타이 왕국이라고도 불린다.

타이족(85%), 화교(12%), 말레이(2%) 등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인구는 세계 20위에 달한다.

팟타이와 같은 볶음 요리, 카레, 똠얌꿍 등이 대표 요리이다.

수도이자 최대 도시는 방콕이며 북쪽으로는 미얀마와 라오스, 동쪽으로는 라오스와 캄보디아와 접하고 있다.

남쪽에는 타이만과 말레이시아가 있고, 서쪽에는 안다만 해가 있다. 해상 국경으로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수많은 쿠데타와 군사 독재를 거치며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It is a hot, humid tropical climate and is also called the Kingdom of Thailand because it is a constitutional monarchy. It is composed of a variety of ethnic groups, including the Thai (85%), Chinese (12%), and Malay (2%), and has the 20th largest population in the world. Stir-fried dishes such as Pad Thai, curry, and Tom Yum Kung are representative dishes. Bangkok is the capital and largest city. Thailand is bordered by Myanmar and Laos to the north, Laos and Cambodia to the east.

To the south lies the Gulf of Thailand and Malaysia, and to the west lies the Andaman Sea. It borders Vietnam, Indonesia, and India in maritime. Although it basically adopts parliamentary democracy, it has historically undergone numerous coups and military dictatorships and has been evaluated as not realizing proper democracy until now.

서양 열강들에 의해 수많은 불평등 조약들을 맺고, 영토도 많이 뺏겼으나 가까스로 주권을 지키는 데에만은 성공하여 동남아시아에서 서양에 의해 식민지화가 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였다. ASEAN의 창립 국가이며, 미국의 최우방 중 하나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엄연한 중견국으로 대접받으며, 동남아시아에서는 2번째로 거대한 경제를 보유하고 있고 인간개발지수도 매우 높다. 신흥개발국으로 분류되어 관광업, 제조업, 농업 등에서 약진하고 있다. It was the only country in Southeast Asia that had not been colonized by the West, although numerous unequal treaties were signed, and many territories had been lost by the Western powers but managed to defend its sovereignty.

It is the founding country of ASEAN and one of the closest allies of the United States.

Thailand is regarded as a mid-sized countr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has the second-largest economy in Southeast Asia and a very high human development index.

It is classified as an emerging developing country and has advanced in tourism, manufacturing, and agriculture.



THAI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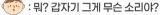
육즙이 팡팡 터진다, 거대한 민물 새우 "킹 리버 프론"



: 태국은 역시 뭐니 뭐니 해도, 팟타이에 똠얌꿍이지 내가 유명한 곳을 알아! 얼른 가서 먹자. 나 너무 배고픈걸.



: 팟타이에 똠얌꿍도 정말 좋지만, 너 진짜 제대로 터트려볼래?



우리 도전해볼까?

육즙이 팡팡 터지는 기가 막힌 새우 요리가 있거든. 길이가 최대 30cm! 크고 풍미 또한 아주 좋아. 자연산 민물새우가 많이 잡히는 태국 중부 지방 강가에서 주로 먹었지만, 요즘엔 여러 지역에서 양식하고 있어.

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새우가 있다. 킹 리버 프론(King River Prawn) 또는 자이언트 리버 프론(Giant River Prawn) 등으로 불리는 민물 새우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새우다. 조금 과장해서 사 람 팔뚝 정도의 크기라고 해도 좋을 정도다. 대개 30cm까지도 자란다고 알려져 있으며, 식당에서 주로 한 마리에 200~400g 수준으로 취급된다. 1kg 단위로 판매하며, 1,000~1,500밧 수준이다. 태국 내에서도 꽤 고급 음식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킹리버프론은 주로 메콩강이 흐르는 태국의 중부 지방에서 잡힌다. 아유 타야가 대표적이다. 차오프라야강이 흐르는 이 일대에서는 오랫동안 이 거대한 민물 새우를 잡고, 구워서, 먹었단다. 요즘은 아유타야를 포함해 태 국의 여러 지역에서 양식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자연산을 낚시 로 잡는 경우도 흔한 일이다.

잡거나 양식한 킹리버프론은 주로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식당으로 배송된 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식당의 수조에 보관하고 있는 새우는 주 문 즉시 손질해 그릴 위에 올린다. 사실 손질이라고 할 것도 없다. 새우를 반으로 가르기만 하면 된다. 양념도, 조미료도 없이 그릴 위에 올려 10분 정도를 굽는다. 새우는 여러 소스, 곁들일 수 있는 채소류 등과 함께 접시 에 담겨 나온다. 특별한 조리법으로 다양한 맛을 선보이는 요리가 등장하 고 있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조리법(그릴에 굽기)이 새우 본연의 맛과 풍 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다.

아유타야 곳곳에서 킹 리버 프론을 취급하는 식당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강 가에 가면 더 많은 식당이 이 거대한 새우를 굽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킹 리버 프론으로 유명한 식당이 몇 군데 있으니, 이를 찾아서 취향껏 방문하 는 방법도 좋겠다.



GIANT AND JUICY! THE GIANT FRESHWATER SHRIMP "KING RIVER PRAWN"



: Thailand is famous for Pad Thai and Tom Yam Kung, right? I know some famous place, so let's go. I'm so hungry.



👀 : Pad Thai and Tom Yum Kung are really good, but do you want to be a bon vivant?



🙌 : What? What are you talking about all of a sudden?



: There's amazing prawn dish that pops out of juice. Up to 30cm in length! It's big and has a great flavor. Thai people used to eat it by the river in central Thailand where many natural freshwater prawns are caught. But these days, they're raised in many areas. Shall we try?

There is a shrimp that Thai people love to eat. It is a freshwater shrimp called King River Prawn or Giant River Prawn. As you can guess from their name, it's huge shrimp. With a little bit of exaggeration, it is about the size of a person's forearm. It is known to grow up to 30 cm in general and is usually served as 200 to 400g per in restaurants. It is sold in units of 1kg and ranges from 1,000 to 1,500 THB. It is also treated as a gourmet food in Thailand,

King River Prawn is usually caught in the central district of Thailand. Ayutthaya is representative. In this area of the Chao Phraya River, the huge freshwater shrimp has been caught, roasted, and eaten for a long time. Nowadays, King River Prawns are cultured in many areas of Thailand including Ayutthaya, but it is still common to catch them by fishing alive.

King River Prawn, which are caught or cultivated are usually shipped to restaurants as they are alive. It is to maintain freshness. Prawn stored in the restaurant's water tank are trimmed immediately upon order and placed on the grill. All you have to do is just cut the prawn in half. Grill it for 10 minutes without seasoning. Prawns are served on a plate with several sauces and side dishes. While there are many special recipes that offer a variety of flavors, but traditional recipes(grilled) are still the way to taste the natural flavor.

You can easily find restaurants that serve King River Prawn throughout Ayutthaya. When you go to the riverside, you will see more restaurants grilling these giant prawns. There are several popular restaurants to enjoy excellent King River Prawn. I think you should go for it!



"식사하셨습니까?"

국수로 보는 태국 요리의 세계

전 세계인이 꼽는 최고의 태국 요리를 국수로 즐겨보자. 쌀국수 꾸어이띠 여우(Kwyteiyw)는 전통적인 태국 요리는 아니나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서민의 한 끼를 책임지는 태국 요리의 알짜다. 면과 육수, 고명의 변화를 통해 태국 요리의 다양한 면모를 엿보게 하는 음식 문화의 거울이다.

1. 마성의 국수, 꾸어이띠여우 똠얌

똠암(Tom Yum)은 다양한 재료와 향신료를 넣고 매콤하고 새콤하게 끓이는 요리다. 향과 맛은 향신료가 결정한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향신료는 가랑갈, 카피르 라임 잎, 레몬그라스. 이 세 가지 재료만 넣으면 똠얌 피자등 똠암의 이름이 붙는 모든 음식을 만들 수 있다. 향신료 외에 기름이 있는 고추 양념인 프릭파우는 매운 맛을 낸다.

꾸어이<mark>띠여우 똠얌은 돼지고기, 닭고기 등으로 맑은 육수를 낸 꾸어이</mark>띠여우 남싸이에 프릭파우와 타마린드 또는 라임, 액젓 등을 넣어 만든다. 맵고 시고 짠맛이 입안에서 향연을 벌여 똠얌의 맛에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힘들다. 고명으로는 돼지고기와 돼지 내장, 어목, 해산물 등이 올라가며 국물 없는 비빔면은 '꾸어이띠여우 똠얌행'이라고 한다.

2. 호불호가 없는 볶음국수, 팟타이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국수를 꼽으라면 단연 팟타이(Pad Thai)다. 팟타이는 보통 굵기의 쎈렉이나 팟타이 전용 면인 쎈짠을 불려 센 불에 볶는 볶음국수다. 팟타이 전문점, 노점, 태국 요리 레스토랑 등지에서 손쉽게 접할수 있으며, 전 세계인이 가장 선호하는 태국 요리 중 하나일 정도로 인기가높다. 인기의 비결은 맛. 타마린드의 신맛, 고춧가루의 매운맛, 팜슈거의단맛, 액젓의 짠맛이 어우러져 조화로운 맛을 선사한다. 땅콩으로 고소한맛을 더하며 계란은 빼거나 넣는다.

팟타이를 직역하면 '태국식 볶음'이라는 뜻이다. 팟타이가 태국을 대표하는 볶음 요리라는 뜻인가? 이름과 달리 태국의 팟타이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고 한다. 태국이 국가 재건에 힘쓰던 1930년대 당시 중국에서 들어온 새로운 음식에 나라 이름을 넣어 민족주의를 고취했다는 설이다

3. 카레 국물에 국수를, 카놈찐남야와 카우쏘이

쌀소면 카놈찐(Kha Nom Jeen)은 모양은 국수지만 국수 전문점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국수집에서는 일반적으로 쌀로 만든 넓은 면 쎈야이, 보통면 쎈렉, 가는 면 쎈미를 비롯해 밀가루와 계란으로 만든 중화면 바미를 쓴다. 쌀을 숙성시켜 2~7일에 걸쳐 만드는 카놈찐은 쏨땀 외에 태국 카레깽과 잘 어울린다. 남부 지방에서는 카레를 카놈찐에 끼얹어 먹는 카놈찐남야(Kha Nom Jeen Nam Ya)를 즐긴다. 소고기 카레깽느아, 그린 치킨 카레깽키여우완까이, 생선 카레 남야쁠라 등 카레의 종류는 다양하다. 카우쏘이(Khao Soi)는 진한 코코넛 카레 국물에 바미 면을 말아먹는 북부 국수다. 고명은 해산물보다는 닭고기나 소고기가 즐겨 사용되며, 절인 채소와 샬롯, 라임을 곁들인다.



: 태국은 국수가 가장 유명하지? 꼭 현지에서 먹어보고 싶었어!



: 좀 아는구나? 태국의 국수 요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하번 볼까?



: 응. 그런데 나는 향신료가 너무 강하면 조금 곤란한데...



: 걱정하지마. 기본적으로 모든 요리에 향신료를 사용해서 거부감이 들 수 있어.

하지만 조절이 가능하니 아래 가이드북을 참고하자!





: Noodles are the most famous in Thailand, right? I really wanted to try it in local!



That's right.. Thai noodles are famous all over the world. Shall we try?



: Yes, but it's hard to me if the spices are too strong...



 Don't worry. Basically, every dish can be repulsed by using spices.
 But you can adjust it,
 so please refer to the guidebook below!



"HAVE YOU EATEN?" THE WORLD OF THAI CUISINE WITH NOODLES

Enjoy the best Thai dishes with noodles. The rice noodle Kwyteiyw is not a traditional Thai dish, but it is a real Thai dish that can easily serve the common people's meal anytime, anywhere. It is a mirror of the food culture that shows various aspects of Thai cuisine through changes in noodles, broth, and garnish.

1. The diabolic noodle, Kwyteiyw Tom Yum

Tom Yum is a spicy and sour food with various ingredients and spices. Flavor and taste are determined by spices. The spices that must be included are galangal, kaffir lime leaves, and lemongrass. If you add these three ingredients, you can make any food named Tom Yum, including Tom Yum pizza. In addition to spices, Phrik Phao, an oiled pepper seasoning gives a spicy taste.

Kwyteiyw Tom yum is made by adding Phrik Phao, tamarind, lime, and fish sauce to Kwyteiyw nam sai, which is made of clear broth such as pork and chicken. Spicy, sour, and salty flavors feast in your mouth, and once you fall into the taste of tom yum, it is difficult to get out of it. The garnish includes pork, pork intestines, fish cakes, and seafood, and spicy noodles without soup are called 'Kwyteiyw Tom Yum Hang'.

2. Stir-fried noodles without likes or dislikes, Pad Thai

The most famous noodle in Thailand is definitely Pad Thai. Pad Thai is a stir-fried noodle that uses macerated medium-thick noodles or exclusive noodles just for Pad Thai. It can be easily accessed at Pad Thai specialty stores, street stalls, and Thai restaurants and it is so popular that it is one of the most preferred Thai dishes of the world. The keys to its popularity is the combination of tastes, such as the sour taste of tamarind, spicy taste of red pepper powder, sweet taste of palm sugar, and salty taste of the fish sauce. Add nutty flavor with peanuts and remove or add eggs.

The translation of Pad Thai means 'Thai-style stir-fried'. Does it mean that Pad Thai is the representative stir-fried dish of Thailand? Unlike its name, the history of Pad Thai in Thailand is not that long. It is said that Thailand promoted nationalism by adding the name of the country to a new food that came from China in the 1930s when it was striving to rebuild the country.

3. Noodles in curry soup, Kha Nom Jeen Nam Ya and Khao Soi

Although Kha Nom Jeen is a rice noodle, it is hard to find it in noodle restaurants. Noodle restaurants generally use wide noodles made of rice, medium-thick noodles, thin noodles, and Chinese noodles made of flour and eggs. Kha Nom Jeen, which is made after ripening rice for two to seven days, besides Som Tam, Kha Nom Jeen goes well with Thai curry gong. In the southern part of the country, people enjoy Kha Nom Jeen Nam Ya, where curry is poured into Kha Nom Jeen. There are various kinds of curry, such as beef curry Kaeng Nuea, green chicken curry Kaeng Khiao Wan Kai, fish curry Nam Ya Pla.

Khao Soi is a northern noodle that is mixed with a thick coconut curry broth with Bami noodles. Chicken or beef is more popular than seafood, and it is served with pickled vegetables, shallot, and lime.



: 깐짜나부리에는 이렇게 큰 나무가...

: 나이도 100년이 훨씬 넘은 나무야.

: 멋지다. 우리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네. 이름이 뭐야?

: 이 나무는 '자이언트 레인 트리'라고 불러. 비가 내리거나 해가 지면 잎사귀가 움츠러드는데. 그 모습을 보고 레인트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어. 나무가 다 나오도록 사진 찍어볼까?

깐짜나부리(Kanchanaburi) 여행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사진을 한 장 남기 고 싶다면, 그 배경으로 거대한 나무 한 그루는 어떨까. 세상에 이렇게 거대 한 나무가 있다니. 그것도 달랑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다니. 그것도 거의 완 벽한 좌우대칭을 하고서 말이다. 깐짜나부리의 자부심, 깐짜나부리의 명물. 자이언트 레인 트리(Giant Rain Tree)' 또는 '자이언트 몽키 포드 트리(Giant Monkey Pod Tree)'라고 불리는 이 나무는 시내에서 약 20분 거리에 있는 태국 왕립 육군 소속의 농업 관련 기관의 정원에서 자라고 있다. 높이는 약 20m, 지름은 52m에 달하는 크기로, 수령은 100년이 훨씬 넘은 것으로 추 정된다고. 실로 어마어마한 크기다.

자이언트 레인 트리는 생김새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경이로움 을 선사한다. 이 거대한 나무는 중남미 지역이 원산지라고 알려져 있으나, 아 시아나 태평양, 하와이 등 여러 지역에서 볼 수 있다. '자이언트 몽키 포드 트 리', 혹은 일본 기업의 이름을 따서 '히타치 나무'라고 불리기도 한다. 1970년

대 히타치 그룹이 하와이에 있는 이 나무를 주제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광 고에 등장시킨 것이 그 유래다. 비가 내리거나 해가 지면 잎사귀가 움츠러드 는데, 이를 보고 '레인 트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쨌든, 자이언트 레인 트리를 배경으로 두고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분명히 특별한 경험이다. 물론, 이 거대한 나무를 사진 프레임에 다 담으려면 피사체 인 우리는 아주 작게 나올 것이 뻔하지만. 그래도 이런 독특한 나무를 배경으 로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흔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무의 기둥 쪽으로 관람할 수 있는 목조 데크가 설치되어 있다. 길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그 크 기와 자연의 신비에 누구나 압도당하고 만다. 나무 그늘에 앉아 휴식을 즐겨 도 좋다. 나무 아래는 잔디밭과 목조 데크로 되어 있는데, 직경이 50m에 이 르다 보니 주변 공간이 꽤 넓다. 방해가 될 만한 것도 없으니 편하게 쉬어도

: How big this tree is!

: This tree is more than 100 years.



: That's great. it's much older than us. What's its name?

This tree is called 'Giant Rain Tree'. The leaves shrink when it rains or the sun goes down, so it is called like that. Shall we take a picture with the whole tree?

If you want to leave a memorable photo on your trip to Kanchanaburi, how about giant tree in the background? I can't believe there's such a huge tree in the world, also this tree standing here alone. And it's just one of them standing there. It's almost perfectly symmetrical. The pride of the Kanchanaburi, called "Giant Rain Tree" or "Giant Monkey Pod Tree", grows in the garden of agriculture related institution belonging to the Royal Thai Army, and the venu is located in about 20 minuets from downtown of Kanchanaburi. The tree is about 20m in height and 52m in diameter, and surprisingly, the age of the tree is estimated to be well over 100 years old. Unbelievablel

The Giant Rain Tree gives surprise and wonder just by its appearance. The giant tree is known to be native to Central and South Americam, but can be found in many regions, including Asia, the Pacific Ocean, also in some parts of Hawaii. Sometimes, it is called by 'Giant Monkey Ford Tree' or 'Hitachi Tree' which has served as the Japanese company. In the 1970s.

the Hitachi Group created an animation based on this tree in Hawaii and appeared in advertisements. And there's also a story that it started calling it the "Rain Tree". When it rains or the sun goes down, the leaves flinch.

Whatever the reason may be, taking photos with the Giant Rain Tree in the background is definitely a special experience. Of course, if you want to put this huge tree in a photo frame, it's obvious that we will come out very small. Still, it is not common to take pictures with these unique trees in the background. There is a wooden deck where you can see towards the trunk of a Giant Rain Tree. As you walk along the road, everyone is overwhelmed by its size and natural mysteries. You can also relax in the shade of the trees. Under the tree, there is a lawn and a wooden deck with a diameter of 50 meters, there's a lot of space around them. There is nothing to disturb you, so you can rest comfortably.



💮 : 킹 리버 프론 새우를 먹으니 배가 너무 부른데? 우리 끝말잇기 하면서 갈까?

쥸 : 그래, 나부터 시작할게. 해질녘!

› : 마침 해질녘의 노을을 보러가고 싶었는데, 역시 우린 잘 맞아! 어디로 가야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있을까?

: 그렇담, 차오프라야강에 가서 배를 타고 선셋 투어를 즐겨보자. 강 수면위로 황금빛 노을이 스며드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야. 출발!

해가 저물어가는 시각, 사방에서 모여든 배가 차오프라야 강을 내달리기 시작한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배들은 질서정연하게, 비슷한 속도로 늦은 오후의 차오프라야 강을 물들인다. 그 흔하다는 롱테일보트만 있는 것도 아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유람선도 속속 차오프라야 (Chao Phraya) 강에 등장한다. 관광객을 가득 태운 채, 그 기묘한 항해에 합류한다. 이 시각 차오프라야 강에 떠 있는 거의 모든 배의 도착지는 하나, 왓차이타나람(Wat Chai watthanaram)이다.

선셋 투어는 아유타야(Ayutthaya) 여행의 하이라이트다. 황금빛 노을이 왓 차이와타나람에 한껏 스며드는 순간이 무척 아름답기 때문이다. 차오프라야 강 기슭에 자리한 이 사원이 만들어내는 실루엣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잔잔 한 강 위에 떠서 해가 저물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보다 더 로맨틱한 일 이 또 있을까. 어떤 투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배에서 내려 왓 차이와타나람을 둘러볼 수도 있다. 1630년, 프라삿 통 왕이 건설한 이 사원은 그의 어머니를 위한 크고 작은 프랑(크메르 양식의 불탑)들이 35m에 달하는 대형 프랑을 중심으로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

여느 아유타야 유적과 마찬가지로 1767년 미얀마 군에 의해 파괴되었으나, 1990년대에 복원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해가 저문 후에는 빛을 밝혀 아유타야의 밤을 한껏 아름답게 꾸며주니, 가능하다면 이 풍경까지도 함께 감상하자.

: I'm so full by eating king river prawn. Shall we play word chain?

🥇 : Yeah, I'll start. Sunset!

I just wanted to go see the sunset, so we're in sync! Where should we go to see the beautiful sunset?

Then, let's go to the Chao Phraya River and enjoy the Sunset Tour by boat.

The golden sunset that permeats the surface of the river is spectacular. Off we go!

At he sunset, boats from all directions start run down the Chao Phraya River. As if by appointment Boats running in the same direction was colored the Chao Phraya river in the late afternoon at a similar speed in an orderly manner. It's not only the long-tail boats. There are also have gorgeous and huge cruise boats appear on Chao Phraya river one after another. A boat with full of tourists joined the marvelous sailing. Most of the floating boats in this time, headed into the Wat Chai watthanaram.

The sunset tour is the highlight of the Ayutthaya trip. This is because the moment when the golden sunset permeates Wat Chai watthanaram looks very beautiful. The silhouette created by the temple which located along the shore is spectacular. There's nothing romantic than floating on a calm river and watching the sunset.

You can also get off the boat and explore Wat Chai watthanaram depending on which tour program you are with. It is built by King Prasat Tong in 1630 to honor his mother. It is very impressive that small and large prang are arranged in harmony around the 35-meter-high prang in Khmer style

Like any other Ayutthaya historic sites, it was destroyed by the Myanmar's amry in 1767, but was restored in the 1990s and can be seen to this day. After the sunsets, it light up the night of Ayutthaya as makes it beautiful. If possible, let's enjoy this view together.

차오프라야 강의 맛있는 선물

: 저기 저 넓은 강은 뭐지?

: 차오프라야 강이야.

태국 사람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강이기도 하지! : 어쩐지! 차오프라이는 왕이라는 뜻이니까.

아주 중요한 곳일 거야.

: 이제 메콩 전문가가 다 되어가는걸?

태국 북부에서 흘러 내려오는 두 개의 물줄기가 하나가 되어 수도 방콕으로 향한 다. 차오프라야(Chao Phraya)이다. 총 1,200km 길이로 주요 곡창 지대를 관통 하는 차오프라야강은 태국 사람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강이다. 차오프라야 라는 이름에서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우리말로 '왕' 또는 '대공'이라는 뜻이다.

차오프라야강은 태국의 대동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오랜 옛날부 터 태국의 남과 북을 이어주는 수송로 역할을 도맡아 왔다. 강 유역을 따라 드 넓고도 비옥한 평야가 펼쳐져 있기까지 해서, 지금도 쌀을 싣고 오가는 바지 선, 채소나 과일 등을 실어나르며 곳곳에 판매하는 롱테일 보트, 사람들을 이 동시키는 여객선 등이 수시로 차오프라야강을 누비고 있다. 강 중에 왕 혹은 왕의 강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명성을 자랑하고 있는 셈이다.

태국 역사상 가장 긴 수명을 자랑했던 아유타야(Ayutthaya) 왕국은 차오프라 야강을 배경으로 번영을 이룬 국가였다. 아유타야 왕국은 1351년부터 1767 년까지 약 400년에 걸쳐 현재의 아유타야 지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이고 화려 한 문화를 꽃피웠으며, 아시아와 중동, 유럽 사이를 오가는 중개무역의 중심지 이기도 했다. 중국과 인도, 유럽을 잇는 중간 지점이라는 지리적인 이점을 살

차오프라야강은 태국인에게 독특한 맛을 선사하기도 한다. 거의 모든 태국 요 리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소스에 관한 이야기다. 생선 젓갈인 '쁠라라(Plara)'. 그리고 생선 간장의 일종인 '남쁠라(Nampla)'다. 주로 차오프라야강에서 잡히 는 '써이(Sey)'라는 생선을 이용해 만드는데, 다른 생선보다 기름이 많아 고소 한 향과 감칠맛을 내기에 최적의 소스다. 써이를 천일염에 절이면 쁠라라가 되 고, 이를 맑은 물에 걸러내면 남쁠라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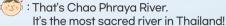
태국인 사이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소스가 쁠라라와 남쁠라다. 태국의 로컬 레 스토랑에서는 테이블 위에 이 남쁠라가 올려져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으며, 라오스에서도 즐겨 쓴다. 베트남의 소스인 느억맘보다 진한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태국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소스다. 간단하게는 생선 한 덩이에 남쁠라만 넣고 굽거나 튀겨 먹기도 한다고. 이 정도면 충분히 훌륭한 맛을 낸다니,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도전해 볼 것



A GIFT OF **CHAO PHRAYA RIVER**



: What's that big river over there?



: No wonder! Chao Phraya means king,



so it may be a very important place.



Now you've become a Mekong expert.

Two streams of water flowing from northern Thailand become one and head to the capital, Bangkok. It is the Chao Phraya River. The Chao Phraya river which has a total length of 1,200 km and runs through the main grain area is considered the most scared by Thai people. It can be estimated from the name Chao Phraya. In Korean, it translates as 'king' or 'grand duke'.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Chao Phraya river is the aorta of Thailand. Since ancient times, it has played the role of a transport route which connecting the south and north of Thailand. Even along the river basin, there are wide and fertile plains spreads along the banks of the river. so even now barges carrying rice, long tail boats carrying vegetables and fruits and passenger ships to move people around the Chao Phraya river from time to time. It boasted a reputation worthy of the name of the king or the river of kings.

The Ayutthaya Kingdom, the longest period of kingdom in Thailand's history, prospered against the backdrop of the Chao Phraya River. For nearly 400 years from 1351 to 1767, the Ayutthaya Kingdom flourished its unique and colorful culture around the present-day Ayutthaya region, and was also the hub of intermediary trade between Asia, the Middle East and Europe. It took advantage of geographical of being the middle point between China, India and Europe.

The Chao Phraya River also offers a unique taste for Thai people. It is a story about a sauce that is common to almost all Thai dishes. They are 'Plara', which is salted fish and 'Nampla', which is a kind of soy sauce for fish. It is mainly made using fish called 'Sey', which is caught in the Chao Phraya river and it contains more oil than other fish, so it is the best sauce to create a savory aroma and savory taste. Pickling the seaweed in sea salt turns it into a Plara and filtering it in clear water turns in into a Nampla.

These two sauces are irreplaceable among the Thai people. In local restaurants, it is common to see the fish sauce on the table, and it is also popular in Laos. It is also characterized by being darker than the Vietnamese sauce, Nuoc Mam. It is the most basic and essential sauce for Thai people. In simple terms, it is said to be fried or fried with only nampla in a piece of fish. It tastes great enough, so if you are interested, try it once.







지어진 유럽풍의 건축물, 전쟁을 피해 태국으로 망명해 온 중국인들이 감사의

표시로 지어 주었다는 중국풍의 건축물이 눈에 띈다. 현재 이 공간은 일반인에

게 개방되어 누구나 둘러볼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종종 국가 행사 혹은 중요

한 손님을 위한 영빈관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A SECRET PLACE OF THE AYUTTHAYA KINGDOM

: Wow.. This is Bang Pa-In Palace! Is the President here?

: There are king and prime minister in Thailand, not the president!

Haha it's okay not to know.
What a magnificent palace!

: As expected, you have an eye for it. However, the Bang Pa-In Palace was destroyed by the war against Myanmar and restored by Rama IV. Shall we go?

A fascinating space unfolds beyond the high wall. The green forests are surrounding the area, and branches are gently swaying in the breeze. The flower buds that hang lovingly at the end also harmonize together, creating a perfect harmony. A wide pond is calm in the middle as if it reflects the Ayutthaya's peaceful times, and hundreds of fish swim vigorously beneath it. It is the Summer Palace at Bang Pa-In.

This palace, built by king Prasat Thong in the middle of the 17th century was used as a villa by the Ayutthaya royal family. It is said that the spacious space was decorated for the royal family around the Chao Phraya River and the island where the Bang Pa-In summer palace was located. But it was just the story until Ayutthaya was occupied and destroyed by Myanmar. The palace was restored by King Rama IV and exists today's day and age.

The summer place of present Bang Pa-In was restored by King Rama IV and King Rama V. The structures represent a variety of architectural styles and restoration of the building which is based on Ayutthaya-style. It is notable that the European-style building based on the remains that King Rama V had seen impressively in Europe, and the Chinese-style building that was built as a token of gratitude by the Chinese who fled to Thailand to escape the war. Currently, the space is open to the public and allows anyone to explore, but it is often used as a guesthouse for national events or important guests.



죽음의 철도, 슬프고도 아픈 기억

: 이곳은 철도길이 아주 잘 되어있네? 멋지다!

: 그 철도는 '죽음의 철도'라고 불리는 다리야.

(주): 뭐? 죽음? 그런 무서운 소리마!

: 코이강의 다리인 이 철도길은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이 군대와 무기를 수송하기 위해 건설했거든. 건설 과정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인도차이나반도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던 일본군은 철도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태국의 방콕과 미얀마의 랑군 사이를 육로로 연결하려는 전략이었다. 인도차이나반도를 가로지르게 될 415km 길이의 이철도를 활용한다면, 일본군은 더욱더 빠르고 안전하게 전쟁물자와 군대를 수송할 수 있게 될 터였다.

1941년, 일제가 본격적으로 철도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문제가 하나 있었다는 점만 제외하면 건설 속도가 꽤 빨랐다. 바로 우거진 정글이, 거친 산악지대가 있다는 점이었다. 특히 깐짜나부리 일대가 그러했다. 그러나 일제에게 이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람을, 포로를 더 투입하면 되니까. 그렇게 일본군의 무자비한 인력 동원이 이루어졌다. 이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20만 명의 아시아 식민지 주민들, 7만여 명의 전쟁 포로가 강제로 노역에 동원되었다.

철도는 1943년 10월에 완공되었다. 3년에 <mark>걸친 공사 기간에 10만 명의</mark> 아시아인, 1만6천 명의 전쟁 포로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숫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투입된 인원 중 약 40%가 사<mark>망한 것이다. 이 철도</mark>가 '죽음의 철도'라 불리는 이유다.

철도는 지금도 남아 있다. 폐허가 되다시피 한 것을 복원해 관광열차를 운행하는 데 활용한다. 이곳에서 희생당한 이들을 위한 안식처도 인근에 자리한다. 깐짜나부리 전쟁 묘지(Kanchanaburi War Cemetery) 혹은 돈-락 전쟁 묘지가 대표적이다. 약 9천여 명의 전쟁포로가 안장되어 있다. 이들은 '고요한 정원'이라 불리는 곳에 질서정연하게 자리하고 있다.

총-카이 전쟁 묘지(Chong-Kai War Cemetery)라 불리는 곳도 있다. 이 묘지는 한때 포로수용소였던 장소에 조성되었다. 1,700여 개의 묘가 있는데, 대부분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이들이다. 깐짜나부리 전쟁 묘지보다 규모는 작지만, 더 깔끔하게 조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깐짜나부리에 간다면, 우리의 선조들처럼 갖은 고초를 겪었을 이들을 위해 잠시 묵념해보는 것은 어떨까. 슬프고, 안타까우며, 아프고, 기억되어야 할 역사가 이 자리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The Death Railway, Sad and Bitter memories

:This railroad track is in very good condition. It's nice!

The railway is a bridge called 'the Death Railway'.

: What? Death? Don't say that again!

This railway line, a bridge over the Kwai River, was constructed by the Japanese during World War II.

They built it to transport troops and weapons.

There were many deaths during the construction process.

During the Second World War, the Japanese military, which was waging war on the Indochina peninsula planned to build a railway. It was a strategy to offers overland connection between Bangkok in Thailand and Rangoon in Myanmar. Using this 415 km long railroad that would cross the Indochina peninsula, it is the faster and safer way to transfer the war supplies and armies for Japanese military.

In 1941, the Japanese started to build a railway in earnest. Construction was quite fast, except for one problem. It was a lush jungle with rugged mountains. This was especially the case in the Kanchanaburi area. However, this was nothing for Japanese military. It wouldn't have been a problem for them, if more people and prisoners were put in. That's how the Japanese military mobilized manpower ruthlessly. To build the railway, 200,000 Asian colonists and some 70,000 prisoners of war were compelled to work.

The railway was completed in October 1943. It is estimated that 100,000 Asians and 16,000 prisoners of war were died during the three-year of construction period. The exact number has not known, but about 40% of the people who were involved died. This is why this railway is called the "The Death Railway".

The railroad is still there. The decayed railroad was restored to run trains for tourists. A cemetery for those who have been sacrificed is also located nearby the railroad. Kanchanaburi War Cemetery or the Don-Rak War Cemetery (typically about 9,000 prisoners of war) are in place in what is called a 'a garden of peace'.

There is also a place called Chong-Kai War Cemetery. The Cemetery was built on a site that was once a prison of war camp. There are more than 1,700 graves, but most of them were unidentifiable. It is smaller than the Kanchanaburi War Cemetery, but it is more neatly organized.

If you go to Kanchanaburi, why don't you meditate for a moment for those who might have suffered the same hardships as our ancestors? There still exist sad, sorrowful, painful, and memorable history should be remembered





200년 역사의 태국 왕조, 짜끄리 왕조



:여기 좀 봐, 태국의 왕을 라마라고 하던데 이유가 있나?



: 좋은 질문이야! 태국에 여행을 간다면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게 좋겠지? 지! 라마는 힌두교의 신 라마의 이름으로 태국식으로 각색되어 지어졌고, 당시 악신을 무찌른다고 하여 지금 왕의 칭호로 사용하고 있어.



:오그렇구나. 유래를 알고 나니 더 궁금한데?

: 좋아! 지금은 라마 10세께서 국왕으로 계셔. 그렇다전 라마국왕들의 이야기를 보자.

태국의 왕호는 왜 라마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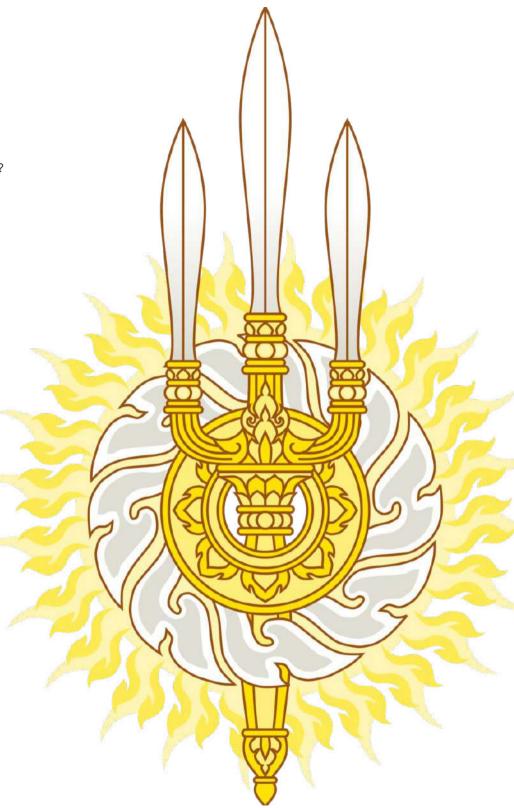
라마야나(Ramayana)의 주인공 라마는 평범한 인간이 아닌 비슈누(Vishnu) 의 화신이다. 스리랑카에는 머리가 10개고, 팔이 20개인 악마 라바나가 왕국 을 다스리며 살았다. 창조주 브라만의 총애를 입은 라바나(Ravana)는 어떤 신 도 해치지 못하는 권능을 얻게 된다. 그러자 라바나는 점점 교만해지더니 신들 까지 괴롭히기 시작했다.

라바나가 신들의 골칫거리가 되자 브라만도 고민에 빠졌다. 브라만은 신이 라 바나를 죽일 수 없으니 비슈누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환생해 라바나를 무찔러 달라고 간청한다. 비슈누는 일곱 번째 화신인 라마로 태어나 라바나를 무찌른 다. 태국 짜끄리 왕조의 국왕을 칭하는 '라마(Rama)' 역시 여기에서 유래했다.

짜끄리 왕조의 시작

왕궁은 짜끄리(Chakri) 왕조를 창시한 라마 1세가 버마의 공격을 방어하 기 위해 짜오프라야 강 서쪽의 톤부리에서 현재 왕궁이 자리한 랏따나꼬씬 (Rattanakosin)으로 수도를 옮긴 1782년부터 그 역사를 시작한다. 에메랄드 사원이라고도 불리는 왓 프라깨우는 라마 1세 때 만들어진 왕실 사원.

왓 프라깨우의 남서쪽 코너를 통해 사원을 벗어나면 왕궁이다. 정원과 거대한 건물들이 가득한 이곳은 라마 8세까지 역대 왕들의 공식적인 거주 공간이었 다. 현재 왕은 두씻(Dusit)에 거주한다. 두씻은 여행자 거리, 카오산(Khaosan) 과 가까운데 개방된 볼거리가 거의 없어 아쉽다. 카오산 로드에서 걸어서 10 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민주기념탑 주변에는 왓 쑤탓, 왓 랏차낫다람, 왓 씨껫 등 라마 3~5세 때에 건설된 사원들이 남아 있다. 민주기념탑 주변으로 왕궁과 두씻 지역을 관통하는 도로가 나 있다.



The 200-year-old Thai dynasty, The Chakri dynasty



: Look here. I heard the king of Thailand is called 'Rama'. Is there any reason?



Good question! If you travel to Thailand, vou should also study the history of the country, right? Rama is a Thai adaptation of the name of the Hindu god, Rama, and it is now used as a name for the king because it defeated evil spirits at that time.



: Oh, I see. I became more curious after learning the origin.



Great! Now, Rama X is the king of Thailand. Then let's take a look at the story of the previous kings.

Why is the king of Thailand called a Rama?

The main character of Ramavana is not an ordinary human being but the incarnation of Vishnu. In Langka (Sri Lanka), a demon with 10 heads and 20 arms ruled the kingdom. Favored by the creator Brahman, Ravana gains power that any god cannot harm. Then Ravana became so arrogant and began to harass even the god.

When Ravana became trouble for the gods, Brahman was also worried. Brahman begs Vishnu to reincarnate himself as a human and defeat Ravana, it was because the God cannot kill Ravana. Vishnu was born as the seventh incarnation of Rama and defeated Ravana. This is the origin of the name 'Rama', the king of Thailand's Chakri Dynasty.

The beginning of the Chakri dynasty

The history began in 1782, when King Rama I, who founded the Chakri dynasty, moved its capital from Thonburi west side of the Chao Phraya River to Rattanakosin, where the palace is now located to defend against Burma's attacks. Wat Phra Kaew, also known as the Emerald Temple is a royal temple built during the reign of King Rama I. It is a temple for the royal family.

If you leave the temple through the southwest corner of Wat Phra Kaew, it is the place where loyal palace located. Filled with gardens and massive buildings, it was the official residence of kings until King Rama VIII. The king now lives in Dusit. Dusit is close to the tourist street, Khaosan, but it is a regrettable that there are few open sights. Around the democracy monument, which can be reached in a 10 minute walk from Khaosan Road, there are temples built during the ages of 3 to 5 of Rama such as Wat Suthat, Wat Ratchanatdaram, and Wat Saket. Around the Democratic Memorial Tower, there is a road that runs through the royal palace and the Dusit area.



근대화의 시작부터 입헌군주제 도입까지

태국의 본격적인 근대화는 라마 4세(재위 1851~1868) 때 시작됐다. 영화 <왕과 나>에서 배우 율 브린너가 연기한 실제 인물이다. 왕위에 오른 라마 4세는 영국과 보링 조약(Treaty of Bowring)을 체결한다. 태국과 외국이 맺은 최초의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다. 조약비준 당시 태국은 싸얌(Siam)이라는 국호를 최초로 사용했다. 라마 4세는 이후에도 미국, 프랑스, 덴마크, 벨기에, 이탈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우호통상조약을 체결하며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다

라마 5세(재위 1868~1910) 쭐라롱껀은 사회, 정치의 근대화와 왕권 강화에 두드러진 업적을 남겼다. 군대, 세제, 법 체제를 근대적으로 개 편하고, 보통 학교를 설립해 초등 교육의 의무화를 시도했다. 방콕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철도를 놓고 증기선을 도입한 것도 이때다. 라 마 5세의 형제들은 행정, 사법, 군대 등 다양한 분야의 수장으로 포진 해태국의 근대화를 이끌며 왕권 강화의 역할을 수행했다.

라마 6세(재위 1910~1925) 와치라웃 때 태국은 연합국 회원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 소극적으로 참전한다. 이를 계기로 태국은 국제 위상을 제고하고 불평등 조약을 타파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라마 7세(재위 1925~1935) 쁘라차티뽁은 태국 최후의 절대군주다. 국가최고위원회를 설치해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세계공황의 위기 대처를 위해 총리에게 정부 운영권을 위임하는 정부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는 준비된 왕은 아니었지만, 열정 가득했다. 곳곳에 도사리고 있던 문제는 1932년 6월 군부의 쿠데타로 최고조에 달했다.

입헌군주제가 도입됐으며, 라마 7세는 1935년 3월 공식 퇴위를 선 언한다. 군부는 라마 7세의 조카인 아난타마히돌을 왕위에 추대했다. 라마 8세(재위 1935~1946)는 재위 기간 대부분을 스위스에서 유학하다 1945년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6개월 후인 1946년 21세의 나이로 의문의 죽음을 당한다.

라마 9세에서 라마 10세로

라마 9세(재위 1946~2016) 푸미폰 아둔야뎃은 형이 사망하자 19 세의 나이에 즉위, 2016년 숨을 거둘 때까지 70년 126일을 집권하 며 세계 최장기 집권 원수이자 태국 역사상 최장기 군주로 남았다. 라마 9세는 국민들에게 신적인 존경을 받은 왕이다. 재위 초창기에 는 군부를 옹호했으나 1990년대 들어 민주화를 위해 공헌한 것으 로 평가받았다.

1950년대부터 왕실의 자금을 투자해 벌인 로열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산간 오지 거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빈곤 퇴치와 소득 증대, 교육을 위해 힘썼다. 태국 전역에는 국민의 존경심을 담은 라마 9세와 왕비의 사진과 초상화가 걸렸다. 동시에 그는 어마어마한 부를 쌓기도 했다. 2008~2013년 <포브스>는 라마 9세를 '세계 최고의 부자 왕쪽'으로 선정했다.

라마 9세가 2016년 10월13일 서거하자 2016년 12월1일 푸미폰의 유일한 아들인 마하와치라롱껀이 64세의 나이로 즉위했다. 라마 10세는 라마 9세가 타계한 후 2년이 넘는 애도 기간을 가지느라 2019년 5월4일에야 대관식을 가졌다. 라마 10세는 짜끄리 왕조의 200년 역사와 함께한 황금 왕관을 쓰고 즉위를 공식화했다. 짜끄리 왕조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라마 1세, 라마 5세, 라마 9세를 대왕이라 칭한다.



From the beginning of modernization to the introduction of constitutional monarchy.

Real modernization of Thailand began during the reign of King Rama IV (r. 1851-1868). He is a real person played by actor Yul Brynner in the movie 'The King and I'. King Rama IV signed the Treaty of Bowring with Britain. It is the first treaty between Thailand and foreign countries and the first unequal treaty. At the time of the ratification of the treaty, Thailand was the first to use the national title of Siam. After that, King Rama IV continued to adopt Western culture by signing Treaties of Friendship and Commerce with the United States, France, Denmark, Belgium, Italy, Sweden, Norway, Austria, and Hungary.

King Rama V (r. 1868–1910) Chulalongkorn made a remarkable achievement in modernizing society and politics and strengthening his royal authority. Military, tax and legal systems were reorganized and schools were established to make elementary education mandatory. It was also at this time that the railroad was placed in the east-west and north-south, centering on Bangkok and steamboat were introduced. The brothers of King Rama V acted as heads of various fields, including administration, justice, and military, leading Thailand's modernization and strengthening of its royal authority.

During the reign of King Rama VI Wachirawut (r. 1910-1925), Thailand participated passively in First World War as a member of the Allied Powers. As a result, Thailand enhanced its international status and provided an opportunity to break down the unequal treaty.

Prajadhipok (r. 1925-1935) was the last autocrat of Thailand. The National Council was established to try to resolve the financial difficulties and Government Reform Plan was announced to cope with the global crisis by delegating the right of running government to the prime minister. He wasn't ready to be the king, but he was full of enthusiasm. The problems lurking everywhere culminated in a military coup in June 1932.

The constitutional monarchy was introduced, and King Rama VII officially abdicated in March 1935. The military crowned Ananta Mahitdol, nephew of King Rama VII. King Rama VIII (r. 1935–1946) returned to his homeland in 1945 after studying in Switzerland for most of his reign. He met the suspicious death six months later in 1946 at the age of 21.

From Rama IX to Rama X

Bhumibol Adulyadej, Rama IX (r. 1946-2016) was crowned at the age of 19 when his brother died, and remained the world's longest-serving head of power and the longest monarch in Thai history, taking power for 70 years and 126 days until his death in 2016. King Rama IX was a king who has received divine respect from the people. In the early years of his reign, he defended the military, but in the 1990s, he was evaluated as contributing to democratization. Since the 1950s, through the royal project, which has invested by royal family has looked into the lives of remote and mountainous residents and has worked hard to eradicate poverty, increase income and improve education. All over Thailand, Photos and portraits of King Rama IX and Queen of Thailand were hung up to show the respect of the people. At the same time, he also accumulated a lot of its wealth. In 2008-2013, Forbes selected Rama IX as "The world's richest royal family".

When King Rama IX died on 13 October 2016, Vajiralongkorn, the only son of Bhumibol was crowned at the age of 64. It was not until May 4, 2019, that King Rama X had a mourning period of more than two years after the death of King Rama IX. King Rama X officially ascended the throne wearing a golden crown with a 200-year history of the Chakri dynasty. The Chakri dynasty named King Rama I, King Rama V, and King Rama IX called the great kings.



코끼리의 나라 태국

😯 : 태국 여행에서는 무얼 해야 재밌게 여행했다고 소문이 날까? 코끼리 라이딩?

: 코끼리는 불교 국가에서 매우 신성한 존재야. 태국에서는 국기에 흰 코끼리가 들어가기도 하지. 하지만. 코끼리를 라이딩. 트래킹 체험은 추천하지 않겠어!

: 그래? 무슨 이유에서?

: 코끼리는 라이딩, 트래킹 관광체험에 이용되기 위해서 잔혹한 학대를 받거든. 쇠 꼬챙이로, 칼로 이마를 찔리고 피를 흘려서 결국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지.

💮 :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코끼리와 교감을 할 수 있는 체험은 없을까?

 : 생각을 바꿔주어서 고마워! 치앙마이에 있는 코끼리 보호센터나 '푸푸페이퍼파크'에 가면 코끼리와 머드 샤워하기, 밥 주기, 산책하기, 친환경 종이 만들기 등의 체험을 할 수 있어.

불교에서 코끼리는 매우 신성한 존재다. 특히 흰 코끼리는 가장 성스러운 동물로 여겨진다. 전설에 따르면 마야부인이 부처를 잉태했을 때, 흰 코끼리가 연꽃을 건네는 꿈을 꿨다고 한다. 코끼리와 연꽃은 예부터 불교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태국은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불교를 신봉하는 불교 국가다. 흰 코끼리는 태국 왕실에서도 사랑 받았다. 흰 코끼리를 왕실 권위의 상징이라 여기며 태국 국기의 붉은 바탕에 흰 코끼리를 그리기도 했다.

코끼리는 태국을 상징하는 동물이자 공식 국가 동물이다. 종교적 인 의미를 넘어 실제로 유용했기 때문이다. 태국에서는 수천 년 전 부터 코끼리를 전쟁에 동원했다. 공<mark>격적이지만 길들이기</mark> 쉬운 수컷 코끼리는 전쟁 코끼리로 길러져 수송과 싸움을 담당했다. 벌목에도 코끼리가 동원됐다. 우거진 숲을 헤치고 무거운 통나무를 나르는 역할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끼리를 이용한 벌<mark>목은 코끼리의</mark> 보금자리를 위 협했다. 불법 벌목과 농업으로 삼림 면적이 줄어들자 코끼리는 멸 종 위기에 처했다. 태국 정부에서는 1989년 벌목을 금지시켰다. 벌 목으로 돈을 벌 수 없게 된 코끼리 조련사들은 코끼리를 데리고 도 시로 향했다.

관광객이 모이는 길거리에서 기념사진을 찍어주거나 앵벌이를 하며 돈을 벌었다. 방콕 카오산 로드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볼 수 있던 풍경이다. 유용했기에, 유용하기에 코끼리의 삶은 조금 고단했다. 2010년 코끼리 보호법이 통과된 후에야 코끼리는 도심의 길거리를 떠날 수 있었다.

1900년대 초 태국에서 불법 포획된 코<mark>끼리는</mark> 10만 마리에 달했다. 지금도 불법 포획된 약 4,000마리의 <mark>코끼리가 사육</mark>되고 있다. 야생에 남은 코끼리 수는 불과 수 천 마리로 추정된다. 현재 태국에 는 200여 곳의 코끼리 캠프가 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에코투어 리즘이라는 미명 아래 코끼리 라이딩을 포함한 트레킹을 하는 곳이 대다수였는데 요즘에는 코끼리 목욕시키기, 산책, 먹이주기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캠프가 늘고 있다.

태국 최대 규모의 치앙마이 매싸 코끼리 캠프(Maesa Elephant Camp)도 오랫동안 선보이던 라이딩 프로그램을 없앴다.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달라졌다지만 오로지 관찰과 보호를 위한 코끼리 보호구역은 그 수를 꼽을 정도로 적다.

코끼리를 타거나 코끼리 쇼를 구경하지 않으면서도 코끼리를 즐기는 방법이 있다. 치앙마이의 엘리펀트 푸푸 페이퍼 파크(Elephant PooPooPaper Park)에서는 코끼리 똥으로 종이를 만드는 간단한 체험이 가능하다. 하루 100~200kg의 먹이를 먹는 코끼리는 50~60kg의 똥을 싼다.

엘리펀트 푸푸 페이퍼 파크가 위치한 치앙마이 매림 지역에는 코끼리 캠프가 많아 코끼리 똥도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나뭇잎, 나무껍질, 바나나 등을 먹는 채식주의 코끼리의 똥에는 섬유질이 많다. 말똥, 소똥과 달리 기계가 아닌 핸드메이드로 종이 제작이 가능한 이유다.

코끼리 똥으로 종이를 만드는 첫 단계는 세척이다. 30시간 동안 똥을 끓이고 세척하면 냄새 없이 깨끗한 원료가 만들어진다. 여기에 접착력을 강화시키는 식물 추출물을 첨가해 종이를 뭉친다. 색을 입히는 과정도 동시에 진행된다. 동그랗게 뭉쳐진 종이 중 마음에 드는 색을 고르자. 뭉친 종이를 물에 넣어 흐물흐물하게 만든 다음 틀에 부드럽게 펴 바른다. 마지막으로 약 6시간의 건조 과정을 거치면 코끼리 똥은 예쁜 종이로 거듭난다.

THAILAND

THAILAND, THE LAND OF ELEPHANTS

What should I do on a trip to Thailand to have fun? Elephants riding?

Elephants are very sacred in Buddhist countries. There are white elephants in the national flag of Thailand. But I won't recommend elephants riding and treking!

: Really? For what reason?

Elephants are brutally abused to be used for riding and trekking. With iron skewers and knives, elephants are stabbed in their forehead, and elephants bleed and they end up obeying people.

I see. Is there any activity for many people to commune with elephants?

Thank you for changing your mind! If you go to the Elephant Protection Center in Chiang Mai or 'Poopoo Paper Park', you can experience taking a mud shower and a walk with elephants, feeding elephants, and making eco-friendly paper.

In Buddhism, elephants are very sacred. In particular, white elephants are considered the holiest animals. According to myth, when Maya got pregnant Buddha, she dreamed of a white elephant handing over a lotus flower. Elephants and lotus flowers have long been regarded as symbols of Buddhism. Thailand is a Buddhist country where more than 90 percent of the people believe in Buddhism. The white elephant was also loved by the Thai royal families. They considered the white elephant as a symbol of royal authority and painted the white elephant on the red background of the Thai flag.

The elephant is a symbol of Thailand and also a national animal. Because they are very useful beyond the religious meaning. In Thailand, elephants have mobilized in war for thousands of years. The male elephants, which are aggressive but easy to tame were raised as war elephants for transport and fighting. Elephants were also mobilized for logging. It was the role of carrying heavy logs through lush forests.

Ironically, logging using elephants threatened the elephants' homes. As illegal logging and agriculture reduced the forest area, elephants were endangered. The Thai government banned logging in 1989. Unable to make money from logging, elephant trainers took the elephants to the city.

They made money by taking commemorative photos or begging on the streets where tourists gathered. It can be seen on the Khaosan Road in Bangkok until the early 2000s. Because elephants were useful, the life of elephants was a little tough. After the elephant protection law was passed in 2010, elephants were able to leave the streets of the city.

In the early 1900s, 100,000 elephants were illegally captured in Thailand. About 4,000 elephants are still being raised illegally. The number of elephants left in the wild is estimated

to be only thousands. Currently, there are more than 200 elephant camps in Thailand. Until a few years ago, under the name of eco-tourism most of the places were conducted trekking and elephant riding. But these days, more and more camps are engaged in elephant bathing, walking, and feeding.

Thailand's largest Maesa Elephant Camp has also eliminated its long-running riding program. Although the perception of animal conversation has changed from the past, there are only a few elephant sanctuaries for observation and protection.

There is a way to enjoy elephants without riding them or watching elephant shows. The Elephant PooPooPaper Park in Chiang Mai offers a simple experience of making paper out of elephant dung. Elephants that eat between 100 and 200 kilograms of food a day poo between 50 and 60 kilograms.

There are many elephant camps in the Chiang Mai Mae Rim area, where Elephant PoopooPaper Park is located, so elephant dung is also enormous. Vegetarian elephants, which eat leaves, bark, and bananas, have a lot of fiber in their poop. This is why paper can be made handmade, not machines unlike horse dung and cow dung.

The first step in making paper out of elephant dung is cleaning. Boiling and washing poop for 30 hours creates clean raw materials without smell. Add plant extracts that strengthen adhesion to the paper and bind them together. The process of coloring is also carried out simultaneously. Choose your favorite color among round paper. Put the clumped paper into the water to make it mushy and spread it gently on the mold. Finally, after about six hours of drying, elephant dung is reborn as a pretty paper.

마사지의 천국, 태국

: 오늘 여행하면서 너무 많이 걸었더니 다리가 아프네.

: 좋아. 타이 마사지를 받아볼 기회가 왔군!

: 가자!

: 워워.. 진정해! 목소리를 낮추는 것이 예의야. 봉사비 팁도 꼭 준비하라구!

타이 마사지

2,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태국 전통 마사지로 태국 정부가 공인한 전통 의학의 일부다. 편안한 옷을 입고 매트에 누워 지압 마사지를 받은 후 마사지가 끝날 무렵 스트레칭을 한다. 스트레칭은 누운 채로 다리를 접어 위에서 누른 후 앉은 자세로 머리에 깍지를 끼고 등과 허리를 양옆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오일은 사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타이 마사지는 남부와 북부 스타일로 구분된다. 남부 스타일은 기와 혈을 따라 지압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치앙마이로 대표되는 북부 스타일은 스트레칭과 리듬감을 중시한다. 손가락, 손바닥, 팔, 무릎, 팔꿈치, 발을 사용해 누르는 빈도가 높아 손가락을 주로 사용하는 남부 마사지에 비해 강도가 세다.

알고 받으면 더욱 즐거운 마사지 팁

마사지 샵에서는 목소리를 낮추는 것이 예의다. 떠드는 손님이나 마사지사를 만나면 힐링의 시간이 반감된다. 역지사지. 예의를 지켜 다른이의 힐링을 방해하지 말자. 같은 마사지 업소라도 마사지사마다 솜씨는 다르다. 나와 궁합이 잘 맞는 솜씨 좋은 마사지사를 만났다면 마사지사의 이름을 기억해 두었다가 다시 찾는 것도 방법이다.

고급 마사지 샵은 마사지 기술보다는 샵의 시설이나 서비스로 평가된다. 비싸다고 무조건 좋고 싸다고 무조건 나쁜 곳이 아니므로 자신의 예산과 상황에 맞게 마사지 샵을 선택하자. 즐거운 마사지를 위해 마사지 중간중간 자신의 상태를 어필하는 게 좋다. 부드러운 마사지를 원한다면 '누앗 바오바오', 강한 마사지를 원한다면 '누앗 낙낙'이라고 말하자. 또한 마사지사가 상태를 물을 때 혹은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어필하는 것이 좋다. 마사지를 받기에 불편한 부위가 있다면 마사지사에게 미리 얘기하자. 불편한 부위를 마사지하지 않거나 집중 치료해 준다. 임신 중인 여성이라면 마사지 전에 반드시 임신 사실을 알려야 한다.

모든 마사지와 스파 업소가 등록된 업소는 아니다. 태국 보건부(Thai Ministry of Public Health)의 보건서비스(HSS)에 등록된 업소를 찾고 싶다면 'HSS' 공인 인증서를 확인하자. 마사지 업소의 입구 혹은 로비에 걸어 놓는 경우가 많다. 마사지사에게 건네는 팁은 선택이지만 예의다. 팁은 마사지 금액의 10~20% 정도가 적당하다. 태국 지폐 단위를 고려해 20B, 40B, 50B, 100B 정도를 고려하면 된다. 봉사료를 따로 받는 고급 마사지 샵은 팁을 따로 주지 않아도 된다.

THAILAND

A MASSAGE PARADISE, THAILAND

: My legs hurt because I walked too much while traveling today.

: All right, we've got a chance to get a Thai massage!

: Let's go!!!

Calm down! It's polite to lower your voice. Make sure you prepare tips for volunteering!

Thai Massage

A 2,500-year-old traditional Thai massage that is part of the traditional medicine certified by the Thai government. The process takes place on a mat on the floor with comfortable clothing. This massage is complex of various activities, including stretching, applying pressure to the active points. The master can use his hand or knee during massage, stretch and bend legs and arms and do other actions. The thing you should know is there is no oil.

In general, The Thai massage is divided into southern and northern styles. The southern style is focus on focal point on performing acupressure along the vital paths of energy and blood. The northern style represented by Chiang Mai emphasizes stretching and rhythm. It is more intense than southern massage, which is usually used with fingers, palms, arms, knees, elbows, and fee, as it is more frequently pres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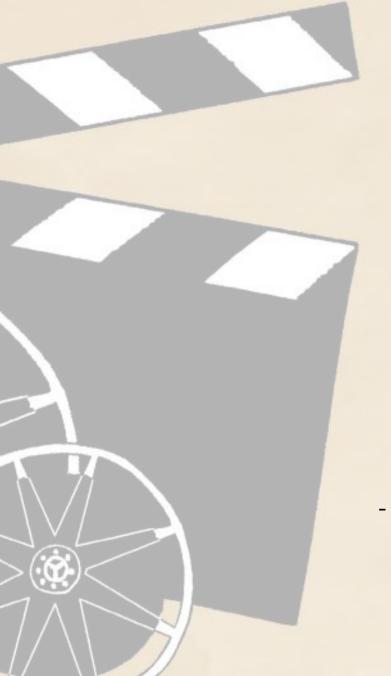
Tips to Enjoy Your Thai Massage

Frist of all, it is polite to lower your voice in Massage shop. When you meet chatty customers or massage therapists, you might not be able to relax anymore. Put yourself in the person's shoes. Keep your manners and don't disturb other's healing time. Each spa has own different skills. If you've met a skillful massage therapist who matches you well, remember the name and go again.

A luxury spa is valued for their facilities and services rather than massage techniques. Because expensive price doesn't guarantee quality of service, so choose a spa within your budget and situation. Communicate clearly with your massage therapist. If you want gently, say 'Nuad bao bao'. If you want strongly, say 'Nuah nak nak'. Whenever you feel uncomfortable, just tell your massage therapist. If there are spots that are uncomfortable to get a massage, talk to your massage therapist in advance. She will know how to treat you. If you are pregnant, be sure to let her know before massaging.

Not all massage and spa facilities are registered. If you want to find a business registered with the Health Service (HSS) of the Thai Ministry of Public Health, check out 'HSS' certificate. It is often placed at the entrance of a spa or in the lobby. A tip to a massage therapist is a choice but courtesy. Tips are appropriate for 10 to 20 percent of the massage amount. It is about 20B, 40B, 50B, and 100B, considering the unit of Thai banknotes. Exceptionally in luxury spa, they receive separate service fees so you don't need to give tips.





메콩강 5개국 여행과 함께 볼 영화

< 캄보디아 >

- 툼 레이더

< 라오스 >

- 굿 모닝, 루앙 프라방

< 미얀마 >

- From Bangkok to Mandalay

<베트남>

- 그린 파파야 향기

< 태국 >

- 프렌드 존

MUST-WATCH MOVIES BEFOR TRAVELING TO CLMVT AROUND THE MEKONG RIVER

< Cambodia >

- Tomb Raider

<Laos>

- Good morning, Luang Prabang

< Myanmar >

- From Bangkok to Mandalay

< Vietnam >

- The scent of green papaya

< Thailand >

- Friend Zone







<라오스>

굿 모닝 루앙 프라방(2008)

로맨스, 드라마. 라오스를 배경으로 한 미국 영화로, 라오스의 여러 관광 명소들을 외국인과 현지인 양측의 시선으로 비춰줍니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라오스로 오게 된 사진 작가가 가이드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점점 라오스에 빠져들게 된 주인공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영화를 봐야만 했다"

[출처] Sabaidee Luang Prabang Review by Wutthiphan | Nye Noona

<La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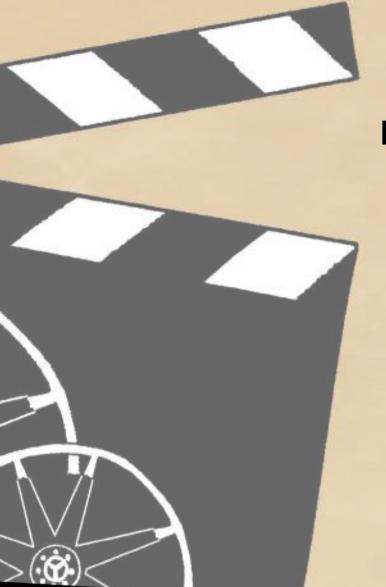
Good morning, Luang Prabang(2008)

Romance, drama. An American film set in Laos, which features many tourist sites in Laos with both foreign and local points of view. It is about a photographer who came to Laos regardless of his will falling in love with the guide. Just like the main character who became more and more fascinated with Laos. so will you.

"I told myself then that I have to see this movie"

[Source] Sabaidee Luang Prabang Review by Wutthiphan | Nye Noona





< 미양마 >

From Bangkok to Mandalay(2016)

< Myanmar >

From Bangkok to Mandalay(2016)

드라마. 미얀마의 대도시인 만달레이의 아름다움을 담은 영화로 태국과 미얀마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 냈습니다. 50년간 봉해져 있었던 편지를 꺼내 보며 옛 사랑을 추억하는 내용이 인상적입니다. 여러분의 풋풋했던 과거와 아련했던 사랑의 추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다문화 엔터테인먼트의 흥미로운 장을 시작했다." [출처] 방콕 포스트 Drama. It is a movie about the beauty of Mandalay, a big city in Myanmar, and it captures the beautiful scenery of Thailand and Myanmar.

It is impressive to see letters that have been sealed for 50 years and reminiscent of an old love. It's a movie that reminds you of

your fresh past and memories of love.

[Source] Bangkok Post

"It opens an interesting chapter in cross-cultural entertai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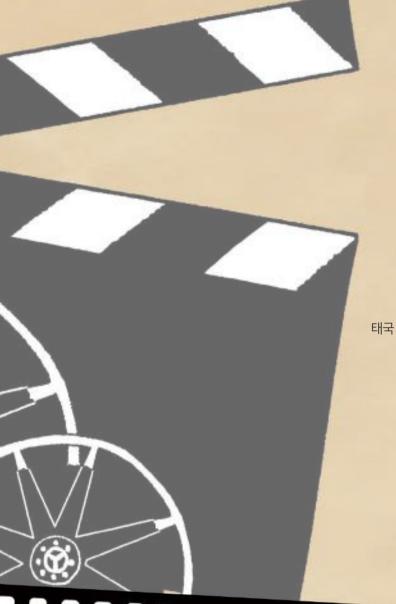












< 태국 >

<u> 프렌드 존(2019)</u>

< Thailand > Friend Zone(2019)

로맨스. 10년지기 친구를 좋아하고 있는 남자의 짝사랑 이야기. 과연 그의 사랑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색채로 표현된 태국 치앙마이, 미얀마 양곤 등 메콩지역과 밀접한 국가, 그 외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들의 문화와 생활도 엿볼 수 있습니다.

>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 "내 삶과 가장 잘 어울리는 영화" "볼 가치가 충분한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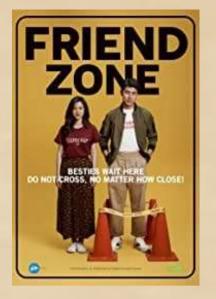
[출처] 태국영화 '프렌드존'이 재미있는 이유 | 작성자 맞눈네이버 시리즈온, 넷플릭스, 왓챠, IMDB 관객 후기

Romance. The story of a man who has loved a friend for 10 years. Can his love succeed?
You can see the beautiful nature of countries close to the Mekong, such as Chiang Mai of Thailand and Yangon of Myanmar, and other Southeast Asian countries.
You can also get a glimpse of the culture and life of those countries.

"Heartwarming movie"

"The movei that best matches my life"

"Worth it to watch"













·이메일: MKCF.ROK@gmail.com

·홈페이지: www.mekongsustainabletourism.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mekongstory ·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mekong_story · 블로그: http://blog.naver.com/mekongstory

%본메콩지속가능여행인내서는대한민국외교부의한-메콩협력기금(Mekong-ROK Cooperation Fund, MKCF)으로발행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작권은 메콩연구소(Mekong Institute (M)에 있으며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본 연구소의 동의 없이 책의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메콩연구소는 이 책자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손 실이나상해또는 불편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각국의 여행 정보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출발 전 최신 여행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